

경산현읍지(慶山縣邑誌)

현풍군읍지(玄風郡邑誌)

칠곡부읍지(漆谷府邑誌)

번역

번역 : 정병호(경북대 한문학과 교수)

윤문 : 오용원(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2018년 11월 22일

대구광역시 · 경북대 퇴계연구소

해 제

1. 경산현읍지(慶山縣邑誌)

이 책은 1749년경에 편찬된 경상도 경산현(慶山縣)의 읍지(邑誌)이다. 필사본 1책 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산현은 지금의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남산면, 남천면 일대이다. 경산은 본래 압량국(押梁國)으로 신라 지미왕(祗味王) 때에 군(郡)을 설치한 이후 장산(獐山), 장산(章山) 등으로 불리다가 고려말에 경산으로 바뀌었다. 조선시대에는 대구부(大邱府)에 인접한 고을로 임진왜란을 거친 뒤 쇠락하여 대구부에 병합되었다가 다시 현(縣)이 되었다.

수록 항목은 건치연혁(建置沿革), 진관(鎭管), 관원(官員), 군명(郡名), 방곡(坊曲), 성씨(姓氏), 풍속(風俗), 산천(山川), 토산(土產), 성곽(城郭), 봉수(烽燧), 궁실(宮室), 누정(樓亭), 학교(學校), 역원(驛院), 제언(堤堰), 불우(佛宇), 사묘(祠廟), 고적(古蹟), 명환(名宦), 인물(人物), 제영(題詠)이다. 수록 항목과 순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비슷하다. 새로 추가된 항목은 방곡, 궁실, 제언 등이다. 호구(戶口), 전결(田結), 부세(賦稅) 등은 수록되어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내용이 소략하다. 그러나 18세기 중엽 경산현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읍지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

2. 현풍군읍지(玄風郡邑誌)

이 책은 1899년에 편찬된 경상북도 현풍군(玄風郡)의 읍지(邑誌)이다. 필사본 1책 30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권두에 채색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현풍군은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구지면·유가면 전체, 논공읍(論工邑)의

동남쪽,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과 우곡면 일대이다.

현풍은 본래 신라의 추량화현(推良火縣)으로, 경덕왕 때 현효(玄驍)로 고쳐 화왕군(火王郡)에 소속되었다가 고려 때 현풍으로 고쳐 밀양군(密陽郡)에 속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현감(縣監)을 파견하는 현이 되었다. 1895년과 1896년 지방행정제도 개편에 따라 경상북도 현풍군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달성군에 속하게 되었고, 1995년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자 대구광역시에 속하게 되었다.

이 책은 1899년 전국 읍지편찬사업에 따라 이루어진 읍지이다. 수록 항목은 건치연혁(建置沿革), 군명(郡名), 관직(官職), 성씨(姓氏), 산천(山川), 풍속(風俗), 방리(坊里), 호구(戶口), 전부(田賦), 군액(軍額), 창고(倉庫), 군기(軍器), 산성(山城), 봉수(烽燧), 학교(學校), 단묘(壇廟), 능묘(陵墓), 불우(佛宇), 궁실(宮室), 누정(樓亭), 도로(道路), 교량(橋梁), 제언(堤堰), 장시(場市), 역원(驛院), 형승(形勝), 고적(古蹟), 토산(土産), 진공(進貢), 봉름(俸廩), 환적(宦蹟), 과거(科擧), 인물(人物), 제영(題詠)의 순서로 실려 있다.

특히 호구, 전부, 군액 등의 항목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기재되어 있어, 19세기 말 현풍군의 행정 및 재정 정보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아울러, 이 책에는 현풍과 관련된 제영(題詠)이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어 자료적 가치가 높다.

3. 칠곡부읍지(漆谷府邑誌)

이 책은 1899년경에 편찬된 경상북도 칠곡군 읍지이다. 칠곡부는 현재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일부와 대구광역시 북구 서쪽에 해당한다.

칠곡은 본래 신라의 팔거리현(八居里縣)으로 고려 때 팔거(八莒)로 개칭되었다. 현종 때 성주(星州)에 소속되어 칠곡(漆谷)으로 불렸다. 조선시대에 계속 성주에 속해 있다가, 1640년 가산산성(架山山城) 축성을 계기로 칠곡도호부(漆谷都護府)가 설치되었다. 읍지는 원래 산성 안에 있었는데, 1819년 팔거면(八莒面)으로 옮기고 산성에는 별장(別將)을 두었다. 이후 칠곡부는 1895년 지방행정제도 개편에 따라 칠곡군이 되었으며, 이듬해 경상북도에 소속되었다.

수록 항목은 방리, 도로, 건치연혁, 군명, 형승, 성지(城池), 관직, 산천, 성씨,

호구, 풍속, 단묘(壇廟), 공해(公廨), 제언(堤堰), 창고, 물산, 역원(驛院), 관애(關陜), 누정, 제영, 선생안, 사찰, 고적, 진공(進貢), 인물, 전답, 조적(糶糴), 전세(田稅), 대동(大同), 균세(均稅), 봉름(俸廩), 군액(軍額), 책판(冊板)의 순서로 되어 있다. 19세기 말엽 칠곡부의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19세기 말엽 칠곡부의 호구 수, 토지 결수, 조세 내역 등을 행정 및 재정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자료적 가치가 높다.

번역

경산현읍지(慶山縣邑誌)

동쪽으로 자인현(慈仁縣) 경계까지 9리로 구현(鳩峴)이 있고, 남쪽으로 청도군(淸道郡) 접경까지 30리로 성현(省峴)이 있고, 서쪽으로 대구부(大邱府) 경계까지 21리로 장현(牆峴)이 있고, 북쪽으로 하양현(河陽縣) 경계까지 21리로 연소(蓮沼)가 있고, 서울과의 거리가 710리이다.

【건치 연혁】

본래 압량[押梁, 압독(押督)이라고도 함]은 작은 나라였는데 신라(新羅) 지미왕(祗味王)이 점령하여 군(郡)을 두었다.景德왕(景德王)이 이름을 장산(獐山)으로 고쳤고 고려(高麗) 초에 장산(章山)으로 고쳤다. 현종(顯宗) 9년에 경주(慶州)에 소속시켰으며, 명종(明宗) 2년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충선왕(忠宣王) 즉위 초에 임금의 이름¹⁾을 피하여 지금 이름인 경산으로 고쳤으며 충숙왕(忠肅王) 4년에 국사(國師) 일연(一然)의 고향이라 하여 현령(縣令)으로 승격시켰다. 공양왕(恭讓王) 2년에 순비(順妃) 노씨(盧氏)의 고향이라 하여 지군사(知郡事)로 승격시켜玉山이라 別號하였다. 본조(本朝) 태조(太祖) 때에 다시 현령(縣令)으로 낮추었다. 선조 만력 신축년(1601)에 임진왜란 이후로 조락했기에 대구부에 합병시키고 영을 설치했다가 신미년(1607)에 다시 고을을 설치하였다.

【진관(鎭管)】

대구진관(大邱鎭管) : 속오(束伍) 4초(哨), 마군(馬軍) 1초(哨).

【관원(官員)】

현령(縣令)

1) 임금의 이름 : 충선왕(忠宣王)의 이름은 장(璋)이다. 장산(獐山)의 장(獐)과 음이 같다.

【군명】

압량(押梁) · 압독(押督) · 장산(獐山) · 장산(章山) · 옥산(玉山) · 경산(慶山)

【방곡(坊曲)】

읍내면: 성내(城內) 4부(部), 성외(城外) 11방(坊).

동면: 관문(官門)과의 거리가 20리. 11방이 있음.

남면: 관문과의 거리가 30리. 11방이 있음.

서면: 관문과의 거리가 20리. 12방이 있음.

북면: 관문과의 거리가 20리. 7방이 있음.

【성씨】

정(鄭): 본관 초계

장(蔣): 본관 아산(牙山)

한(韓): 본관 청주

서(徐): 본관 달성

조(趙): 본관 풍양(豐壤)

정(鄭): 본관 청주

이(李): 본관 성주

박(朴): 본관 밀양

권(權): 본관 안동

조(曹): 본관 창녕

승(承): 본관 해주

곽(郭): 본관 포산

정(鄭): 본관 동래

노(盧): 본관 광주(光州)

채(蔡): 본관 인천

손(孫): 본관 밀양

최(崔): 본관 홍해

유(兪): 본관 기계(杞溪)

현(玄): 본관 팔거(八莒)

최(崔): 본관 영양(永陽)

이(李): 본관 완산

김(金): 본관 분성(盆城)

배(裵): 본관 달성

백(白): 본관 수원(水原)

여(呂): 본관 성산

김(金): 본관 청도

이(李): 본관 광주(廣州)

노(盧): 본관 장연(長淵)

임(林): 본관 ?

나(羅): 본관 중화(中和)

도(都): 본관 팔거

성(成): 본관 창녕

【풍속】

풍속이 검소하고 소탈함을 숭상한다. 관풍안(觀風案)에 나온다. 복색은 흰색을 숭상한다.

【산천】

마안산(馬鞍山): 현의 남쪽 21리에 있다.

동학산(動鶴山): 현의 남쪽 8리에 있다.

금성산(金城山): 현의 남쪽 7리에 있다. 산 위에 우물이 있는데 큰 가뭄에도 마르지 않아 여기서 기우제를 지내면 효험이 있다.

장고산(長鼓山): 현의 동쪽 4리에 있다.

현성산(賢聖山): 현의 남쪽 10리에 있다.

황율천(黃栗川): 금호(琴湖)라고도 한다. 현의 북쪽 9리에 있다. 청송 보현산(普賢山)에서 발원하여 성주(星州) 무계진(茂溪津)으로 들어간다.

오목천(五木川): 현의 동쪽 10리에 있다. 자인(慈仁) 반룡산(盤龍山)에서 발원

하여 금호와 합류한다.

남천(南川): 현의 남쪽 1리에 있다. 마안산(馬鞍山)에서 발원하여 금호로 들어간다.

【토산】

붕어, 연밥

【성곽】

둘레 1200척, 높이 10척.

【봉수】

성산 봉수(城山烽燧) : 현의 북쪽 8리에 있다. 북쪽으로 하양(河陽) 시산(匙山) 봉수에 응하고, 서쪽으로 대구부(大邱府) 법이산(法伊山) 봉수에 응한다.

【누정】

진옥루(鎭玉樓): 서문의 누각이다. 현령(縣令) 이발(李渤)이 창건하였다.

【학교】

향교 : 예전에는 현의 서쪽 옥사 아래 있었는데 숙종 갑자년에 현의 남쪽 성밖 2리로 이건하였다.

고산서원(孤山書院) : 현의 북쪽 10리 고성산(古城山) 아래에 있다. 만력(萬曆) 초기에 현령(縣令) 윤희렴(尹希廉)이 고을 사람들과 더불어 서재를 세워 고을 선비들이 학문을 연마하는 곳으로 삼고자 사람을 시켜 퇴계 이선생에게 서재의 이름을 청하였다. 퇴계가 그 산을 고산(孤山)이라 이름하고 그 문을 구도(求道)로 편액하였다. 그 후 한홍익(韓弘翊) 등이 서원 건립을 주창하였다. 만력 계유년에 문순공 퇴계 이황의 위패를 모시고 문장공(文莊公)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의 위패를 배향하고 ‘고산서원’이라 이름하였다.

【역원】

압량역(押梁驛) : 현의 동쪽 12리에 있다. 속설에 압독국(押督國)의 옛터라고 한다.

【제언(堤堰)】

갑제(甲堤) : 현의 동쪽 11리에 있다.

동을산제(冬乙山堤) : 현의 동쪽 15리에 있다.

작제(鵲堤) : 현의 동쪽 15리에 있다.

마관제(馬館堤) : 현의 동쪽 9리에 있다.

대풍제(大豐堤) : 현의 동쪽 15리에 있다.

부적제(夫迪堤) : 현의 동쪽 10리에 있다.

건흥제(乾興堤) : 현의 동쪽 20리에 있다.

사제(笥堤) : 현의 동쪽 20리에 있다.

적제(赤堤) : 현의 동쪽 20리에 있다.

침범제(針法堤) : 현의 동쪽 20리에 있다.

삼천제(三千堤) : 현의 동쪽 7리에 있다.

사제남제(乍堤娉堤) : 현의 북쪽 5리에 있다.

사제매제(乍堤第二妹堤) : 현의 북쪽 5리에 있다.

옹산제(甕山堤) : 현의 서쪽 7리에 있다.

간천제(干泉堤) : 현의 서쪽 7리에 있다.

장현제(塙峴堤) : 현의 서쪽 20리에 있다.

원천제(院泉堤) : 현의 서쪽 15리에 있다.

구물제(仇勿堤) : 현의 서쪽 15리에 있다.

이천외제(梨川外堤) : 현의 서쪽 20리에 있다.

이천내제(梨川內堤) : 현의 서쪽 20리에 있다.

곶계제(串溪堤) : 현의 서쪽 13리에 있다.

사방정제(四方亭堤) : 현의 서쪽 10리에 있다.

말이제(末伊堤) : 현의 서쪽 10리에 있다.

승제(升堤) : 현의 서쪽 20리에 있다.

원당제(院堂堤) : 현의 북쪽 20리에 있다.

만세량(萬世梁) : 현의 동쪽 30리 하양 경계에 있다. 금호 상류를 바로 끊어 관계에 이익을 주니 고을의 최고가 되었다.

【불우(佛宇)】

경흥사(慶興寺) : 현의 남쪽 20리 동학산(動鶴山)에 있다. 승정 7년 을해년에 도사(道士) 진관(眞寬)이 창건하였다.

안흥사(安興寺) : 현의 남쪽 20리 현성산(賢聖山)에 있다.

쌍계사(雙溪寺) : 현의 남쪽 30리 마안산(馬鞍山)에 있다.

구주암(鳩住菴) : 현의 남쪽 20리 金城山에 있다. 官竹田이 있다.

조계암(曹溪菴) : 현의 남쪽 30리 마안산(馬鞍山) 서쪽 기슭에 있다.

여불암(如佛菴) : 현의 북쪽 25리 팔공산 아래에 있다.

【사묘(祠廟)】

사직단(社稷壇) : 현의 서쪽 7리에 있다.

성황사(城隍祠) : 현의 동쪽 3리에 있다.

여단(厲壇) : 현의 북쪽 3리에 있다.

영동사(永東祠) : 전영동(全永東)은 고려 때 사람으로 고을의 아전이 되었다. 집은 송천(松川)에서 살았다. 저물녘에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왔는데, 길을 다니는 것이 매우 빨랐다.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겨 살펴보니, 오갈 때마다 호랑이를 타고 다녔다. 음식은 구운 무우뿌리만 먹었다. 그가 죽은 뒤에, 고을 사람들이 사당을 세우고 매년 2월 상일에 무우뿌리를 올려 제사를 지냈다. 집집마다 제사를 지냈는데, 경상도 일대에 두루 퍼지니 이를 영동제(永東祭)라 하였다. 제사를 지낼 때 근신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에 모두 경외하고 목욕하고는 근신하였다. 금수 같은 부류가 만약 제물을 범하면 모두 곧장 죽는다고 한다.

【고적】

우곡고성(弓谷古城) : 현의 서쪽 6리에 있다. 신라 때 고포성·금성[지금은 없음]·우곡성 세 성을 합쳐서 압량군(押梁郡)으로 통합하였다. 그 뒤에 다시 세 성

으로 고쳤다.[지금은 폐지되었음]

성암(聖巖) : 현의 서쪽 3리에 있다. 산은 동학산으로부터 뻗어와 우뚝 솟아 현의 서악이 되었다. 층층의 바위가 우뚝 솟아 깎아지른 듯한데 그 위에는 석굴이 있어 수천 명을 수용할 만하였다. 또한 바위 가운데에 샘물이 있다. 만력(萬曆) 임진왜란 때 향교(鄕校) 소속 사내중 강개명(姜開明)이 다섯 성인의 위패를 이 바위굴에 임시로 모시고 한결같이 보호하였다. 왜란이 끝난 뒤에 이 일이 나라에 알려져 특별히 강개명의 직역(職役)을 면제해 주고 충의위(忠義衛)에 소속시켰다. 바위 아래에 지금 몇 칸의 지성재(志聖齋)가 있다.

【명환】

신라

김유신(金庾信) : 진덕왕(眞德王) 때에 압량주 군주(押梁州郡主)가 되었는데 군사 일에는 관심이 없는 듯 음주와 풍악을 즐기자 군사들이 용렬한 장수로 여겼으며 한 번도 싸우지 못하는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유신은 그 군사들을 쓸 만하다 여기고, 곧 백제(百濟)를 쳐서 크게 격파하고 적장 8인을 사로잡았다.

김인문(金仁問) : 무열왕(武烈王) 때에 압독총관(押督摠管)이 되어 장산성(獐山城)을 쌓아 요새지(要塞地)를 만든 공으로 식읍(食邑) 3백호를 받았다.

본조

손욱(孫旭) : 근신하고 부지런하며 법을 잘 받들었다.

이희년(李喜年) : 자는 자수(子壽)이고, 본관은 한산(韓山)이다. 엄격 공평하고 밝게 헤아리니 아전들은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감복하였다. 6년간 선정을 펼치니 온 고을이 흡족해 하였다.

이원구(李元龜) : 자는 여서(汝瑞)이고, 본관은 완산(完山)이다. 현종(顯宗) 무신년(1668)에 부임하여 연달아 큰 흉년을 당하자, 힘껏 백성을 구휼하며 언진 정치를 펼쳐 도내에 으뜸이 되었다. 방백이 그의 공적을 조정에 알려 통정대부로 승진하게 하였다. 고을 백성들이 그를 사모하여 생사당을 세우고 해마다 제향하였는데 그의 사후에 다시 상덕사라 이름하고 춘추로 중정일(中丁日)에 제향하였다. 또한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를 세웠다. 금상 을해년에 고을사람들이 중창을 의논하

여 재물은 모았는데 반호사(班戶使) 정중태(鄭重泰)가 이 일을 주관하여 묘우를 중수하고 연이어 강당과 전사청을 건립하였다. 현령 김정겸(金貞謙)이 묘우와 강당을 색칠하였다.

유명담(兪命聃) : 갑술년에 부임하였다. 청덕선정비가 있다.

이발(李渤) : 기묘년에 부임하였다. 선정비가 있다.

심수준(沈壽俊) : 을미년에 부임하였다. 불망비가 있다.

이정량(李廷亮) : 기해년에 부임하였다. 선정비가 있다.

류유(柳愈) : 신해년에 부임하였다. 선정비가 있다.

서민수(徐敏修) : 기사년에 부임하였다. 청덕선정비가 있다.

【인물】

고려

김정미(金庭美) : 충선왕(忠宣王)을 따라 원(元)나라에 들어가 공을 세우고 벼슬이 정승에 이르렀다.

정연(鄭珣) : 자는 맹순(孟淳)이고, 본관은 초계(草溪)이다. 음율과 예를 잘 알아 후학들이 나아가 배웠다. 충목왕 때 3년간 서연시독관을 지냈으며, 공민왕 때 강릉교주도도지휘사(江陵交州道都指揮使) 사공우복야(司空右僕射)가 되었다. 정유년에 역신 채하중(蔡河中)에게 해를 입어 경산에 유배되어 상방리(上方里)에 살았다. 벼슬은 판개성부사에 이르렀고 팔천부(八川君)에 봉해졌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경산에 살게 되었다.

본조

전백영(全伯英) : 벼슬이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에 이르렀고 시호(諡號)는 문평(文平)이다.

진권(陳權) : 본관은 서산이다. 현의 북쪽 중방리(中方里)에 살았다. 가정 계묘년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벼슬이 성균관사에 이르렀다.

박선(朴璇) : 본관은 밀양이다. 벼슬은 현감에 이르렀다.

이시원(李始援) : 본관은 완산(完山)이다. 병진년에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벼슬

은 현감에 이르렀다.

서사선(徐思選) : 본관은 달성이다. 타고난 자질이 영특하였다. 일찍 한강(寒岡)의 문하에서 유학하였다. 만력 계축년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였으며, 학행과 문장이 있어 추앙을 받았다. 벼슬은 예빈시참봉에 이르렀다. 호는 동고(東皐)이다.

곽의지(郭義之) : 본관은 포산(苞山)이다. 현의 북쪽 중방리에 살았다.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며, 문장과 학행으로 저명하였다. 벼슬은 참봉에 이르렀다.

유태중(俞台重) : 본관은 기계(杞溪)이다. 현의 북쪽 중방리에 살았다. 강희(康熙) 을미년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문장이 넉넉하였으며, 고을의 유생들을 장려하였다.

조세복(趙世復) : 본관은 풍양(豐壤)이다. 현의 북쪽 중방리에 살았다. 경자년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한홍익(韓弘翊) : 본관은 청주이다. 현의 남쪽 금곡(金谷)에 살았다.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유익중(俞翼重) : 본관은 기계(杞溪)이다. 현의 북쪽 중방리에 살았다. 강희 계사년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본조 효자】

손일선(孫日宣) : 부모상을 당하여 각각 3년 동안 시묘하였다. 세종 때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가 세워졌다.

하한경(河漢京) : 부모상을 당하여 각각 3년 동안 시묘하였다. 선조(宣祖) 때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가 세워졌다.

박홍록(朴弘祿) : 부모를 섬김에 지극한 효성이 한결같았다. 그 아내가 조금이라도 부모의 뜻을 거스르면, 그때마다 자기 잘못으로 여겨 자신의 종아리를 때렸다. 현종 때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가 세워졌다.

여대익(呂大翊) : 본관은 성산(星山)이다. 부친이 병이 들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드려서 5일 더 생명을 연장하게 하였고, 부친이 돌아가시자 3년 동안 시묘하였다. 여막 뒤에 만수당(萬壽堂)을 지어 모친을 지극한 효성으로 봉양하였다. 숙종(肅宗)과 경종(景宗)의 국상(國喪)에 모두 나아갔으며, 제단을 설치하

고 대궐을 향해 곡을 하고 3년 동안 나물밥만 먹었다. 금상 때 방백이 이 일을 조정에 알리자 그 집안에 부역과 조세를 면제해 주었다.

서도기(徐道璣) : 본관은 달성이다. 부모의 병환에 자신의 손가락을 잘랐다. 3년 동안 시묘하였다.

정태주(鄭泰周) : 본관은 초계이다. 부모의 병환에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니 2일간 더 소생하였다. 3년 동안 시묘하였다.

장해붕(蔣海鵬) : 본관은 아산이다. 부모상을 당하여 3년 동안 시묘하였다.

[본조 열녀(烈女)]

사비(私婢) 덕지(德之) : 스무 살의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3년간 제사를 지냈다. 항상 칼을 차고서 포악한 자를 방비하며 절개를 지키면서 삶을 마쳤다. 선조 때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가 세워졌다.

사비(私婢) 수옥(守玉) : 현의 북쪽 반계촌(礪溪村)에 살았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한결같이 절개를 지켰다. 시어머니가 죽을 지경에 이르자, 자기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떨어뜨려 시어머니를 다시 살아나게 하였다. 현종 때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가 세워졌다.

【제영(題詠)】

■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이 객관(客館)에 쓴 시

古縣大如斗 옛 고을은 아주 큰 데
使君才似江 사또의 재주는 강물과 같도다
賢名曾第一 어진 명성은 일찍이 제일이었고
治化定無雙 다스림은 실로 비할 데 없구나
山色濃低檻 산 빛은 짙어 난간에 나직하고
秋聲細入牕 가을 소리는 가늘게 창에 들어오네
斯文佳會盛 선비의 아름다운 모임 성대해라

題詠筆如杠 시 쓰는 붓들이 깃대 같이 힘차네²⁾

■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시³⁾

簷短宜迎月 처마 낮아 달맞이 하기 좋으나
山橫礙望江 산이 막아 강물은 보이지 않네
鳴鳩枝上七 가지 위엔 일곱 마리 비둘기 울고
飛燕雨中雙 빗속에는 한 쌍의 제비가 나네
境靜聊觀物 고요히 사물을 관조하다가
心閑穩倚牕 마음이 한가해져 창에 기대네
題詩畫眞興 시를 지어 참된 흥치 그려 보나니
那用筆如杠 장대 같은 붓을 쓸 게 있으랴

■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이 향교 제생에게 준 시[示鄉校諸生詩]⁴⁾

責重憂深力不勝 책임 중하고 근심 깊어 건디기 어려운데
南來何以答黎烝 여기 와서 무엇으로 백성에게 보답하리
一編小學修行法 한 편의 소학은 수행하는 법도이니
勸爾諸生日服膺 제생들은 날마다 이 책 품기를 권하노라

2) 붓들이 ... 힘차네: 웅건한 문장력을 비유한 말. 구양수(歐陽脩)가 <여산고(廬山高)>에서 여산에 은거한 유환(劉渙)의 고상한 절조를 찬미하면서 “장부의 장대한 지절 그대만 한 이 적으니, 내가 이것 말하려 하나 깃대 같은 큰 붓 어떻게 얻겠는가[丈夫壯節似君少嗟我欲說安得巨筆如長杠]”라고 하였다.

3) 회재집에는 제목이 <慶山客館次徐剛中韻>으로 되어 있다.

4) 모재집에는 제목이 <勸示慶山學者>로 되어 있다.

현풍군읍지(玄風郡邑誌)

동쪽으로 밀양부(密陽府) 풍각현(豐角縣) 경계까지 33리, 남쪽으로 창녕현(昌寧縣) 경계까지 16리, 서쪽으로 고령현(高靈縣) 경계까지 16리, 북쪽으로 성주(星州) 가리현(加里縣) 경계까지 23리, 서울과의 거리는 7백 4리다.

【건치 연혁】

본래 신라(新羅)의 추량화현(推良火縣)이다.[추(推)는 삼(三)으로도 씀]景德왕(景德王)이 현요(玄驍)로 고쳐서 화왕군(火王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가 고려 때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현종(顯宗)은 밀양군(密陽郡)에 소속시켰고, 공양왕(恭讓王)은 감무(監務)를 두고 밀양(密陽) 구지산부곡(求智山部曲)을 떼어 소속시켰다. 본조(本朝)에서 현감(縣監)으로 고쳤다. 성종(成宗) 9월에 창녕에 통합하였다가 병신년 6월에 다시 군을 설치하였다.

【군명】

추량화(推良火, 推는 三으로도 씀)

현요(玄驍)

포산(苞山)

현풍(玄豐, 豐은 지금 風으로 씀)

【관직】

현감 1원(員): 지금은 군수 1원.

문음(文蔭)으로 6품이다. 좌수 1인, 별감 2인, 군관 38인, 인리(人吏) 64인, 지인(知印) 21인, 사령(使令) 20명, 관노 17명, 관비 7명이 있다.

○ 병신년에 복읍(復邑)한 후 향장(鄉長) 1인, 순교(巡校) 4인, 수서기(首書記) 1인, 서기(書記) 6인, 통인(通引) 2인, 사령 6인, 사용(使傭) 2인, 사동(使僮) 2인, 객사지기 1인, 향교지기 1인을 두었다.

【성씨】

문(文): 본관 본현(本縣)
박(朴): 본관 밀양(密陽)
김(金): 본관 서흥(瑞興)
엄(嚴): 본관 영월(寧越)
배(裴): 본관 성주(星州)
김(金): 본관 경주(慶州)
박(朴): 본관 순천(順天)
김(金): 본관 선산(善山)
김(金): 본관 청도(淸道)
채(蔡): 본관 평강(平康)
나(羅): 본관 수성[壽城, 지금은 없음]
신(辛): 본관 영산[靈山, 지금은 없음]

신증(新增)

성(成): 본관 창녕(昌寧)
김(金): 본관 안동(安東)
박(朴): 본관 고령(高靈)
조(曹): 본관 창녕(昌寧)
노(魯): 본관 삼가(三嘉)

【산천】

비슬산(毘瑟山) : 일명 포산(苞山)이다. 현의 동쪽 15리에 있다. 청도와 대구로부터 와서 한 줄기는 남쪽으로 뻗어 화왕산(火旺山)이 되고 한 줄기는 서쪽으로 뻗어 창녕의 소백산(小白山)이 되었다.

대니산(戴尼山) : 예전의 금사산(金寺山)으로 일명 태리(台離)라고 한다. 현의 서쪽 10리에 있다. 한훤당 선생이 그 아래에 살았기에 대니(戴尼)로 이름하였으니 그가 공자를 사모한 것을 높여 말한 것이다.

대견봉(大見峯): 비슬산의 최고 정상이다.

조화봉(照華峯): 비슬산 남쪽에 있다. 언전(諺傳, 俗傳)에 당나라 승려 일행(一行)이 이 봉우리가 중화(中華)를 비춘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불리어졌다.

석검봉(石劍峯) 천왕봉(天王峯) 수도봉(修道峯): 비슬산 북쪽에 있다.

월선봉(月先峯): 비슬산 남쪽에 있다.

필봉(筆峯): 비슬산 서쪽에 있다.

비봉산(飛鳳山): 객사 북쪽에 있다. 관아의 주산이다.

익산(翼山): 현의 동쪽 수백 보에 있다. 영남루의 옛터가 있다.

상산(翔山): 현의 북쪽 6리에 있다. 위에는 신화봉(信火峯)이 있다.

화산(花山): 현의 서쪽 2리에 있다.

옥산(玉山): 현의 서쪽 5리에 있고, 둘레는 2리 가량이다. 관아의 수구(水口)로 관에서 소나무를 심은 뒤부터 벌채를 금하였다.

약산(藥山): 현의 북쪽 10리에 있다.

낙동강(洛東江): 북쪽에서 와서 남쪽으로 흘러 대니산을 돌아 서남북으로 창녕의 경계로 들어가니 본현의 벼리이다.

귀천(龜川): 비슬산에서 나와서 본현을 돌아 낙동강으로 들어간다.

옥도(玉島): 현의 서쪽 10리에 있다. 세전에 조반(趙胖)이 여기서 유배살이하였다고 한다.

도택(島澤): 현의 서쪽 10리에 있다. 속전에 곽의(郭儀)가 안렴사로 있을 때 숲을 쌓아 섬을 만들었다고 한다.

지연(紙淵): 현의 동쪽 8리에 있으니 비슬산 아래 동구이다. 연못을 따라 올라가다가 옮겨 들어가면 깊숙하고 승경이 많다. 옛날부터 여기서 종이를 만들었다.

광탄(廣灘): 현의 서쪽 5리 낙동강(洛東江) 하류에 있다.

답곡진(畓谷津): 현의 서쪽 20리 광탄(廣灘) 하류에 있다.

마정진(馬丁津): 현의 서쪽 27리 답곡진(畓谷津) 하류에 있다.

대암진(臺巖津): 현의 서쪽 20리에 있다.

장지(長池): 현의 서쪽 9리에 있다. 둘레가 4리 가량이고, 못가에 금계돈(金溪墩)이 있다.

대지택(大技澤): 현의 남쪽 15리에 있다.

과을포(寡乙浦): 현의 서쪽 10리에 있다.

금택(金澤): 현의 서쪽 13리에 있다.

【풍속】

땅이 척박하여 백성들이 가난하였다. 풍속은 검소함을 숭상하였다. 김시습(金時習)의 시에 “현풍의 덕화가 융성하네[玄風德化隆]”⁵⁾라고 하였다.

【방리(坊里)】

현내면(縣內面)

동부면(東部面): 동쪽으로 5리이다.

유가면(瑜伽面): 동쪽으로 8리이다.

우만면(于萬面): 동쪽으로 8리이다.

말역면(末亦面): 동남쪽으로 15리이다.

묘동면(妙洞面): 남쪽으로 15리이다.

구지산면(求智山面): 남쪽으로 20리이다.

왕지면(旺旨面): 서쪽으로 강 너머 25리이다.

답곡면(畓谷面): 서쪽으로 강 너머 23리이다.

오설면(烏舌面): 서쪽으로 20리이다.

산전면(山田面): 서쪽으로 15리이다.

마산면(馬山面): 서쪽으로 15리이다. 일명 솔례(率禮)라 한다.

모로촌면(毛老村面): 서쪽으로 10리이다.

진촌면(津村面): 서쪽으로 강 너머 15리이다.

논공면(論工面): 북쪽으로 16리이다.

걸산면(跣山面): 북쪽으로 18리이다.

서부면(西部面): 서쪽으로 5리이다.

【호구(戶口)】

5) 매월당집 <懷舊>의 한 구절이다. “慶州已經廢。安東曾避戎。清河逢聖瑞。際海遇仁同。眞寶山河固。玄豐德化隆。醴泉流湛湛。珍具到龍宮”

신묘년 원호(元戶) 3447호(戶), 인구 13,393명[남자 6756명, 여자 6637명]
기해년 호적 원호 205호, 인구 9,861명[남자 5799명, 여자 4062명]

【전부(田賦)】

원장(元帳) 전답 4329결 71부 7속 가운데 잡탈(雜頃)은 2243결(結) 46부(負) 9속(束), 신묘년 시기전답(時起田畝)⁶⁾ 2086결 24부 8속.

콩 369섬 4말 4홑 4사(夕), 쌀 278섬 10말 5도(刀) 7홑 6사, 삼수량미(三手糧米) 166섬 13말 4도 9홑 8사, 대동미 1443섬 3말, 군세미 11섬 1말 1도 3홑 8사, 火稅木 1필 12척, 대전(代錢) 2냥 6전(錢).

결전(結錢) 매결 5전 1푼씩 거두어 분부를 기다려 수납함. 요역에서는 매결 부호전(覆戶錢) 1냥씩 거두어 관용의 잡종(雜種)에 대비함.

○무술년 원장 전답 2123결 6부 4속, 매결 정식(定式)에 따라 30냥씩. 도합 결전 63691냥 9전 2푼, 본군 사등(四等) 경비 10770냥을 제하고 탁지부에 실제로 52921냥 9전 2푼 납부함.

【군액(軍額)】

금위정군(禁衛正軍) 35명, 복마군(卜馬軍) 3명[몸으로 군역에 응함], 자보(資保)⁷⁾ 41명, 관납보(官納保) 158명, 어보(御保) 84명, 과방보(罷防保) 500명, 군향보(軍餉保) 103명, 어영정군(御營正軍) 24명, 복마군 2명[몸으로 군역에 응함], 자보 28명, 관납별파진보(官納別罷陣保) 10명, 제번군(除番軍)⁸⁾ 33명, 병조(兵曹) 금보여정(禁保余丁) 31명, 호연대보(扈輦隊保) 9명, 기보병(騎步兵) 39명, 유청수포군(有廳收布軍) 5명, 충훈부(忠勳府) 충익위(忠翊衛) 22명, 장악원(掌樂院) 악옹보(樂工保) 6명, 악생보(樂生保) 2명, 호조(戶曹) 세철장(稅鐵匠) 1명, 취철장(吹鐵匠) 2명, 공조(工曹) 장인(匠人) 67명, 훈련청(訓練廳) 포보(炮

6) 시기전답(時起田畝): 현재 경작하고 있는 논과 밭.

7) 자보(資保): 보포(保布)를 내어 실역(實役)에 복무하는 군정(軍丁)을 돕는 보인(保人). 보인은 군역에는 나가지 않고 베를 내어 군역에 복무하는 사람을 보조해주던 사람.

8) 제번군(除番軍): 번(番)을 서지 않는 군인.

保) 30명, 승호포수(陞戶炮手) 1명, 균역청(均役廳) 선무군관(選武軍官) 35명, 수어청(守禦廳) 의승(義僧) 2명[防番], 감영(監營) 성정군(城丁軍) 48명, 순마보(巡馬保) 72명, 수첩군관(守堞軍官) 50명, 아병마군(牙兵馬軍) 73명, 자보(資保) 73명, 수솔(隨率) 1명, 보군(步軍) 238명, 복마군(卜馬軍) 16명, 파하군(把下軍) 22명, 복마군 1명, 별무사(別武士) 9명, 자보 18명, 보지기[裸直] 1명, 자보 2명, 무부(巫夫) 군뢰(軍牢) 1명, 순중영작령군관(巡中營作領軍官) 1명, 좌병영 소속 봉수군(烽燧軍) 100명, 여수기병(旅帥旗兵) 2명, 대정기병(隊正騎兵) 11명, 진영(鎭營) 속오마군(束伍馬軍) 42명, 자보 84명, 복마군 32명, 자보 64명, 보군 457명, 우수영 소속 구산진(龜山鎭) 수군(水軍) 854명, 조라진(助羅鎭) 수군 371명, 관속(官屬) 인리보(人吏保) 시존(時存) 61명, 진상지장보(進上紙匠保) 89명, 배지보(陪持保) 25명, 청대죽보(靑大竹保) 16명, 인삼보(人蔘保) 171명, 약간(藥干) 15명, 자보 45명, 약공보 25명, 향교 모입(募入)⁹⁾ 40명, 도동서원(道東書院) 모입 20명, 예연서원(禮淵書院) 모입 20명, 송담서원(松潭書院) 모입 15명, 이양서원(尼陽書院) 모입 15명, 향청의자보(鄉廳衣資保) 12명, 채간보(菜干保) 10명, 하속보(下屬保) 14명, 군관의자보(軍官衣資保) 16명, 나장의자보(羅將衣資保) 19명, 급창관대보(及唱冠帶保) 5명, 형방청마보(刑房廳馬保) 20명, 군기유황보(軍器疏黃保) 10명, 관혁보(貫革保) 5명[지금은 없음]

【성지(城池)】

없음.

【임수(林藪)】

없음.

9) 모입(募入): 모입인(募入人). 향교나 서원의 재정을 돕는 사람. 모정(募丁), 모속(募屬), 교보(校保), 보직(保直), 보노(保奴) 등 여러 명칭이 있는데 양인뿐만 아니라 사노(私奴)도 있었고, 향교나 서원에 봄가을로 전(錢) 1냥 또는 2냥 정도를 냈다고 한다.

【창고】

읍창(邑倉): 지금은 없음.

외창(外倉): 읍저(邑底)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음.

진창(賑倉): 지금은 없음.

대동고(大同庫): 쌀 9288섬 9말 5도(刀) 4홉 1사[夕], 콩 868섬 6말 7도 7홉 8사, 벼 8204섬 12말 4도 9홉 8사, 메밀[木麥] 대조(代租) 141섬 7말 9도 5홉 2사, 겉보리 8490섬 5말 2홉 4사, 진맥(眞麥) 47섬 14말 3도 9홉 7사[지금은 없음]

【군기(軍器)】

각색(各色) 활 197장(張), 화살 337부(部) 14개, 통 207개, 장창(長槍) 96자루, 수철환(水鐵丸) 1000개, 철갑(鐵甲) 1부, 철투구[鐵頭口] 1부, 능철(稜鐵) 3700개, 피갑(皮甲) 1부, 지갑(紙甲) 2부, 거마작(拒馬柵)¹⁰⁾ 27좌(坐), 노구술[爐口] 86좌, 도끼 10자루, 낫 13자루, 엄심(掩心) 41부, 엄두(掩頭) 41부, 등패(騰牌) 4좌, 불화살 15자루, 솔발(率鉢)¹¹⁾ 3좌, 삼혈총(三穴銃) 2개, 소고(小鼓) 5좌, 장막 41부, 대쟁(大鎗) 2면(面), 소쟁(小鎗) 3면, 남라개(南羅介, 투서함) 101개, 화철석(花鐵石) 101개, 화승(火繩) 303사리(沙里), 숙마조소(熟麻條所)¹²⁾ 101거리(巨里), 회추(回錐) 101개, 바늘 101개, 솜실[綿絲] 101리(里), 궁노기(弓弩機) 1좌, 수노기(手弩機)¹³⁾ 1부(部), 나무 바가지 491개, 화약독(火藥櫝) 20좌, 휘장 1부, 나팔 1쌍, 호적(號笛)¹⁴⁾ 1쌍, 등철(燈鐵) 7개, 환도(環刀) 1자루, 승혜(繩鞋, 미투리) 1부, 기창(機槍) 1부, 도찬(刀鑽, 끌) 각 1부, 영기(令旗) 1쌍, 순시기(巡視旗) 1쌍, 담전립(毯戰笠) 1쌍, 의갑주(衣甲冑) 1부, 초록대단등의(草綠大緞燈衣)¹⁵⁾ 7부, 구용자유령(具勇字鑰鈴) 1쌍, 유호적(鑰號笛)

10) 거마작(拒馬柵): 말을 막는 막대기

11) 솔발(率鉢): 자루 달린 방울종.

12) 숙마조소(熟麻條所): 삶은 마로 만든 줄바.

13) 수노기(手弩機): 수집 발의 화살을 넣어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으며, 부인이나 어린이이라도 모두 쏠 수 있기 때문에 부인노(婦人弩)라고도 한다.

14) 호적(號笛): 관기(官旗)를 모으고 발방(發放)하는 데 사용하는 피리.

1쌍, 목면홍의(木綿紅衣) 1쌍, 오방기치(五方旗幟) 5면, 파총인기(把摠認旗) 12면, 장대기(隊長旗) 32면, 사초인기(四哨認旗) 4면, 조총(鳥銃) 364자루, 화약 2743근, 연환(鉛丸) 193367개

【관애(關陜)】

없음.

【진보(鎭堡)】

없음.

【산성】

서산성(西山城): 현의 서쪽 4리에 있다. 둘레는 1823척, 높이는 6척이다. 군창(軍倉)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석문성(石門城): 현의 서쪽 15리에 있다. 만력 정유왜란 때 망우당 객재우가 방어사가 되어 처음으로 쌓았다. 둘레는 10여 리이다.

과녀성(寡女城): 현의 동쪽 8리 비슬산 기슭에 있다. 둘레는 6-7리이다. 속전에 삼국이 서로 다툰 때 한 과부가 의분을 일으켜 성을 쌓아 적병을 막았다고 한다.

【봉수(烽燧)】

소이산봉수(所伊山烽燧) 1고(庫): 현의 북쪽 6리에 있다. 남쪽으로 25리 창녕(昌寧) 합산(合山)봉수에 응하고, 북쪽으로 10리 성주 德山[여지승람에는 지금의 翔山이라고 함]에 응한다. 지금은 없어짐.

【학교】

향교: 현의 북쪽 2리에 있다. 임진년 전란 때 현감 이영도(李詠道)가 사당을 세웠으며, 신축년에 현감 허길(許佶)이 성묘(聖廟) 명륜당(明倫堂) 동서재(東西

15) 초록대단등의(草綠大緞燈衣): 초록색 비단으로 만든 등의.

齋)를 중수하였다.

도동서원(道東書院): 현의 서쪽 17리 오설리(烏舌里)에 있다.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을 제향하였다. 선조 때 도동이라 사액하였다. 숙종 정사년에 한강(寒岡) 정구(鄭逋)를 배향하였다. 갑술년에 진사 곽승화(郭承華), 낙천(洛川) 배신(裴紳), 예촌(禮村) 곽율(郭율)을 서원 옆 별사에 합향(合享)하고 참봉 원개(元槩)를 추가로 배향하였다.

예연서원(禮淵書院): 현의 동쪽 15리 말역촌(末亦村)에 있다. 증 이조판서 존재(存齋) 곽준(郭遵), 증 병조판서 망우당(忘憂堂) 곽재우(郭再祐)를 합향하였다. 숙종 정사년에 예연이라 사액하였다. 지금은 없다.

송담서원(松潭書院): 현의 서쪽 17리 오설리에 있다. 숙종 갑술년에 대암(大庵) 박성(朴惺)을 제향하였다. 지금은 없다.

이양서원(尼陽書院): 현의 서쪽 10리 슬례촌(率禮村)에 있다. 청백리 곽안방(郭安邦), 연일당(燕日堂) 곽지운(郭之雲)을 합향하였다. 지금은 없다.

【단묘(壇廟)】

묘우(廟宇): 없음.

사직단(社稷壇): 서부면에 있다.

성황단(城隍壇): 우만면에 있다.

여제단(厲祭壇): 현내면에 있다.

기우단(祈雨壇): 대건사 대니산 금굴 용연 네 곳에 있다.

포제단(酺祭壇): 현의 남쪽 들판 가운데에 있다.

【능묘(陵墓)】

능(陵): 없음.

문경공(文敬公) 김굉필(金宏弼) 무덤: 오설면에 있다.

충렬공(忠烈公) 곽준(郭遵) 무덤: 산전면에 있다.

충익공(忠翼公) 곽재우(郭再祐) 무덤: 구지산면에 있다.

대암(大庵) 박성(朴惺) 무덤: 오설면에 있다.

【불우(佛宇)】

대견사(大見寺): 비슬산(琵琶山) 남쪽 모퉁이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신라(新羅) 헌덕왕(憲德王)이 세운 절로 9층 석탑이 있다. 임진연간에 절이 무너졌는데 대들보 위에서 책 하나가 발견되었다. 그 책에, 산세가 대마도를 끌어당기고 있기에 절을 지어 그것을 눌렀다고 하였다. 김성일이 초유사가 되었을 때 그 책을 보았는데 그 후 책은 소실되었다.

금화사(金化寺): 현의 동쪽 5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다만 옛터가 있지만 어느 시대에 창건되었는지 알 수 없다. 주춧돌 섬돌 탑돌이 기교한데 버려져 있다. 뒤에 향교 서원 관사의 계단과 주춧돌이 모두 이 절터의 돌이라고 한다.

유가사(瑜伽寺): 비슬산의 지연 위 수백 보에 있다. 오랫동안 버려져 있다가 지연 위 6, 7리로 이견하였다.

소재사(消災寺): 비슬산에 있다. 돌구유[石槽]와 향로가 있다. 향로는 은가루로 무늬를 그린 것이다. 신라 헌덕왕의 왕비가 시주하여 만들었는데 은색 전서(篆書)의 획이 매우 교묘하였다. 임진란 후에 용연사 스님이 가져갔다가 본사에 돌려주었는데 지금은 소실되었다.

정수사(淨水寺): 보로동(甫老洞)에 있다. 한훤당이 거처한 곳이다.

도성암(道成庵): 비슬산 유가사 북쪽에 있다. 유명한 대사가 세웠다. 무너지자 다시 옛터에 중창하였다.

【궁실】

현도관(玄都觀): 객사(客舍), 지금 봉의관(鳳儀觀)으로 바꿈.

공해(公廨)

태고헌(太古軒)

정화당(貞和堂)

원호루(遠湖樓): 정유년에 새로 건립하였다.

향사당(鄉射堂)

현사(縣司)

장관청(將官廳)

군관청(軍官廳)

작청(作廳)

전부소(田賦所)

호적고(戶籍庫)

【누정】

양풍루(仰風樓): 객관(客館) 남쪽 기슭에 있다. 고려 때 감무(監務) 전평원(田平遠)이 창건하였다. 쌍매헌(雙梅軒) 이첨(李詹)이 기문을 지었다.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다.

사겸루(思謙樓): 객사(客舍) 동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영파정(映波亭): 현의 서쪽 5리 아래 큰 강가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대양정(戴陽亭): 솔례(率禮)의 안산(案山) 용두산(龍頭山) 안에 있었다. 한훤당(寒暄堂)이 세웠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창주정(滄洲亭): 현의 서쪽 18리에 있다. 경치가 매우 빼어났다. 예전에 절이 있었는데 부사 곽간(郭趕)이 절을 허물고서 창건하였다.

학부정(鶴阜亭): 현의 남쪽 18리에 있다. 좌찬성(左贊成) 이장곤(李長坤)이 세웠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대암정(臺巖亭): 현의 서남쪽 20리에 있다. 수십 길의 바위가 강변에 우뚝 서 있다. 좌찬성 이장곤이 세웠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관수정(觀水亭): 도동 1리에 있다. 사우당(四友堂) 김대진(金大振)이 세워 한강(寒岡) 정선생 · 여헌(旅軒) 장선생과 더불어 그 위에서 거닐었다. 그래서 관수로 명명하였다.

낙고정사(洛皐精舍): 사우당 김대진이 창립하고 한강 · 여헌 두 선생과 강마하고 거닐었다. 관수정과 30보 거리에 있다.

【도로】

서울: 서쪽으로 704리 떨어져 있다.

감영: 북쪽으로 60리 떨어져 있다.

통영: 남쪽으로 320리 떨어져 있다.

좌병영: 동쪽으로 340리 떨어져 있다.

우병영: 서쪽으로 190리 떨어져 있다.

수영: 동쪽으로 270리 떨어져 있다.

창녕: 남쪽으로 40리 떨어져 있다.

고령: 서쪽으로 40리 떨어져 있다.

성주: 북쪽으로 70리 떨어져 있다.

청도: 동쪽으로 70리 떨어져 있다.

【교량(橋梁, 다리)】

원교(院橋): 현의 앞에 있다. 옛 명칭은 수철교(水鐵橋)이다.

척진교(陟眞橋): 유가사 앞에 있다.

【도서(島嶼, 섬)】

없음.

【제언(堤堰)】

황제언(黃堤堰): 우만면(邬萬面)에 있다.

말지방언(末之防堰): 우만면에 있다.

신제언(新堤堰): 우만면에 있다.

사바언(沙背堰): 말역촌(末亦村)에 있다.

금사언(金寺堰): 마산면(馬山面)에 있다.

【장시(場市)】

읍내시(邑內市)

차천시(車川市)

【역원(驛院)】

쌍산역(雙山驛): 현의 북쪽 10리에 있다.

원(院): 없음.

【목장(牧場)】

없음.

【형승(形勝)】

제일강산(第一江山): 현의 서쪽 17리에 있다. 옛 성터가 있는데 어느 시대에 쌓았는지 알 수가 없다. 한훤당 김공이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과 더불어 왕래하고 유상(遊賞)하며 칭송하기를 ‘제일강산’이라 하였다. 그래서 후인들이 이것으로 명칭을 삼았다.

반송(盤松): 유가사 앞에 있다. 옆으로 뻗어 그늘이 드리워져 있고 그 둘레에는 수 두락(斗落)의 땅이 있다.

관수대(觀水臺): 동쪽으로 5리쯤 떨어져 있다. 한강 정구가 왕래·유상하며 명명하였다.

【고적(古蹟)】

포산(苞山): 신라(新羅) 때 관기(觀機)와 도성(道成)이란 두 스님이 포산(苞山)에 은거했는데 서로 10여 리쯤 떨어져 있었지만 자주 만났다. 도성이 관기를 부르고 싶으면 산속의 나무들이 모두 남쪽으로 구부러졌고 관기(觀機)가 도성(道成)을 부르고 싶으면 나무들이 모두 북쪽으로 누웠다. 후인들이 시로써 찬미하기를, “서로 찾아 달빛 밟으며 운천(雲泉)을 희롱하니/ 두 늙은이의 풍류 몇 백 년이나 되었던가. 골짜기에 가득 찬 안개와 노을 고목에 남아 있어/ 오르내리는 그림자 아직도 서로 맞이하는 듯하네.[相過踏月弄雲泉 二老風流幾百年 滿壑煙霞餘古木 低昂寒影尙如延]”라고 하였다.

봉산(鳳山): 관아의 주산이다. 속전에 나는 봉황의 형상이라 왼쪽에는 익산(翼山)이 있으니 봉황의 왼쪽 날개의 형상이고, 오른쪽에는 상산(翔山)이 있으니 봉황의 오른쪽 날개의 형상이라고 한다. 앞에는 화산(花山)이 있는데 알 모양과 같아 봉란(鳳卵)이라고 부르니 모두 봉황의 형상이라고 한다.

쌍계(雙溪): 현의 동쪽 5리에 있다. 선조 때 향인이 사당을 건립하고 한훤당 김선생을 제향하였다. 공이 평소 시냇가를 소요하였는데 시냇가에 나무를 보고서 “조한정(照寒亭)은 한여름에도 오히려 서늘하네”라고 하였다. 혹은 공이 명명한 것이

라고 하고, 혹은 원후[院侯, 府院君]가 공의 “외로운 마음 비추게 하네[照孤寒]”¹⁶⁾라는 구절을 취하여 명명한 것이라고 한다.

풍영대(風詠臺): 바위를 깎아 단을 만들었다. 수석이 빼어나다. 동명(東溟) 김세렴(金世濂)이 바위 위에 풍영대 세 글자를 새기고 이름을 기록하였다.

금계돈(金溪墩): 장지(長池) 가에 있다. 좌찬성 이장곤이 쌓았는데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연택(蓮澤): 현의 서쪽 오설리에 있다. 연꽃이 활짝 피어 있다. 한강 정구·송암 김면·동강 김우옹·존재 곽준·대암 박성이 유상(遊賞)하며 강도(講道)하였다.

영남루(嶺南樓): 익산 아래 넓은 들판에 있었다. 앞에는 장천이 있다. 속전에 포산이 밀양에 소속되어 있을 때 영남루를 세웠다가 분설된 이후에 포산에서 철거하여 밀양에 영남루를 세웠다고 한다. 지금 포산에 옛터만 남아 있다.

여기(女妓) 동산(東山): 현의 남쪽 수백 보에 있다. 속전에 밀양부 때 관기가 동산에서 놀았기 때문에 ‘여기(女妓) 동산(東山)’으로 이름 지었다고 한다.

공수택(公須澤): 현의 남쪽 수백 보에 있다. 속전에 관아에 못을 팠는데 오래 되자 못이 허물어졌다. 계유년에 다시 못을 파고 보수하였다.

영귀암(詠歸巖): 조한정 아래 쌍계에 있는 반석이다.

금수암(金水巖): 비슬산 조화봉(照華峰) 남쪽에 있다. 높이가 수십 길이다. 그 위에 돌우물이 있으니 수 곡(斛)의 용량이다. 금색이 항상 떠 있는데 그릇에 담으면 곧바로 넘친다. 큰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

【토산】

오매[烏梅, 지금은 없음], 대나무, 석류, 천문동(天門冬).

【진공(進貢)】

건지황[乾地黃, 지금은 없음]

천문동[天門冬, 지금은 없음]

16) 김굉필, <書懷>, “處獨居閑絕往還 只呼明月照孤寒 煩君莫問生涯事 數頃煙波數疊山”

적복령[赤茯苓, 지금은 없음]
 백작약[白芍藥, 지금은 없음]
 자초용[紫草茸, 지치썩, 지금은 없음]
 자라 등껍질
 호본[蒿本, 지금은 없음]
 적작약[赤芍藥, 지금은 없음]
 금은화[金銀花, 지금은 없음]
 오매[烏梅, 지금은 없음]
 청대죽[靑大竹, 지금은 없음]
 석류
 인삼[지금은 없음]

【봉름(俸廩)】

쌀 17섬 9말: 아록위(衙祿位) 소출(所出)

쌀 295섬: 민결(民結) 소출

병신년에 복읍된 후 군수 연봉 4500냥

【환적(宦蹟)】

전평원(田平遠): 본조 인물. 고려 말에 감무(監務)가 되었다.

유덕수(柳德粹): 거사비(去思碑)가 있다.

채석견(蔡石堅): 자손들이 이곳에 거주하게 되었다.

신초(辛礎): 계사년에 도입하여 무술년에 임기 만료로 교체되었다. 왜적이 득실
 거리고 관사가 불타자 답곡면(畓谷面)으로 거처를 옮겼다.

허응길(許應吉): 무술년에 도입하여 같은 해에 교체되었다. 모로촌(毛老村)에 거
 처를 옮겼다가 왜적이 철수한 후에 다시 들어왔다.

허정립(許挺立): 기해년에 도입하여 같은 해 상을 당해 교체되었다.

하종해(河宗海): 경자년에 도입하여 같은 해에 재해(災害)로 인하여 파직되었다.

이영도(李詠道): 경자년에 도입하여 계묘년에 전임하였다. 난중에 관인(官印)이

분실되자 위에 보고하고 다시 만들었다.

김응성(金應成): 계묘년에 도임하여 을사년에 상을 당해 교체되었다.

김돈(金墩): 을사년에 도임하여 정미년에 성주의 옥사(獄事)로 인하여 교체되었다.

남렴(南濂): 정미년에 도임하여 무신년에 재해(災害)로 인하여 파직되었다.

유영하(柳永河): 무신년에 도임하여 같은 해에 역옥(逆獄)에 연좌되어 교체되었다.

권양(權養): 무신년에 도임하여 경술년에 재해(災害)로 인하여 파직되었다.

허길(許估): 경술년에 도임하여 을묘년에 임기 만료로 교체되었다.

기정헌(奇廷獻): 병진년에 도임하여 같은 해 상을 당해 교체되었다.

이정(李禎): 병진년에 도임하여 같은 해에 역옥(逆獄)에 연좌되어 교체되었다.

박신(朴信): 병진년에 도임하여 무오년에 대간(臺諫)의 탄핵으로 파직되었다.

한경생(韓慶生): 기미년에 도임하여 계해년 반정[인조반정]으로 교체되었다.

홍립(洪瑩): 계해년에 도임하여 을축년에 교체되었다.

이확(李穫): 을축년에 도임하여 경오년에 교체되었다.

이필성(李必成): 경오년에 도임하여 신미년에 그만두고 돌아갔다.

김세렴(金世濂): 임신년에 도임하여 치적의 효과가 잘 드러났고, 유학의 교화가 크게 일어났다. 을해년에 병으로 교체되었다. 거사비가 있다.

유여해(兪汝諧): 을유년에 도임하여 경진년에 교체되었다.

이기현(李耆賢): 신사년에 도임하여 갑신년에 작고하였다.

김옥(金鉦): 갑신년에 도임하여 을유년에 병으로 교체되었다.

박정(朴淳): 을유년에 도임하여 정해년에 병으로 교체되었다.

이정원(李精元): 정해년에 도임하여 무자년에 파직되었다.

황석구(黃碩壽): 무자년에 도임하여 임진년에 장계에 의해 파직되었다.

김향(金嚮): 임진년에 도임하여 병신년에 파직되었다.

이광진(李光鎭): 병신년에 도임하여 정유년에 교체되었다. 거사비가 있다.

남천한(南天漢): 정유년에 도임하여 기해년에 좌천되었다.

유인수(柳仁壽): 경자년에 도임하여 신축년에 대간의 탄핵으로 파직되었다.

정원징(鄭元徵): 신축년에 도임하여 을사년에 임기 만료로 교체되었다.

권시경(權是經): 병오년에 도임하여 신해년에 임기 만료로 교체되었다.

유천지(柳千之): 신해년에 도임하여 을묘년에 지평으로 부름을 받았다.

정재대(鄭載大): 을묘년에 도임하여 무오년에 좌천되었다.

최주(崔宙): 무오년에 도임하여 기묘년에 작고하였다.

이세갑(李世甲): 경신년에 도임하여 신유년에 관아 향교 서원 향청(鄉廳)을 보수하였다. 이후에 채굉(蔡宏)의 정문(旌門)을 창건하였으며, 곽결(郭潔) 사형제의 정문을 보수하였다. 임술년에 용담(龍潭)으로 전임되었다. 거사비가 있다.

어진척(魚震陟): 임술년에 도임하여 정묘년에 살인 사건의 잘못된 검시(檢屍)로 체포 파직되었다.

유명흥(俞命興): 정묘년에 도임하여 신미년에 대간의 탄핵으로 파직되었다.

이상은(李相殷): 신미년에 도임하여 같은 해에 상을 당해 교체되었다.

구문유(具文游): 임신년에 도임하여 정축년에 임기 만료로 교체되었다. 거사비가 있다.

남석명(南錫明): 정축년에 도임하여 신사년에 임기 만료로 교체되었다.

박상순(朴相淳): 임오년에 도임하여 을유년에 사직하였다.

김해(金澥): 을유년에 도임하여 병술년에 어사의 장계(狀啓)로 파직되었다.

조도보(趙道輔): 병술년에 도임하여 무자년에 좌천되었다.

홍우한(洪禹翰): 무자년에 도임하여 계사년에 임기 만료로 교체되었다.

홍우이(洪禹爾): 계사년에 도임하여 병신년에 병으로 교체되었다. 거사비가 있다.

정도현(鄭道顯): 병신년에 도임하여 기해년에 대간의 탄핵으로 파직되었다.

오위주(吳緯周): 경자년에 도임하여 신축년에 어사의 장계(狀啓)로 파직되었다.

이정(李淨): 신축년에 도임하여 계묘년에 대간의 탄핵으로 파직되었다. 거사비가 있다.

이성언(李聖彦): 계묘년에 도임하여 갑진년에 좌천되었다.

홍치후(洪致厚): 을사년에 도임하여 정미년에 고령(高靈)의 살인사건으로 파직되었다.

이우인(李友仁): 무신년에 도임하여 임자년에 임기 만료로 교체되었다.

조상태(趙尙泰): 임자년에 도임하여 계축년에 작고하였다.

유우기(兪宇基): 계축년에 도입하여 을묘년에 좌천되었다.

조진태(趙鎭泰): 을묘년에 도입하여 경신년에 임기 만료로 교체되었다.

어유관(魚有寬): 경신년에 도입하여 신유년에 좌천되었다.

박치문(朴致文): 신유년에 도입하여 을축년에 장령(掌令)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수(李綬): 을축년에 도입하여 정묘년에 좌천되었다.

홍응린(洪應麟): 정묘년에 도입하여 신미년에 임기 만료로 교체되었다.

김장(金蔣): 신미년에 도입하여 을해년에 어사의 장계(狀啓)로 파직되었다.

김광태(金光泰): 을해년에 도입하여 경진년에 작고하였다. 기와와 목재를 모아 객사 외창(外倉) 향교 성묘(聖廟) 재실 일체를 중수하였으며, 석빙고(石氷庫)와 수철교(水鐵橋)를 세웠다. 읍민들이 지금까지 그 덕을 칭송하고 있다.

신건(申日+建): 경진년에 도입하여 이전의 직무와 관련된 일로 파직되었다.

이경천(李敬天): 임오년에 도입하여 계미년에 좌천되었다.

조장진(趙長鎭): 계미년에 도입하여 정해년에 상을 당해 교체되었다.

홍일원(洪一源): 정해년에 도입하여 무자년에 어사의 장계(狀啓)로 파직되었다.

박동최(朴東叅): 무자년에 도입하여 경인년에 상을 당해 교체되었다.

송환오(宋煥五): 경인년 여름에 도입하여 같은 해 가을에 작고하였다.

김사혼(金思渾): 경인년 겨울에 도입하여 갑오년 여름에 진위(振威)로 전임되었다.

이현발(李顯發): 갑오년 가을에 도입하여 병신년 여름에 좌천되었다.

김재균(金載筠): 병신년 가을에 도입하여 기해년 여름에 어사의 장계(狀啓)로 파직되었다.

조운필(曹允弼): 기해년 여름에 도입하여 경자년 여름에 작고하였다.

이동적(李東迪): 경자년 여름에 도입하여 임인년 겨울에 김산(金山)으로 전임되었다.

유한성(柳煥星): 계묘년에 도입하여 정미년에 임기 만료로 교체되었다.

조정헌(趙廷獻): 정미년에 도입하여 무신년에 좌천되었다.

홍대묵(洪大默): 무신년에 도입하여 계축년에 임기 만료로 교체되었다.

장석주(張錫周): 계축년에 도입하여 갑인년에 작고하였다.

현중조(玄重祚): 갑인년에 도입하여 을묘년에 어사의 장계(狀啓)로 파직되었다.

이수함(李壽咸): 을묘년에 도임하여 병진년에 좌천되었다.
 장석윤(張錫胤): 정사년에 도임하여 기미년에 성주로 전임되었다.
 최희연(崔禧延): 기미년에 도임하여 경신년에 좌천되었다.
 이정병(李鼎秉): 신유년에 도임하여 갑자년에 지평(持平)으로 부름을 받았다.
 최지성(崔之聖): 갑자년에 도임하여 을축년에 작고하였다.
 강준흠(姜浚欽): 을축년에 도임하여 병인년에 교리(校理)로 부름을 받았다.
 이지연(李志淵): 정묘년에 도임하여 무진년에 상을 당해 교체되었다.
 김용묵(金用默): 무진년에 도임하여 경오년에 사직하였다.
 유성의(柳聖儀): 경오년에 도임하여 신미년에 작고하였다.
 이연순(李彦淳): 신미년에 도임하여 갑술년에 헌납(獻納)으로 부름을 받았다.
 유이좌(柳台佐): 갑술년에 도임하여 같은 해에 상을 당해 교체되었다.
 이경희(李景熙): 갑술년에 도임하여 병자년에 별세하였다.
 이택원(李鐸遠): 병자년에 도임하여 경진년에 지평(持平)으로 부름을 받았다.
 정신(鄭璽): 경진년에 도임하여 신사년에 좌천되었다.
 이광재(李光載): 신사년에 도임하여 계미년에 지평(持平)으로 부름을 받았다.
 송일덕(宋一德): 계미년에 도임하여 무자년에 별세하였다.
 이원익(李遠翊): 무자년에 도임하여 기축년에 좌천되었다.
 조만협(趙萬協): 경인년에 도임하여 신묘년에 사직하였다.
 김주묵(金周默): 신묘년에 도임하여 계사년에 교체되었다.
 정환의(鄭煥義): 계사년에 도임하여 갑오년에 부모상으로 교체되었다.
 박재호(朴在皐): 갑오년에 도임하여 을미년에 좌천되었다.
 조완식(趙完植): 병신년에 도임하여 정유년에 좌천되었다.
 남상교(南尙敎): 정유년에 도임하여 경자년에 좌천되었다.
 김수종(金秀鍾): 경자년에 도임하여 임인년에 교체되었다.
 한치용(韓致容): 임인년에 도임하여 계묘년에 정언(正言)으로 부름을 받았다.
 김진우(金鎭右): 계묘년에 도임하여 을사년에 지평(持平)으로 부름을 받았다.
 김건수(金建銖): 병오년에 도임하여 정미년에 지평(持平)으로 부름을 받았다.
 윤치현(尹致賢): 정미년에 도임하여 기유년에 부모상으로 교체되었다.
 심교진(沈敎鎭): 기유년에 도임하여 임자년에 좌천되었다.

유의정(柳宜貞): 계축년에 도임하여 갑인년에 지평(持平)으로 부름을 받았다.

정환익(鄭煥翼): 갑인년에 도임하여 병진년에 교체되었다.

김두흠(金斗欽): 병진년에 도임하여 정사년에 정언(正言)으로 부름을 받았다.

장인원(張仁遠): 정사년에 도임하여 무오년에 우부승지(右副承旨)로 부름을 받았다.

장용규(張龍逵): 무오년에 도임하여 경신년에 집의(執義)로 부름을 받았다.

이규영(李圭永): 경신년 5월에 도임하여 신유년 10월에 말미를 받아 서울에 갔는데 지평(持平)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휘승(李彙承): 신유년 12월에 도임하여 계해년에 좌부승지(左副承旨)로 부름을 받았다.

이명로(李明老): 계해년에 도임하여 갑자년에 좌천되었다.

이정두(李廷斗): 갑자년에 도임하여 을축년에 대간(大諫)으로 부름을 받았다.

장응표(張膺杓): 을축년에 도임하여 병인년에 장계(狀啓)로 파직되었다.

이계로(李啓魯): 병인년에 도임하여 정묘년에 부모의 병환으로 교체되었다.

김관수(金觀秀): 무진년에 도임하여 임신년에 평창(平昌)으로 전임되었다.

윤선좌(尹善佐): 임신년에 도임하여 계유년에 교체되었다.

정기태(鄭基泰): 계유년에 도임하여 병자년에 좌천되었다.

이준영(李俊永): 병자년에 도임하여 경진년에 운산(雲山)으로 전임되었다.

민종렬(閔種烈): 경진년에 도임하여 임오년에 양산(梁山)으로 전임되었다.

조종운(趙鍾雲): 임오년에 도임하여 갑신년에 임기 만료로 교체되었다.

어병선(魚秉璿): 갑신년에 도임하여 을유년에 한산(韓山)으로 전임되었다.

이은식(李恩植): 을유년에 도임하여 같은 해에 어사의 장계(狀啓)로 파직되었다.

우성규(禹成圭): 을유년에 도임하여 병술년에 영덕(盈德)으로 전임되었다.

손진구(孫振九): 병술년에 도임하여 무자년에 좌천되었다.

이보인(李輔仁): 기축년에 도임하여 같은 해에 통천(通川)으로 전임되었다.

윤병(尹秉): 기축년에 도임하여 임진년에 과천(果川)으로 전임되었다.

김화식(金華植): 임진년 겨울에 도임하여 갑오년 겨울에 선유사(宣諭使)의 장계(狀啓)로 파직되었다.

신재억(申在億): 을미년 10월에 창녕(昌寧)과 합쳐졌을 때 창녕군수를 겸하였

다. 병신년 6월에 복읍되었다.

홍필주(洪弼周): 병신년 8월에 도임하였다.

【과거(科擧)】

곽진원(郭元振): 고려 때 등과하여 벼슬이 진현관(進賢館) 제학(提學)에 이르렀다.

곽충관(郭忠貫): 고려 때 등과하여 벼슬이 상서좌승(尙書左丞)에 이르렀다.

김중곤(金中坤): 본조 인물. 세종 때 등과하여 벼슬이 참의(參議)에 이르렀다.

곽중(郭棕): 고려 때 이정간(李貞幹)과 함께 등과하여 본조 때 벼슬이 상원군수(祥原郡守)에 이르렀다.

곽지운(郭之雲): 중종 때 등과하였다. 호는 연일당(燕日堂)이다. 벼슬이 이조좌랑에 이르렀다.

곽지번(郭之藩): 중종 경진년에 등과하여 벼슬이 사성(司成)에 이르렀다. 승지에 추증되었다.

곽월(郭越): 명종 병진년에 등과하여 벼슬이 관찰사에 이르렀다. 판서에 추증되었다.

곽두(郭耆): 명종 을묘년에 등과하여 벼슬이 참의에 이르렀다.

곽황(郭邁): 명종 병진년에 등과하여 벼슬이 군수에 이르렀다.

곽익(郭익): 명종 때 등과하여 벼슬이 부사(府使)에 이르렀다.

곽간(郭趕): 명종 병오년에 등과하여 벼슬이 부사에 이르렀다.

곽응기(郭應機): 선조 임신년에 등과하여 벼슬이 검교(檢校)에 이르렀다.

곽영희(郭永禧): 선조 병오년에 등과하여 벼슬이 현감에 이르렀다.

김치신(金致信): 인조 임신년에 등과하여 벼슬이 전적(典籍)에 이르렀다.

곽엄(郭崦): 인조 계해년에 등과하여 벼슬이 박사에 이르렀다.

김선영(金善英): 인조 병자년에 등과하여 벼슬이 부사에 이르렀다.

곽융(郭融): 인조 정묘년에 등과하여 벼슬이 교수에 이르렀다.

곽홍지(郭弘址): 인조 을해년에 등과하여 벼슬이 부사에 이르렀다.

곽연(郭研): 인조 정묘년에 등과하여 벼슬이 전적에 이르렀다.

곽세익(郭世翼): 효종 갑오년에 등과하여 벼슬이 사성에 이르렀다.

곽후창(郭後昌): 효종 정유년에 등과하여 벼슬이 현감에 이르렀다.

나이준(羅以俊): 현종 때 등과하여 벼슬이 수찬에 이르렀다.

곽수귀(郭壽龜): 숙종 신미년에 등과하여 벼슬이 좌랑에 이르렀다.

김희국(金熙國): 철종 무오년에 등과하여 벼슬이 교리에 이르렀다.

김기운(金麒運): 고종 경오년에 등과하여 벼슬이 정언에 이르렀다.

빅호원(朴鎬源): 현종 때 등과하여 벼슬이 찰방에 이르렀다.

홍수민(洪秀旻): 고종 임오년에 등과하여 벼슬이 정언에 이르렀다.

이승곤(李升坤): 등과하여 벼슬이 도사에 이르렀다.

【인물】

곽부(郭郚): 고려인. 충관(忠貫)의 아들이다. 추충익대공신(推忠翊戴功臣)으로 벼슬이 삼중대광(三重大匡)에 이르렀고, 포산군(苞山君)에 봉해졌다.

곽거인(郭居仁): 부(郚)의 아들이다. 벼슬이 공조전서(工曹典書)에 이르렀다.

곽종(郭宗): 거인(居仁)의 아들이다. 등과하여 벼슬이 지상원군사(知祥原郡事)에 이르렀다.

곽자의(郭子儀): 벼슬이 금오위 교위(金吾衛校尉)에 이르렀다.

곽혁손(郭赫孫): 자의(子儀)의 아들이다. 벼슬이 검교 대장군에 이르렀다.

곽경(郭罔): 혁손의 아들이다. 승동정으로 왕씨의 부마가 되었다.

곽연옥(郭璉玉): 경의 아들이다. 벼슬이 유비창승(有備倉丞)에 이르렀다.

곽윤명(郭允明): 연옥의 아들이다. 벼슬이 개성윤에 이르렀다.

곽윤현(郭允賢): 윤명의 아우이다. 벼슬이 공조전서에 이르렀다.

조반(趙胖): 정승으로 옥도(玉島)에 유배되었다. 그리하여 논공(論工)에 거주하게 되었다.

곽의(郭儀): 벼슬이 판전객서(判典客署)에 이르고 효행으로 정문이 세워졌다.

본조

곽정부(郭廷府): 윤명(允明)의 아들이다. 군수를 지냈다.

곽호(郭瑚) · 곽연(郭珣) · 곽주(郭珠): 윤현(允賢)의 아들로 모두 벼슬이 전서(典書)에 이르렀다. 곽주는 한훤당 김선생의 외고조이다.

곽경(郭瓊): 윤현(允賢)의 아들로 모두 벼슬이 영천사(永川事)에 이르렀다.

채평(蔡宏): 본관은 평강(平康)이다. 감무(監務)를 지냈다. 부친상에 시묘하였다. 정려가 세워졌다.

김중곤(金中坤): 본관은 서흥이다. 벼슬이 예조참의에 이르렀다. 경현록에 보인다.

곽득중(郭得宗): 경(瓊)의 아들이다. 벼슬이 의영고사(義盈庫使)에 이르렀다.

김소형(金小亨): 중곤의 아들이다. 벼슬이 의영고사에 이르렀다.

채석견(蔡石堅): 본관은 평강이다. 본읍의 현감을 지내고 여기에 거주하게 되었다.

곽안방(郭安邦): 득중의 아들이다. 등과하여 세조 때 벼슬하였다. 원종공신(原從功臣)이 되었는데 그 사적이 역사서에 실려 있다. 청백리에 선발되었으며, 이양서원에 제향되었다.

김유(金紐): 소형의 아들이다. 벼슬이 의영고사(義盈庫使)에 이르렀다.

박윤강(朴允康): 본관은 순천이다. 벼슬이 현감에 이르렀다.

김굉필(金宏弼): 유(紐)의 아들이고, 자는 대유(大猷), 호는 한훤당(寒暄堂)이다. 중종 때 우의정에 추증되었다. 선조 때 시호와 ‘도동서원(道東書院)’이라는 편액이 내려졌다. 광해군 초기에 문묘에 제향되었다.

곽항(郭恒): 소릉군(昭陵君)에 봉해졌다.

엄계(嚴誠): 본관은 영월이다. 벼슬이 공조참의에 이르렀다.

곽승양(郭承陽): 안방(安邦)의 아들이다. 벼슬이 부사성(副司成)에 이르렀다.

원개(元槩): 본관은 원주이다. 한훤당과 더불어 점필재의 문하에서 유학하였다. 추천으로 참봉에 임명되었다. 도동서원 별사에 제향되었다.

곽승화(郭承華): 안방(安邦)의 아들이다. 정유년에 진사가 되었다. 한훤당과 더불어 점필재의 문하에서 유학하였다. 도동서원 별사에 제향되었다.

이장곤(李長坤): 자는 희강(希剛)이다. 창녕에 우거하였다. 호는 금헌(琴軒)이다. 벼슬이 좌찬성에 이르렀다. 기묘명현이다. 창녕 사람들이 사당을 세웠다.

박희(朴禧): 본관은 밀양이고, 밀직군(密直君) 중미(中美)의 아들이다. 벼슬이 화령부 소윤(和寧府小尹)에 이르렀다.

곽순(郭珣): 호는 경재(警齋)이다. 소학으로 자신을 다스렸다. 무자년에 등과하였으며, 벼슬이 사간(司諫)에 이르렀다. 윤원형(尹元衡)이 한글 밀지를 가지고 대간

(臺諫)을 겁박하여 정적들을 일망타진할 계책으로 삼으려 하지 공은 분연히 일어나 불가함을 아뢰었다. 이에 정희등(鄭希登) 박광우(朴光佑) 등과 함께 가혹한 화를 입게 되었다.

김언숙(金彦塾): 한훤당의 아들이다. 63세에 모친상을 당하자 3년 동안 시묘하였는데 한결같이 예법을 따랐다. 벼슬이 주부(主簿)에 이르렀다.

김언상(金彦庠): 한훤당의 아들이다. 모친상에 지나치게 애통해하다가 장례일에 별세하였다. 벼슬이 현감에 이르렀다.

곽거(郭据): 승양(承陽)의 아들이다. 벼슬이 별제(別提)에 이르렀다.

곽당(郭塘): 승양의 아들이다. 벼슬이 참봉에 이르렀다.

곽평(郭坪): 승양의 아들이다. 벼슬이 참봉에 이르렀다.

박세균(朴世均): 벼슬이 군수에 이르렀다.

곽위(郭瑋): 승양의 아들이다. 생원시와 진사시에 모두 합격하였다. 벼슬이 현감에 이르렀다. 시문·서·화의 삼절로 칭송되었다.

곽미(郭玉+美): 위(瑋)의 아우이다. 기묘 제현의 문하에 유학하다가 화가 미치자 문을 닫고 밖을 나가지 않았다.

곽지번(郭之蕃): 위(瑋)의 아들이다. 두터운 명망이 있었다. 등과하여 벼슬이 시성에 이르렀으며,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곽지운(郭之雲): 안방(安邦)의 증손자이다. 자는 여우(汝雨), 호는 연일당(燕日堂)이다. 마음과 얼굴과 문장이 옥과 같아 사람들이 ‘삼옥(三玉)’이라고 불렀다. 일찍 등과하여 한림에 천거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학행과 문장으로 벼슬이 이조좌랑에 이르렀으며, 이양서원에 제향되었다.

곽지림(郭之霖): 지운(之雲)의 아우이다. 참봉을 지냈다.

박등(朴箆): 희(嘻)의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병사(兵使)를 지냈다.

곽신종(郭順宗): 정부(政府)의 아우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목사를 지냈다.

박유인(朴惟仁): 등(箆)의 아들이다. 현감을 지냈다.

박장손(朴長孫): 유인(惟仁)의 아들이다. 주부를 지냈다.

김인수(金仁壽): 본관은 청도이다. 벼슬의 품계는 3품을 지냈다.

박신열(朴臣悅): 생원을 지냈다.

곽지원(郭之元): 거(据)의 아들이다. 생원을 지냈다.

김득경(金得敬): 인수(仁壽)의 아들이다. 벼슬이 현감에 이르렀다.

김득공(金得恭): 현감을 지냈다.

배사종(裴嗣宗): 본관은 성주이다. 참봉을 지냈다.

김대(金垓): 언숙(彦塾)의 아들이다. 연이어 부모상을 당하자 죽을 먹으며 시묘함에 예를 극진히 하였다. 사람들이 세효(世孝)라고 하였다. 벼슬이 정랑(正郎)에 이르렀다.

박순(朴純): 장손(長孫)의 손자이다. 벼슬이 감찰에 이르렀다.

김위(金瑋): 득공(得恭)의 아들이다. 벼슬이 감찰에 이르렀다.

김몽식(金夢軾): 참봉을 지냈다.

김립(金立): 언상(彦庠)의 아들이다. 벼슬이 군수에 이르렀다.

박시거(朴時舉): 진사를 지냈다.

곽월(郭越): 자는 시정(時靜), 지번(之蕃)의 아들이고, 호는 정암(靜庵)이다. 문장과 기절(氣節)이 있었다. 등과하여 벼슬이 승지에 이르렀으며, 예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문집이 전하고 있다.

곽두(郭斗): 월(越)의 아우이고, 자(字)는 극정(克靜)이다. 등과하여 삼사(三司)를 두루 역임하고 승지에 이르렀다.

김척(金擲): 기묘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배신(裴紳): 사종(嗣宗)의 아들로 자는 경여(景餘), 호는 낙천(洛川)이다. 학행과 문장으로 천거되어 교관(敎官)에 임명되었다. 도동서원 별사에 제향되었다.

곽익(郭翼): 자(字)는 군정(君靜)이고, 안방(安邦)의 4세손이다. 임자년에 등과하여 벼슬이 부사(府使)에 이르렀다.

곽황(郭遯): 자(字)는 경정(景靜)이고, 안방(安邦)의 4세손이다. 일찍 등과하여 벼슬이 군수에 이르렀다. 뛰어난 재주와 남다른 행실로 퇴계선생에게 인정을 받았다.

곽준(郭遵): 안방의 4세손으로 자는 양정(養靜), 호는 존재(存齋)이다. 학행으로 천거되어 안음현감(安陰縣監)에 임명되었다. 임진왜란 때 황석성(黃石城)을 지키다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두 아들과 딸과 며느리도 뒤따라 모두 목숨을 바쳤다. 이 일로 정려가 세워졌으며, 삼강행실록에 수록되었다. 숙종 때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충렬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으며, 예원서원에 제향되고 편액이 하사되었

다.

박사눌(朴思訥): 순(純)의 아들이다. 기유년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모친상에 지나치게 애통해하다가 장례일에 별세하였다.

도경운(都慶雲): 을사년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문장으로 당대에 이름을 떨쳤다.

박형달(朴亨達): 인의(引儀)를 지냈다.

곽간(郭趕): 위(瑋)의 손자이고, 자는 원정(元靜)이다. 18세에 등과하여 대동찰방(大同察訪) 겸 수은어사(搜銀御史)가 되었을 때 부경사(赴京使) 심통원(沈通源)의 집을 불살라버렸다. 명성이 일찍부터 드러났으며, 벼슬이 목사에 이르렀다.

김세정(金世鼎): 위(瑋)의 손자이다. 교수(教授)를 지냈다.

곽울(郭崱): 익(趯)의 아우로 자는 태정(泰靜), 호는 예곡(禮谷)이다. 학행으로 천거되어 벼슬이 군수에 이르렀다. 도동서원 별사에 제향되었다.

박성(朴惺): 사눌(思訥)의 아들로 자는 덕응(德凝), 호는 대암(大庵)이다. 학행으로 천거되어 통례원(通禮院) 상례(相禮)에 임명되었다. 송담서원에 제향되었으며, 문집이 간행되었다.

김수침(金壽忱): 한훤당의 증손자이다. 참봉을 지냈다.

김세진(金世珍): 본관은 선산이다. 진사를 지냈다.

김세보(金世寶): 세진(世珍)의 아우이다. 진사를 지냈다.

성안의(成安義): 본관은 창녕이다. 우거(寓居)하였다. 등과하여 벼슬이 승지에 이르렀으며,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호는 부용당(芙蓉堂)이다. 창녕사람들이 사당을 세웠다.

김수개(金壽愷): 입(立)의 아들이다. 신유년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김중(金濬): 세정(世鼎)의 아들이다. 참봉을 지냈다.

곽여(郭走+興): 주(赅)의 아우이다. 생원을 지냈다.

곽주(郭赅): 지운(之雲)의 아들이다. 생원을 지냈다.

곽겸(郭趯): 지림(之霖)의 아들이다. 정랑(正郎)을 지냈다.

곽길(郭赅): 진사를 지냈다.

김수희(金壽恢): 수개(壽愷)의 아우이다. 찰방을 지냈다.

김진남(金震男): 준(濬)의 아들이다. 참봉을 지냈다.

박숙근(朴叔根): 무과에 급제하여 현감을 지냈다.

곽근(郭赧): 준(趙)의 아우이고, 호는 성재(省齋)이다. 행의(行誼)로 천거되어 참봉에 임명되었다.

곽재우(郭再祐): 월(越)의 아들로 자는 계수(季綏), 호는 망우당(忘憂堂)이다. 임진왜란 때 앞장서 의병을 일으켰다. 이름이 중국과 일본에까지 알려졌다. 벼슬이 좌윤에 이르렀다. 숙종 때 병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존재(存齋)선생과 더불어 예연서원에 제향되었다. 문집이 간행되었다.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나세겸(羅世謙): 생원을 지냈다.

김밀(金密): 언숙(彦塾)의 서자(庶子)이다. 6세에 부친상을 만나자 상기(喪期)가 끝날 때까지 나물밥만 먹었다. 모친이 4년 동안 병환을 앓자 약을 구함에 정성을 다하였다. 모친이 병환 중에 꿩고기를 드시고 싶어 하자 빈손으로 산에 올라갔는데 꿩이 칙녕쿨에 걸려 있어 가지고 와 모친께 올렸다. 사람들은 그의 효성에 감동하여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였다.

김응시(金應時): 세진(世珍)의 아들이다. 찰방을 지냈다.

곽종경(郭宗慶): 황(趙)의 아들이다. 기국(器局)과 문장과 필법으로 이름을 떨쳤다.

곽종의(郭宗儀): 황(趙)의 아들이다. 참봉을 지냈다.

김응몽(金應夢): 수침(壽枕)의 아들이다. 봉사(奉事)를 지냈다.

엄유신(嚴有愼): 참의(參議) 계(誠)의 증손자이다. 벼슬이 직장(直長)에 이르렀다.

김응길(金應吉): 응몽(應夢)의 아우이다. 판사(判事)를 지냈다.

김응성(金應成): 한훤당의 4대손이다. 고을의 천거로 벼슬이 부사(府使)에 이르렀다.

박문성(朴文星): 현감을 지냈다.

박두성(朴斗星): 현감을 지냈다.

박즙(朴澂): 인의(引儀)를 지냈다.

박침(朴琛): 주부(主簿)를 지냈다.

곽영희(郭永禧): 율[走+日]의 아들이다. 등과하여 벼슬이 현감에 이르렀다.

공응(孔膺): 본관은 창원(昌原)이다. 참봉을 지냈다.

곽응기(郭應機): 순종(順宗)의 손자이다. 정시(廷試)에 급제하여 벼슬이 현감에 이르렀다.

박용(朴容): 본관은 순천(順天)이고, 난(鸞)의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현감을 지냈으며, 참의에 추증되었다.

곽이상(郭履常)·곽이후(郭履厚): 준(趯)의 아들이다. 황석성(黃石城)이 함락되자 모두 부친을 따라 죽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가 내렸다. 정려는 솔례(率禮)에 있다. 호조·공조좌랑에 추증되었다.

박민수(朴敏修): 대암(大庵) 성(惺)의 아들이다.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다. 옥찬(玉纂) 9권을 지었는데 세상에 간행되었다. 호는 매산(梅山)이다.

곽결(郭潔)·곽호(郭浩)·곽청(郭淸)·곽형(郭涇): 선비 재훈(再勳)의 아들이다. 임진왜란 때 왜적이 아버지를 칼로 해치려고 하자, 네 형제가 부친을 감싸 안으며 앞 다 뛰 죽으려고 했다. 왜적들도 감동하여 그 부친을 풀어주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가 내렸으며, 그 사적이 삼강행실록에 수록되었다.

곽재기(郭再祺): 재우(再祐)의 아우이다. 참봉으로 무과에 급제하였다.

엄홍(嚴泓): 임진왜란 때 학봉(鶴峯) 김선생 의병군의 좌별장관(左別將官)이었다. 벼슬이 문천군수(文川郡守)에 이르렀다.

곽경흥(郭慶興): 경술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곽주(郭澍): 두(趙)의 손자이다. 일찍 한강 정선생의 문하에 유학하였다. 효행으로 칭송되었다.

곽이신(郭履信): 생원을 지냈다.

곽용(郭涌): 계축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백란(白鸞): 진사를 지냈다.

곽유도(郭有道): 검(趯)의 아들이다. 계축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박유(朴瑜): 경오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곽린(郭隣): 간(趕)의 손자이다. 무술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김대진(金大振): 한훤당의 5세손이다. 일찍 여헌(旅軒) 장선생의 문하에 유학하였다. 벼슬이 참방·생원에 이르렀다.

곽위국(郭衛國): 황(趟)의 손자이다. 한강 정선생의 문하에 유학하였다. 행의(行誼)로 천거되어 교관에 임명되었다. 병자호란에 창의하여 왕을 보필하였다. 벼슬이

현감에 이르렀다.

김담(金潭): 준(濬)의 아우이다. 참봉을 지냈다.

김치신(金致信): 본관은 경주이다. 국구(國舅) 천상(天瑞)의 봉사손(奉祀孫)이다. 등과하여 벼슬이 전적(典籍)에 이르렀다. 호는 죽촌(竹村)이다.

성이성(成以性): 안의(安義)의 아들이다. 우거하였다. 등과하여 삼사(三司)를 두루 역임하고 벼슬이 부사에 이르렀다. 숙종 때 청백리에 선발되었다.

곽엄(郭崦): 황(趙)의 손자이다. 등과하여 벼슬이 승문원 박사에 이르렀다.

김자강(金自剛):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을 지냈다.

곽영(郭嶸): 종경(宗慶)의 아들이다. 신유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김자준(金自俊): 무과에 급제하여 현감을 지냈다.

곽업(郭業): 무과에 급제하였다.

엄풍일(嚴風一): 봉사(奉事)를 지냈다.

신의일(辛義逸): 무과에 급제하여 만호(萬戶)를 지냈다.

곽협(郭協): 종의(宗義)의 아들이다. 정사년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지냈다.

김집(金石+集): 무과에 급제하여 판관을 지냈다. 삭녕(朔寧)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곽연(郭研): 유도(有道)의 아들이다. 등과하여 벼슬이 전적(典籍)에 이르렀다.

엄상중(嚴尙中): 정사년 무과에 급제하여 군수를 지냈다.

곽유(郭瀏): 월(越)의 손자이다. 만력 연간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병자년 이후에 과거 공부를 그만 두었다.

곽융(郭融): 월(越)의 손자이다. 등과하여 권귀(權貴)들에게 휘둘리지 않았다. 벼슬이 교수에 이르렀다.

곽홍지(郭弘址): 간(趕)의 증손자이다. 등과하여 벼슬이 부사에 이르렀다.

곽홍규(郭弘圭): 홍지(弘址)의 아우이다. 계유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곽이창(郭以昌): 두(趙)의 증손자이다. 학행으로 천거되어 참봉에 임명되었다.

곽홍재(郭弘裁): 간(趕)의 증손자이다. 경오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엄상의(嚴尙義): 신유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엄상지(嚴尙智): 참봉을 지냈다.

곽후창(郭後昌): 지번(之蕃)의 증손자이다. 등과하여 현감을 지냈다.

곽의창(郭宜昌): 두(趙)의 증손자이다. 5세에 부친상을 치름에 한결같이 어른처럼 하니 하늘이 낸 효자로 칭송되었다. 이 일이 알려져 별검(別檢)에 추증되었다. 고을사람들이 묘갈을 세웠다. 묘갈은 솔레리에 있다.

곽경점(郭慶覃): 지운(之雲)의 4대손이다. 계모를 잘 섬기자 사람들이 그 효성을 칭송하였다.

곽유창(郭愈昌): 의창(宜昌)의 아우이다. 모친을 섬김에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7세에 추상(追喪)¹⁷⁾함에 조상을 받들어 예를 다하였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별검(別檢)에 추증되었다. 형제의 사적이 한 묘갈(墓碣)에 기록되었다.

김처정(金處精): 선비 현(玟)의 아들이다. 부친에게 고질병이 있었는데 30년 동안 탕약을 올렸다. 그 지극한 정성이 한결같았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별검(別檢)에 추증되었다.

배계서(裴繼緒): 낙천(洛川) 배신(裴紳)의 손자이다. 부친상에 추복(追服)하였다. 모친이 병에 걸리자, 그 똥을 맛보아 병의 상태를 살폈다. 모친이 돌아가시자 지나치게 애통해하며 예를 다하였다. 천거로 참봉에 임명되었으며, 도사(都事)에 추증되었다.

박홍정(朴弘禎): 유인(惟仁)의 6세손이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모시고 돌아가시자 장례 치르기를 지극 정성으로 하였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졌다.

김선영(金善英): 세보(世寶)의 후손이다. 등과하여 벼슬이 사예(司藝)에 이르렀다. 인조 때 영국원종공신(寧國原從功臣)이 되었다.

나이준(羅以俊): 본관은 수성(壽城)이다. 등과하여 삼사(三司)를 역임하고 영천(榮川, 지금의 榮州)으로 이거하였다.

곽홍장(郭弘章): 홍재(弘哉)의 아우이다. 진사를 지냈다.

박창징(朴昌徵): 대암(大庵) 성(惺)의 손자이다. 생원을 지냈다.

김원구(金元龜): 한훤당의 봉사손이다. 9세에 모친상을 만나 상을 치름에 어른과 다름이 없었다. 여헌(旅軒) 장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천거로 참봉에 임명되었다.

17) 추상(追喪): 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 사정이 있어 상주 노릇을 하지 못한 경우, 후에 추급하여 복상(服喪)하는 것.

곽세봉(郭世鳳): 안방(安邦)의 7세손이다. 계유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곽수강(郭壽崗): 영희(永禧)의 손자이다. 생원을 지냈다. 고령(高靈)에 사당이 세워졌다.

곽세건(郭世健): 용(瀾)의 아들이다. 기해예송(己亥禮訟)의 일로 뒤에 배척되었다. 벼슬이 군수에 이르렀다.

엄태장(嚴泰章): 경자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곽세구(郭世龜): 세봉(世鳳)의 아우이다. 경자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곽세익(郭世翼): 세봉(世鳳)의 아우이다. 등과하여 벼슬이 사성(司成)에 이르렀다. 일찍이 영월현감이 되어 생도를 가르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으니 재임한 지 수년만에 문화가 크게 일어났다. 평창(平昌)의 돈계서원(遯溪書院)에 제향되었다.

곽수진(郭壽_{山+晉}): 수강(壽崗)의 아우이다. 경자년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곽수하(郭壽夏): 황의 4세손이다. 정사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김석하(金夏錫): 한훤당의 봉사손이다. 계축년 생원시에 합격하여 참봉을 지냈다. 경현속록(景賢續錄)을 편집하였다.

이선남(李善男): 무과에 급제하였다.

곽삼립(郭三立): 무과에 급제하여 봉사(奉事)를 지냈다. 용력이 뛰어났다.

곽성구(郭聖衢): 무과에 급제하여 현감을 지냈다.

채국시(蔡國蓍): 무과에 급제하였다.

곽주한(郭周漢): 무과에 급제하였다.

곽정빈(郭廷賓): 계해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곽원형(郭元亨): 근(赧)의 승적자(承嫡子)¹⁸⁾이다. 계묘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박빈(朴毗): 용(容)의 손자이다. 부모를 봉양함이 지극하였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부역과 조세가 면제되었다.

조한부(曹漢夫)·조한련(曹漢連): 정병(正兵)이다. 형제가 효성을 다하였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가 내려졌다.

곽취성(郭就成): 협(協)의 손자이다. 무과에 급제하였다.

18) 승적자(承嫡子): 첩에게서 난 서자(庶子)가 적자(嫡子)가 됨.

곽희천(郭希天): 위국(衛國)의 아들이다. 음서(蔭紱)로 부사용(副司勇)을 지냈다.

곽천중(郭千重): 재우(再祐)의 증손자이다. 임오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무인년 신증>

곽의지(郭義之): 세봉(世鳳)의 아들이다. 계축년 생원시에 합격하여 참봉을 지냈다.

곽감(郭鑑): 간(趕)의 4세손이다. 기유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곽수구(郭壽龜): 희천(希天)의 아들이다. 정묘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신미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에 선발되었으나 임명되기 전에 일에 연루되어 유배갔다. 좌랑을 지냈다. 호는 예포(禮圃)이다.

곽수성(郭壽星): 종경(宗慶)의 증손자이다. 을묘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박세결(朴世杰): 창징(昌徵)의 아들이다. 정사년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곽창호(郭昌壕):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지냈다.

곽기지(郭基之): 세익(世翼)의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부사를 지냈다.

엄익하(嚴翼廈): 태장(泰章)의 아들이다. 계사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성세형(成世珩): 안의(安義)의 증손자이다. 계사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곽한방(郭翰邦): 무과에 급제하여 영장(營將)을 지냈다. 용맹스럽고 활을 잘 쏘아 이름을 떨쳤다.

곽만증(郭萬增): 한방(翰邦)의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지냈다.

곽창만(郭昌萬): 원형(元亨)의 아들이다. 생원을 지냈다.

곽창일(郭昌一): 창만(昌萬)의 아우이다. 생원과 참봉을 지냈다. 조정으로부터 특명을 받아 존재(存齋)선생을 봉사(奉祀)하였다.

곽선희(郭善熙): 효행으로 조정에 알려져 부역과 세금이 면제되었다.

곽문징(郭文徵): 병진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김성징(金聖徵): 병진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김예생(金禮生): 正兵이다. 부모를 섬김에 정성을 다하였다. 부모가 병들자 손가락을 끊어 피를 올렸다. 삭녕(朔寧)에서 전사하였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가 내려졌다.

장후영(張厚榮): 역리(驛吏)이다.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를 섬겼다. 이 일이 조정
에 알려져 부역과 조세가 면제되었다.

<임진년 신증>

곽수도(郭壽道): 위국(衛國)의 손자이다. 을유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곽재일(郭在一): 자는 만초(萬初)이고, 수구(壽龜)의 아들이다. 갑자년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호는 대은(大隱)이다.

김여진(金汝振): 처정(處精)의 손자이다. 학행과 문장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호
는 산재헌(相在軒)이다.

채몽량(蔡夢良): 무과에 급제하여 군수를 지냈다.

엄이성(嚴以性): 태장(泰章)의 손자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지냈다.

곽경후(郭慶垆): 충익공(忠翼公)의 봉사손이다. 참봉을 지냈다.

성처인(成處寅): 안의(安義)의 현손(玄孫)이다. 생원을 지냈다.

곽기화(郭氣和): 지운(之雲)의 5세손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중추부사(中樞府使)
를 지냈다. 무신정란(戊申靖亂)에 녹훈되었다. 호는 무한당(無恨堂)이다.

곽한국(郭翰國): 한방(翰邦)의 아우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지냈다.

김계원(金繼遠): 한훤당의 10세손이다. 참봉을 지냈다.

곽정후(郭禎垆): 월(越)의 5세손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영장(營將)을 지냈다.

김정제(金鼎濟): 한훤당의 봉사손이다. 벼슬이 도정(都正)에 이르렀다.

곽수태(郭守泰): 월(越)의 8세손이다. 무과에 급제하였다.

곽익태(郭灝泰): 재일(在一)의 증손자이다. 정유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곽기남(郭起南): 두(趙)의 8세손이다. 무과에 급제하였다.

곽필영(郭必寧): 월(越)의 7세손이다. 기유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김오운(金五運): 계원(繼遠)의 손자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지냈다.

곽명찬(郭明燦): 망우당(忘憂堂)의 봉사손이다. 참봉을 지냈다.

곽진익(郭振翼): 두(趙)의 9세손이다. 정해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곽경성(郭景星): 간(趕)의 6세손이다. 효행으로 조정에 알려져 부역과 세금이
면제되었다.

<을묘년 신증>

김규찬(金奎燦): 한훤당의 봉사손이다. 순조 신사년에 선공감역(繕工監役)을 지냈다. 벼슬이 현감에 이르렀다. 호는 야암(野巖)이다.

<갑술년 신증>

곽용기(郭龍沂): 참봉 이창(以昌)의 7세손이다. 철종 기미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갑오년 신증>

곽안조(郭安朝): 자는 진약(鎭若), 호는 구헌(懼軒)이다. 학행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김희국(金熙國): 자는 윤약(允若)이고, 한훤당의 15세손이다. 철종 때 등과하여 벼슬이 교리(校理)에 이르렀다.

김규한(金奎漢): 자는 응오(應五)이고, 한훤당의 13세손이다. 철종 무오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갑자년에 돈녕부(敦寧府) 도정(都正)에 임명되었다.

김규응(金奎應): 자는 취오(聚五)이고, 규한(奎漢)의 아우이다. 철종 경술년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임신년에 공릉참봉(恭陵參奉)에 임명되었다.

곽서곤(郭書坤): 자는 화길(和吉)이고, 참봉 이창(以昌)의 8세손이다. 철종 기미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계유년에 영릉참봉(永陵參奉)에 임명되었다.

김기운(金麒運): 자는 성서(聖瑞)이고, 한훤당의 12세손이다. 철종 경오년에 등과하여 벼슬이 정언(正言)에 이르렀다.

곽희곤(郭熙坤): 자는 태여(泰汝)이고, 용기(龍沂)의 아들이다. 계유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사과(司果)에 이르렀다.

곽종우(郭鍾佑): 자는 신오(愼五)이고, 참봉 이창(以昌)의 9세손이다. 병자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곽정곤(郭定坤): 참봉 이창(以昌)의 8세손이다. 병자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통우후(統虞候)에 이르렀다.

김화식(金華植): 자는 충거(忠舉)이고, 한훤당의 봉사손이다. 기묘년 진사시에 합격하여 참봉을 지냈다. 벼슬이 현감에 이르렀다.

김노동(金魯東): 자는 태첨(泰瞻)이고, 규한(奎漢)의 아들이다. 임오년에 진사시

에 합격하였다.

김희연(金熙衍): 자는 낙여(洛汝)이고, 규찬(奎燦)의 손자이다. 경오년에 선공감역(繕工監役)을 지냈다.

홍수민(洪秀旻): 자는 내문(乃文)이다. 임오년에 등과하여 벼슬이 정언(正言)에 이르렀다.

김인식(金麟植): 자는 성거(聖舉)이고, 화식(華植)의 아우이다. 신묘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김대식(金大植): 자는 경거(敬舉)이고, 인식(麟植)의 아우이다. 갑오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김태영(金兌榮): 자는 무경(茂景)이고, 화식(華植)의 아들이다. 갑오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박호원(朴鎬源): 등과하여 벼슬이 참방에 이르렀다.

이승곤(李升坤): 등과하여 벼슬이 도사(都事)에 이르렀다.

박경원(朴景源):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선전관에 이르렀다.

여사(女史)

효녀

조씨(曹氏): 본관이 김해인 선비 조문한의 딸이며, 선비 박훈(朴燾)의 아내이다. 시집가기 전에, 부모 봉양에 정성을 다하였다. 모친이 병들자 의원이 말하기를, “사람 고기가 가장 좋다.”고 하자, 조씨가 허벅다리 살을 베어내 약에 타서 드리니 어머니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 또한 부친이 병들자 두 번 손가락을 잘라 피를 올렸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가 내려졌다. 시집가서 시어머니를 섬기는 데도 효성을 다하였다. 후사 없이 일찍 죽으니 고을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겼다. 정려는 김해 부 본리(本里)와 본 고을의 묘동(妙洞)에 있다.

열녀

이씨: 이랑(吏郎) 이효언(李孝彦)의 딸이며, 곽지운(郭之雲)의 아내이다. 가도(家道)를 가지런히 하였으며, 선행으로 널리 알려졌다. 여범(女範) 4권을 지었는

데 전란 중에 일실했었다.

홍씨: 판사(判事) 서린(瑞麟)의 딸이며, 곽두(郭耆)의 아내이다. 남편이 죽자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고 있다가 죽었다.

김씨: 본관이 예안(禮安)인 관찰사 김연(金緣)의 딸이며, 생원 박사눌(朴思訥)의 아내이다. 남편상을 당하자 9년 동안 죽만 먹었다. 대암(大庵) 박성(朴惺)이 곧 그 아들이다.

곽씨: 존재(存齋) 곽월(郭越)의 딸이며, 유문호(柳文虎)의 아내이다. 부친이 황석성(黃石城)에서 전사하자 성을 나와 왜적을 피하였다. 남편이 진주성에서 전사한 소식을 듣자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가 내렸다. 정려는 솔례(率禮)에 있다.

신씨(愼氏): 효자 곽이상(郭履常)의 아내이다. 남편이 황석성에서 전사할 때 남편과 함께 목숨을 잃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가 내렸다. 정려는 솔례에 있다.

이씨: 본관이 광주(廣州)인 선비 이심옥(李心玉)의 딸이며, 계공랑(啓功郎) 곽재기(郭再祺)의 아내이다. 임진왜란 때 왜적을 만나자 물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가 내렸다. 정려는 솔례에 있다.

허씨: 세겸(世謙)의 딸이다. 임진왜란 때 처녀로 산골짜기로 피난가다가 적을 만났다. 적이 몸을 더럽히려 하자 나무를 끌어안고 거부하니 적이 두 손을 잘라버리고 떠났다. 그 후 종신토록 시집가지 않고 모친을 섬겼다. 모친이 돌아가시자 강물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김씨: 본 고을 봉사(奉事) 응용(應勇)의 딸이다. 나이 16세에 왜적이 겁탈하려 하자 절개를 지키며 적을 꾸짖고는 목숨을 끊었다.

홍씨: 본관이 남양(南陽)인 정랑(正郎) 세익(世翼)의 딸이며, 선비 곽종경(郭宗慶)의 아내이다. 남편이 죽자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다가 죽었다.

박씨: 본 고을 계공랑 박포(朴曝)의 딸이며, 선비 곽홍원(郭弘垣)의 아내이다. 집안에서 강도를 만나자, 자신의 몸으로 남편을 감싸다가 목숨을 잃었다. 남편은 그 덕분에 목숨을 구하였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가 내렸다. 정려는 솔례에 있다.

권씨: 본관이 丹城인 선비 권鎰의 딸이며, 선비 郭壽亨의 아내이다. 시집간 지

일 년도 채 되지 않아서 남편이 병들어 죽자 한 모금의 물도 입에 대지 않다가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가 내려졌다. 정려는 率禮에 있다.

이씨: 본관이 진주(晉州)이고 무과에 급제한 이명(李瑩)의 딸이며, 선비 김여택(金汝澤)의 아내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뱃속에 아이 때문에 슬픔을 참고 죽지 않았다. 아이를 낳은 뒤에는 음식을 먹지 않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가 내려졌다. 정려는 슬례에 있다.

박씨: 본 고을 선비로 본관이 순천(順天)인 창윤(昌胤)의 딸이며, 선비 곽수징(郭龜徵)의 아내이다. 남편이 죽자 한 모금이 물도 입에 대지 않다가 스스로 목매 죽었다. 일이 조정에 알려져 그 집의 세금과 부역이 면제되었다.

검진(檢眞): 사비(寺婢)이다. 일찍 남편을 여의자 칼을 차고 스스로를 지키며 죽음으로써 수절하였다. 시부모를 제사지내며 종신토록 정성을 다하였다.

귀매(貴梅): 사비(寺婢)이다. 남편이 전사하자 종신토록 수절하였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가 내려졌다.

<무인년 신증>

열녀

공조이[孔召史]: 정병(正兵) 김시종(金是宗)의 아내이다. 남편의 장례일에 옷을 갈아입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 목숨을 끊었다.

효녀

조조이[曹召史]: 효자 조한련(曹漢連)의 딸이며, 본관이 창녕인 이후일의 아내이다. 다른 자녀가 없는 부친을 걱정하여, 남편에게 친정집으로 돌아가 부친을 봉양할 수 있도록 청하였다.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3년 동안 시묘하였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가 내려졌다.

이조이[李召史]: 곽태건(郭泰建)의 아내이다. 시택에 있다가 부친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급히 알리고 남장을 하고서 친정집으로 빨리 달려가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올리니, 부친이 다시 살아나 며칠을 더 살았다. 부친이 돌아가시자 3년 동안 시묘하였다. 이 일이 나라에 알려져 그 집의 부역과 조세가 면제되었다.

<임진년 신증>

열녀 이씨: 본관이 전의(全義)인 선비 이명후(李命厚)의 딸이며, 곽내용(郭乃鎔)의 아내이다. 남편이 죽자 한 모금의 물도 입에 대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여러 번 시부모에 의해 구제되었다. 마침내 9월에 절명사(絶命詞)를 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사 지내려 하자 그 남편의 무덤이 저절로 열려 함께 합장하였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가 내렸다.

박씨: 본관이 순천(順天)인 선비 박득일(朴得一)의 딸이며, 곽몽조(郭夢祖)의 아내이다. 남편이 죽자 한 모금의 물도 입에 대지 않다가 독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비(私婢) 봉화(鳳花): 부모 없는 상전(上典)을 젖 먹여 길러 성장시켰다. 상전의 목숨이 끊어지려 하자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올렸다. 상전이 죽자 재물을 모아 안장하였다. 그 집의 세금과 부역이 면제되었다.

【제영(題詠)】

○ 영헌공(英憲公) 김지대(金之岱)가 유가사(瑜伽寺)를 읊은 시가 있다.

寺在煙霞無事中 절은 안개와 노을 고요한 속에 있고
亂山滴翠秋光濃 산엔 푸른빛 들어 가을빛 짙어가네
雲間絕磴六七里 구름 사이 가파른 길 6, 7리나 뻗었고
天末遙岑千萬重 하늘 끝 먼 봉우리 천겹 만겹이라네
茶罷松簷掛微月 차 마시고 나니 처마에 초승달 걸려 있고
講闌風塔搖殘鐘 설법 끝나자 석탑에 종소리 울러오네
溪流應笑玉腰客 우리들 벼슬아치 시냇물이 응당 웃겠지
欲洗未洗紅塵蹤 세속의 찌든 때 씻으려도 못 씻을 테니

○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이 비슬산을 읊은 시가 있다.

山水厭山塵土去 산속 물은 산을 꺼려서 속세로 흘러가는데
俗僧憎俗碧雲臥 속승은 세속 싫어 푸른 구름 속으로 돌아오네

水乎爾性元清淨 물아 너의 성품은 본래 맑고 깨끗하니
莫向人間反復歸 인간 세상 향해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 문경공(文敬公) 김굉필(金宏弼)이 쌍계(雙溪)를 읊은 시가 전한다.

處獨居間絕往還 홀로 한가로이 지내니 왕래가 끊겨
只呼明月照孤寒 다만 밝은 달 불러 외로움 달래네
煩君莫問生涯事 그대여 이 생애 번거롭게 묻지 마시오
數頃烟波數疊山 몇 이랑 하얀 물결 몇 겹의 산이로세

○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이 도동서원(道東書院)을 읊은 시가 있다.

金先生學世推宗 김선생의 학문 세상에서 으뜸이니
濂洛餘風振海東 주자학의 기풍을 우리나라에 떨쳤네
鄉邑親薰應有得 고을에서 직접 배워 얻음이 있을 것이니
須將小學益研窮 모름지기 소학 공부 더욱더 연마하게나

○ 도은(陶隱) 이숭인(李崇仁)의 승사(僧舍)에 대한 시가 있다.

俗客驅長道 속객은 먼 길 한없이 치달리고
高僧臥小亭 고승은 작은 암자에 머물러 있네
雲從朝暮白 흰 구름은 아침저녁으로 옮겨 다니고
山自古今青 푸른 산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하네
往事追松子 옛날에는 적송자¹⁹⁾를 따라 노닐었는데
羈遊愧地靈 지금은 떠돌아다녀 지령에 부끄럽네

19) 옛날에는 ... 노닐었는데: 한나라의 장량(張良)이 유후(留侯)의 봉작을 받고 나서, “인간 세상의 일을 버리고 신선인 적송자를 따라 노닐고 싶다. [願棄人間事 欲從赤松子游耳]”라고 말하고는 벽곡(辟穀)과 도인(導引)의 술법을 행한 고사가 전한다. 《史記 卷55 留侯世家》

慇懃汲澗水 다정스럽게 산골 물을 길어 와서
一掬煮蓼苓 인삼과 복령을 한 움큼 달여주시네

○ 오봉(五峯) 이호민(李好閔)의 포산관(苞山館)에 대한 시가 있다.

東閣官梅樹樹新 동헌의 매화나무 그루마다 새롭게 피고
靑禽如語解留人 파랑새 재잘대니 사람을 머물게 하네
前頭更覺花深好 앞으로 꽃들이 더욱 흐드리게 필 테니
領得南州處處春 남녘 고을 곳곳마다 봄이 무르익어 가리라

○ 동명(東溟) 김세렴(金世濂)의 유가사(瑜伽寺)에 대한 시가 있다.

一出脩門寵渥新 한번 수문²⁰⁾ 나서니 은총 새로운데
逐臣黃綬更何人 고을 수령으로 쫓겨난 자 어떤 사람인가
爲官莫道苞山冷 포산 고을 하찮다 말하지 말게
領得梅花百樹春 봄날 백 그루의 매화를 얻으리라

○ 김세렴(金世濂)의 조양각(朝陽閣)에 대한 시가 있다.

莫謂茲官薄 이 벼슬자리 하찮다고 말하지 말게
專城亦寵靈 고을을 맡게 된 것도 성은이라네
水含玄圃白 물은 학처럼 흰 빛 머금었고
山插九峯靑 산은 푸른 아홉 봉우리 품었네
逐客元同調 쫓겨난 나그네 원래 성향과 맞았고
孤臣本獨醒 외로운 신하 본래 홀로 깨어 있었네
相逢難袞袞 서로 계속 만나기 어려운데
風雨撼虛亭 비바람 텅 빈 정자를 흔드네

20) 수문(脩門): 초(楚) 나라 도읍인 영(郢)의 성문 이름으로, 보통 도성(都城)의 문을 말한다.

○ 판서(判書) 조경(趙綱)이 차운한 시

伏枕消三伏 자리에 누우니 삼복더위 사라지고
多慚養性靈 많은 부끄럼 속에서 마음을 길렀네
愁邊新月上 근심 중에 초승달 떠오르고
夢裏舊山靑 꿈속 옛 산하는 푸르구나
未識田園興 전원의 흥겨움 아직 모르지만
空憐楚叟醒 깨어 있는 초수²¹⁾ 공연히 가여워라
開樽見君意 술독 여니 그대 마음 알겠네
松柏本亭亭 소나무와 잣나무 본래 정정하구나

○ 택당(澤堂) 이식(李植)이 차운한 시

斗粟嗟無補 오두미의 벼슬²²⁾이 무슨 보탬 되리오
鍾山有愧靈 종산²³⁾의 신령님에게도 부끄럽다네
空添鬚鬢白 흰 수염 머리카락 부질없이 늘어가도
尙戀簡編靑 역사 편찬 아직도 생각하네
一指看榮辱 한 번의 지적에 영예와 치욕 보나니
孤懷付醉醒 외로운 마음 취하고 깨는 사이에 부쳤네
何時東峽裏 어느 때 동쪽 산골짜기 누각에서
鷄黍話林亭 닭 잡고 기장밥 지어 함께 얘기 나눌까

太古玄風縣 아주 오랜 태고의 현풍 고을
煙霞擁地靈 연하가 신령스러운 땅 감췄네
山川分氣色 산천이 드러내는 기운과 빛깔
草樹發丹青 초목이 뿜어내는 붉고 푸른 빛

21) 초수(楚囚): 춘추 전국 시대 초(楚)나라 문학가(文學家) 굴원(屈原).

22) 오두미의 벼슬: 진(晉)나라 도연명(陶淵明)이 팽택현령(彭澤縣令)으로 있다가 오두미(五斗米) 때문에 허리를 굽힐 수 없다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함.

23) 종산(鍾山): 남조(南朝) 송나라의 주옹(周顒)이 은거한 산. 후에 그가 벼슬에 나가자 공치규(孔稚圭)가 <북산이문(北山移文)>을 지어 비판하였음.

客美萍鄉政 나그네는 고을의 정사를 찬미하고
 人疑楚澤醒 사람들은 깨어있는 굴원(屈原) 생각하네
 應瞻魏闕路 마음은 궁궐로 달려가겠지
 七十四長亭 멀고 먼 740리²⁴⁾ 길

○ 감사(監司) 이민구(李敏求)가 서헌(西軒)에 쓴 시
 池沼餘香玉露殘 연못 향기는 연잎의 이슬에 남아 있고
 西風吹客動南冠 서풍 불어 나그네의 남관²⁵⁾을 흔드네
 黃花小院重陽過 국화 핀 정원에 중양절 지나가니
 白社前期隔歲闌 백사의 이전 기약 해마다 희미해지네
 浮世有涯身半老 부운 같은 세상 이내 몸은 늙어가고
 塞鴻無信路多難 소식없는 변방 기러기에 길은 멀어지네
 蕭蕭一夜連江雨 쓸쓸한 이 밤 강에 비 내리는데
 纔送秋涼又送寒 가을 보내자마자 또 겨울 보내네

○ 통신부사(通信副使) 유창(兪瑒)이 조양각에 쓴 시
 十七年前六載留 17년전에 6년간 머물었으니
 苞山卽是古并州 포산은 곧 예전의 병주²⁶⁾와 같네
 家君作宰桐鄉日 부친은 이 고을 수령이 되고
 小子趨庭魯郡秋 소자는 여기서 가르침 받았네
 邑里人煙欣再覩 읍리의 인가들 다시 보니 기쁘고
 江湖樓閣憶曾遊 강호의 누각들 예전 유람 생각나네

24) 740리: 행인들의 휴게소. 5리(里)마다 단정(短亭)을 설치하고 10리마다 장정(長亭)을 설치하였음. 74장정은 740리.

25) 남관(南冠): 춘추시대 초(楚)나라 사람이 쓰던 모자. 남쪽 지방 관원으로 부임했다는 뜻.

26) 병주(并州): 정든 타향을 고향에 비유하는 말. 당나라의 가도(賈島)가 병주(并州)에 오래 살다가 떠나면서 지은 〈상건을 건너며[度桑乾]〉에서 “돌아서 병주를 바라보니 이게 고향인가 하노라.[却望并州是故鄉]”라는 구절에서 나온 것이다.

當時老父今誰在 당시의 부모들 지금 어디에 있는가
駐節招尋半已幽 부임하여 찾아보니 반은 이미 돌아가셨네

○ 어사 남용익이 조양각에 쓴 시²⁷⁾

一春消息杏花殘 한철 봄소식에 살구꽃 떨어지고
風送餘香到客冠 바람이 전하는 향기 나그네에게 불어오네
驄馬鑿蹄人已倦 총마²⁸⁾의 말발굽에 사람들 지치고
燭煙滋淚夜將闌 촛불연기에 흐르는 눈물 밤은 깊어지네
詩因興到吟來數 시로 흥이 일어 자주 읊조리나
夢爲身勞記取難 꿈속에서 지쳐 기억조차 어렵네
簾捲小樓邀月影 주렴 걷은 누각에서 달을 맞이하노라니
竹床冰簟不勝寒 대나무 평상과 대자리라 추위 견딜 수 없네

○ 감사 유명홍(俞命弘)이 조양각에 쓴 시

原濕驅馳走力殘 여기저기 달리느라 힘 다 소진하니
風塵白首愧簪冠 세상의 늙은이로 벼슬아치에 부끄럽네
黃花泛舟驚秋晚 국화꽃 피어있는 늦가을에 배를 띄우고
紅燭看詩覺夜闌 깊은 밤 붉은 촛불 아래서 시를 보노라
身病不堪供世用 몸이 병드니 세상에 쓰이지 못하고
才疎敢望濟時難 재주 모자라니 어려움 구제할 수 있으랴
南來氣候殊京土 남쪽 기후는 서울과 아주 달라
九月天高尙未寒 하늘 높은 9월에도 아직 춥지 않네

○ 감사 오숙(吳翹)이 조양각에 쓴 시

交情誰復白頭新 우정에 누가 또한 서먹서먹하리오²⁹⁾

27) 壺谷集에는 <夜坐凝香閣。次板上韻。閣在玄風>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28) 총마(驄馬): 한(漢)나라의 환전(桓典)이 관리를 탄핵하는 어사(御史)가 되었을 때 항상 ‘푸른 말 [驄馬]’을 타고 다니면서부터 총마는 어사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

款款他鄉兩故人 정든 타향에 두 명의 친구 있네
說盡悲歡眞似夢 슬픔과 기쁨 다 말하니 진짜 꿈과 같은데
向來風雨幾番春 지난번 풍우 몇 년이나 되었던가

○ 판서 조상경(趙尙綱)이 유가사에 쓴 시³⁰⁾

小逕登登險 오솔길로 험한 절에 오르니
故雲擁馬鞍 구름은 말안장을 감싸네
僧殘寺豈大 승려는 드문데 절은 어찌나 큰지
地僻洞仍閑 땅이 궁벽하니 골짜기 한가롭네
清磬飄山外 맑은 풍경소리 산 밖으로 퍼져
芳溪響石間 아름다운 시냇가 돌 사이로 울리네
涼飈如有意 서늘한 바람 뜻이 있는 듯
能使暑炎寒 무더위로 하여금 서늘하게 하네

○ 진사 곽홍장(郭弘章)이 효갈각(孝碣閣)에 쓴 시
五歲孤兒豈有知 다섯살 고아가 어찌 상례를 알았는지
執喪蔬糲教誰爲 나물밥 먹으며 초상 치름 누가 가르쳤던가
樂樂不忍慈闈見 수척해져 차마 모친 뵈지 못하지만
誘極千方竟莫欺 온세상 이끄니 소홀히 하지 말지니라

○ 대양정(戴陽亭)을 읊은 시
紫陽亭後戴陽亭 자양정 이후에 대양정 있으니

29) 백두신(白頭新): 백두여신(白頭如新)의 준말. 흰머리가 되도록 오래 사귀었는데도 서로 깊이 알지 못해 항상 처음 만난 사람처럼 관계가 서먹서먹한 것을 말한다. 한(漢)나라 추양(鄒陽)의 〈옥중상서자명(獄中上書自明)〉에 “흰머리 되도록 사귀었는데도 처음 만난 사람과 같은가 하면, 수레를 서로 멈추고 처음 대했는데도 오래 사귄 사람과 같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는 제대로 알아주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 때문이다.[諺曰 白頭如新 傾蓋如故 何則 知與不知也]”라는 말이 나온다. 《史記 卷83 鄒陽列傳》

30) 鶴塘遺稿에는 <玄風瑜珈寺醉咏 其後邑人懸板>으로 실려 있다.

吾道千秋煥日星 우리 유도 해와 별처럼 빛나네
 安得海棠遊賞處 어찌 해당화를 감상할 곳 얻어
 更加封植照牕櫺 다시 심어 창문에 비치게 할까

○ 지현(知縣)³¹⁾ 홍응린(洪應麟)이 곽씨(郭氏) 정려(旌閭)에 쓴 시
 三綱烈烈一門并 열렬한 삼강 한 가문에 있어
 清白庭中節義生 청백한 집안에 절의가 생겨났네
 熊掌當時明取舍 당시에 捨生取義 분명히 하니
 烏頭千載荷褒旌 천년의 본보기³²⁾로 정려가 내렸네
 尙悲黃石餘忠血 아직도 황석성에 남은 피를 슬퍼하노라
 曾與紅衣掌大名 일찍 홍의장군과 함께 큰 이름 남겼네
 寄語九居堂裏客 구거당에 묵어가는 객에게 말하노니
 夙宵相勉繼家聲 조석으로 가문의 명성 부지런히 이어가게나

○ 진주목사 김상중(金尙重)이 곽씨(郭氏) 12정려(旌閭)에 쓴 시
 郭氏旌門一里同 곽씨들 12정려 한 동네에 있으니
 三綱今世獨玄風 삼강은 지금 현풍 고을에만 있네
 昭森楣閣如星列 빛나는 정려각 별처럼 널려 있어
 某孝某忠某烈中 효자 충신 열녀 여기에 다 있네

○ 지현(知縣) 김광태(金光泰)가 도성암(道成庵)에 쓴 시
 天南琵琶擅高名 남쪽 비슬산 높은 이름 차지하여

31) 지현(知縣): 한 고을을 맡은 수령.

32) 천년의 본보기[烏頭]: 독성이 강하여 약효가 좋은 약재. 제자의 모범이 되는 스승, 또는 본보기를 비유할 때 쓰는 말. 송(宋)나라의 학자 사양좌(謝良佐)가 스승 정호(程顥)를 하직하고 돌아가면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조석으로 선생을 따라 행실을 보면 배우고 말씀을 들으면 기억하였으니, 비유하자면 사람이 오두를 복용하는 것과 같다. 그것을 복용할 때는 얼굴에 윤기가 나고 근력이 강성하지만 갑자기 오두의 힘이 없어지면 장차 어찌될 것인가.” 하였다. 《宋元學案 卷24 上蔡學案》

嶺下靈區佛國成 영남 신령스런 곳에 암자 세웠네
 危嶂削來剛鐵聳 깎아지른 산봉우리 강철처럼 솟아있고
 怪松團作潤盤平 괴이한 소나무 쟁반처럼 둥글게 넓적하네
 眞僧石碣巖花老 스님 비석에 핀 꽃은 시들었는데
 羅代銅爐篆跡明 신라 때의 구리 화로에 글씨 선명하네
 斜日倚樓秋色裏 가을 석양에 누각에 기대노라니
 萬楓深處絳霞生 단풍 깊은 곳에 붉은 노을 네리네

○ 관찰사 조엄(趙儼)이 유가사에 쓴 시
 王考曾分竹 조부는 여기서 수령을 지냈고
 先君此駐鞍 부친은 여기에 머물렀네
 澤隨流水遠 연못은 물 따라 멀리 있고
 詩帶宿雲間 시는 구름기운 띠고 있네
 山寺百年內 산사는 백년 동안
 滄桑三世間 세 번이나 변했다네
 盤松猶舊色 반송은 아직도 그대로인데
 問爾幾經寒 묻노니 몇해나 되었던가

○ 판서 조진관(趙鎭寬)이 유가사에 쓴 시³³⁾
 爲是遺篇在 여기에 글이 남아 있으니
 瞻樓已下鞍 누각 보고 말안장 내려놓았네
 偶隨秋色晚 우연히 가을 석양 따라
 欣續舊遊閒 흔쾌히 예전의 유람 이었네
 杖屨逍遙地 지팡이 짚고 거닐던 곳이
 子孫慕仰間 자손들 추앙하는 곳이네
 盤松期後者 반송에 후일을 기약하는 자
 珍重耐千寒 진중하게 추위 견딜지어다

33) 柯汀遺稿에 <瑜伽寺 陪家大人 謹次王考鶴塘府君韻>으로 실려 있다.

○ 참관 유언민(兪彦民)이 유가사에 쓴 시
 壯遊猶宿債 장대한 유람은 아직도 오래묵은 빚
 斜日始停鞍 석양에 비로소 여기 머물렀네
 盤地一松老 평지에 한 그루 늙은 소나무요
 坐龕三佛閒 감실 속 한가로운 세 부처로세
 衣冠纔石上 의관은 겨우 돌 위에 있는데
 笙笛乃雲間 피리소리 구름 속에서 들리네
 欲洗塵緣累 세속의 찌든 인연 씻으려
 依階小井寒 계단 아래 차가운 우물에 기대어 있네

○ 찰방 정석유(鄭錫儒)가 반송(盤松)에 쓴 시
 糺結龍身偃盖張 엉킨 용 같고 일산처럼 퍼져 있고
 圍纔解帶屹過牆 둘레 느슨해져 우뚝 담장을 넘어가네
 枝因鶴踏橫貪出 가지는 학이 밟자 갑자기 많이 나오고
 幹學虬盤亞許長 줄기는 용이 꿈틀대니 조금 자라나네
 直愛下垂掌客木 늘어져 객을 모시는 나무 되니 사랑스럽고
 傍憐鞭逸破僧房 채찍되어 승방을 부수니 가련하다네
 炎天陰暍功能大 뜨거운 햇빛 녹음으로 가려 공이 크니
 佇見千秋化作羊 천추에 양이 되기를 우두커니 바라네

○ 지현(知縣) 장석윤(張錫胤)이 관수대(觀水臺)에 쓴 시
 漢陽張伯永 한양에 사는 이 사람 장백영³⁴⁾
 散在幾名山 얼마나 명산 돌아다녔던가
 五馬西歸後 수령이 서쪽으로 돌아간 후
 訪我於此間 이곳으로 나를 찾아왔다네

○ 진사 김성구(金聖球)가 반송(盤松)에 쓴 시

34) 장백영(張伯永): 장석윤(張錫胤)의 자(字).

瑜寺聞名久 유가사 이름 들은 지 오래
 應因有此松 응당 이 반송 때문이라네
 陰濃藏白日 짙은 녹음 속에 해 갈무리하고
 盤鬱老蒼龍 울창한 소나무에 용 늙어가네
 天下知無對 천하에 비결할 데 없으니
 嶠南觀最宗 교남에서 경관 으뜸이라네
 那將韋偃筆 어찌 위언³⁵⁾의 붓으로도
 爲爾善形容 너를 잘 그려낼 수 있을지

○ 지현(知縣) 김용묵(金用默)이 반송(盤松)을 읊은 시
 南來誰可語 남쪽 고을에서 누구와 예기 나눌까
 瑜寺有奇松 유가사에 기이한 소나무 있네네
 棲頂千年鶴 나무 꼭대기에 천년의 학 살고
 蟠空萬尺龍 허공에 만척의 용 엮드려 있네
 謾哦羞俗吏 부질없이 읊조리니 속리에게 부끄럽고
 遙嘆惱禪宗 아득히 드리내니 선승들 괴롭히네
 造化應全物 조물주는 응당 사물 온전케 하는데
 樵斤幸見容 도끼를 다행히도 용납하였네

○ 감사 조인영(趙寅永)이 판상시(板上詩)에 차운한 시³⁶⁾
 高秋行縣節 한가을에 고을에 부임하여
 斜日訪山鞍 석양에 이 산을 찾아왔네
 先蹟要伸慕 선현 자취 흠모하니
 官途暫借閒 벼슬길 잠시 한가롭네
 樓尊攀百尺 높은 누각 백 척이나 솟아 있고
 松鬱蔭千間 울창한 소나무 천 칸에 녹음 짙네

35) 위언(韋偃): 당나라 때 화가. 산수(山水)와 인물을 잘 그렸고 특히 송석(松石)에 뛰어났다.

36) 雲石遺稿에 <瑜伽寺 敬次曾王考韻>으로 실려 있다.

寶刹三韓古 옛날 삼한시대 보배로운 고찰
雲蘿幾暑寒 녁쿨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 진사 조병구(趙秉龜)가 판상시에 차운한 시
寺古留先蹟 오래된 절에는 선현 자취 남아 있고
松盤覆客鞍 반송에는 나그네 말안장 덮여 있네
數僧今守護 몇몇 승려들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
六世此遊閒 오랫동안 여기서 한가로이 노닐었지
翠蓋承樓下 푸른 덮개는 누각 아래로 이어지고
朱籠在壁間 붉은 등롱(燈籠)은 벽 사이에 있네
却疑龍所化 아마도 용이 변화를 부린 듯
雷雨夜來寒 뇌우 내려 밤에 차갑네

칠곡부읍지(漆谷府邑誌)

칠곡도호부

서울까지 650리로 이레 가는 거리이다. 남쪽으로 감영(監營)까지 30리로 만나
절 가는 거리이다. 남쪽으로 통영까지 4백리로 닷새 가는 거리이다. 동쪽으로 병영
(兵營)까지 270리로 사흘 만나절 가는 거리이다. 남쪽으로 수영(水營)까지 310리
로 나흘 가는 거리이다. 남쪽으로 동래까지 320리로 나흘 가는 거리이다. 동북쪽
으로 의흥(義興)과의 경계까지 50리이며, 동쪽으로 대구(大丘)와의 경계까지 15

리이다. 남쪽으로 대구와의 경계까지 10리이며, 북쪽으로 인동(仁同)과의 경계까지 30리이다. 서쪽으로 성주(星州)와의 경계까지 40리이며, 북쪽으로 군위(軍威)와의 경계까지 50리이다.

방리(坊里)

동북면(東北面): 관문(官門)에서 10리이다. 소속된 동리는 4곳으로 소흘리(所屹里) 대둔리(大屯里) 산당리(山堂里) 용곡리(龍谷里)이다.

서북면(西北面): 관문에서 20리이다. 소속된 동리는 8곳으로 칠전리(七田里) 어거동(於巨洞) 우암리(牛巖里) 강당리(講堂里) 지부산리(支夫山里) 지동리(枝洞里) 남원리(南原里) 동명원리(東明院里)이다.

하북면(下北面): 관문에서 20리이다. 소속된 동리는 5곳으로 원당리(元堂里) 소조리(所造里) 고도리(高道里) 송림리(松林里) 증곡리(甞谷里)이다.

팔거면(八莒面): 관기(官基)이다. 소속된 동리는 6곳으로 동일리(東日里) 아시동(峨詩洞) 교촌리(校村里) 팔거창리(八莒倉里) 천서리(川西里) 길마당리(吉馬堂里)이다.

퇴천면(退川面): 관문에서 15리이다. 소속된 동리는 9곳으로 역리(驛里) 양지리(陽地里) 가산리(佳山里) 두전리(豆田里) 대천리(帶川里) 구천리(龜川里) 비노곡리(非老谷里) 완전리(莞田里) 국우리(國優里)이다.

문주면(文朱面): 관문에서 15리이다. 소속된 동리는 4곳으로 대전리(大田里) 장태곡리(長台谷里) 문주리(文朱里) 사수리(泗水里)이다.

이언면(伊彦面): 관아에서 20리이다. 소속된 동리는 5곳으로 머곡리(尔谷里) 납곡리(納谷里) 기산리(丌山里) 오동리(梧桐里) 이언리(伊彦里)이다.

상지면(上枝面): 관문에서 20리이다. 소속된 동리는 5곳으로 대촌리(大村里) 석문리(石門里) 사례리(乍禮里) 심수리(深水里) 수정리(水晶里)이다.

도촌면(道村面): 관문에서 30리이다. 소속된 동리는 5곳으로 불동리(佛洞里) 도촌리(道村里) 완정리(完亭里) 태평리(太平里) 송정리(松亭里)이다.

노곡면(蘆谷面): 관문에서 40리이다. 소속된 동리는 4곳으로 대곡리(大谷里) 강창리(江倉里) 송라리(松蘿里) 보병동리(步兵洞里)이다.

파며면(巴拏面): 관문에서 40리이다. 소속된 동리는 5곳으로 석전리(石田里) 고

정리(古亭里) 매원리(梅院里) 봉계리(鳳溪里) 신촌리(新村里)이다.[장원면(壯元面)이라고도 한다. 문과 생원시 진사시에 장원한 자가 남이 배출되었기에 명명된 것이다.]

산성면(山城面): 관문에서 30리이다. 소속된 동리는 3곳으로 산성리(山城里) 남창리(南倉里) 북창리(北倉里)이다.

【도로】

금호진(琴湖津) 북쪽에서부터 소야현(所也峴)까지 40리는 대로(大路)이고, 사수진(泗水津)에서부터 서쪽 혈암진(穴巖津)까지 40리는 중로(中路)이고, 관문에서부터 서쪽 강창리(江倉里)까지 40리는 중로(中路)이다. 관문에서부터 군위 효령(孝令)과의 거리는 60리로 대로이고, 관문에서부터 동북쪽으로 지사(地思) 무현(無峴)과의 거리는 50리로 중로이다.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신라(新羅)의 팔거리현(八居里縣)[비치장리(比恥長里)라고도 하며 또 인리(仁里)라고도 함]이다.景德왕(景德王) 때 팔리(八里)라고 이름을 바꾸고 수창군(壽昌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高麗) 초에 팔거로 고쳤으며, 그 뒤 ‘거(居)’라는 음의 글자가 ‘거(莒)’자로 바뀌어 팔거(八莒)라고 불렀다. 현종(顯宗) 9년(1018)에 성주(星州)에 소속시키고 칠곡(漆谷)으로 이름하였다. 조선 인조(仁祖) 경진년(1640)에 가산(架山)에 성을 쌓았는데, 산성과 고을 관아의 거리가 조금 멀었기 때문에 마침내 칠곡도호부(漆谷都護府)를 두었다.

【진관(鎭管)】

현(縣)이 넷으로 군위(軍威) 의흥(義興) 하양(河陽) 신녕(新寧)이다. 기묘년(1879)에 조령(朝令)으로 팔거(八莒)의 옛터로 옮기고 별장(別將)을 가산성(架山城)에 두었다.

【군명(郡名)】

칠곡(漆谷) 가산(架山) 기성(箕城) 칠성(漆城) 거성(莒城)

【형승(形勝)】

삼층암(三層巖): 내성(內城) 북쪽 모퉁이에 있다. 층벽이 우뚝 솟아 그 높이가 만 길이다. 원숭이들이 근심스레 기어오르고 나는 새들이 위태로이 깃들여 사니 이른바 한 사람이 창을 잡고 있으면 만 명의 군사들도 앞으로 올 수 없다고 한다.

가암(架巖): 내성 서쪽에 있다. 그 모습이 마치 깎아놓은 듯하였다. 위에는 천여 명이 앉을 만하다. 바위 가운데에 굴이 있고, 움푹한 굴 가운데에는 철우(鐵牛)와 철마(鐵馬)가 있다. 이곳에 올라가 멀리 내려다보면 사망이 탁 트여 있다. 여러 봉우리들이 바둑알과 별처럼 널려 있다. 이전 읍지를 살펴보면 산천 항목에 실려 있는데 형승 항목으로 옮겨 수록하였다.

발암(鉢巖): 부의 서쪽 20리 상지방에 있다. 암벽이 우뚝 솟아 계곡을 굽어보고 있다. 사양서원(泗陽書院)이 그 아래에 있다. 열녀 이씨가 사절(死節)한 곳으로 그 사적이 쌍열비(雙烈碑)에 보인다.

【성지(城池)】

내성(內城): 곧 이전의 읍기(邑基)이다. 돌로 쌓았다. 둘레가 4710보(步)이며, 여장(女牆)이 1887첩(堞)이다. 동문·서문·북문 3개의 성문 및 8개의 암문(暗門, 비밀통로)가 있다. 성 안에 9개의 연못과 21개의 우물이 있다.

인조 경진년(1640)에 관찰사 이명웅(李命雄)이 나라에 보고를 올리고 쌓은 것이다.

이원정(李元禎)의 「가산성중수기(架山城重修記)」는 다음과 같다.

“아! 예전부터 우리 선왕은 징계하여 삼가려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음우(陰雨)³⁷⁾의 대비를 잊지 않아 이 못을 파고 이 성을 쌓도록 하고는 고을을 설치

37) 음우(陰雨): 외적의 침입을 비유한 것이다.

하였다. 전후의 사또들은 모두 탁월한 능력과 뛰어난 공적이 있는 사람을 뽑았다. 지금의 사또 이지형(李枝馨)은 본관이 전의(全義)로 남포감무(藍浦監務)로서 추천 받아 임명되었다. 이지형 사또가 부임한 뒤에 선정이 베풀어지고 은혜가 두루 미치니, 백성들은 즐겁게 일하였다. 이 때 성을 쌓은 기묘년(1639)에서 겨우 10년이 지났을 뿐인데, 병영과 관아 건물이 거의 다 허물어져 온전히 남아 있는 건물이 없었다. 갑작스런 변고를 당해도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나라에서 힘준한 산성을 설치하는 본래 뜻이 어찌 다만 이러했겠는가?

대개 땅이 첩첩 산중에 있고 산성이 산꼭대기에 있어 매년 여름철에도 하늘의 해를 볼 수 있는 날이 드물었다. 구름과 안개가 집안까지 피어올라 이끼가 벽에 생겨나니, 서까래가 썩고 건물이 허물어지는 것은 형세상 당연하였다. 또 처음 축성할 때 완공하지 못하고 지휘관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성터의 개척이 미진하였다.

남쪽은 뾰족한 봉우리가 대치하고 있어 산성 형세의 허실을 엿볼 수 있다. 북쪽은 성가퀴가 구불구불하여 오르는 데 힘을 낭비하고 있다. 이것은 모두 축성할 때 일 처리가 미흡한 결과이니, 지금 일을 처리할 때 마땅히 먼저 해야 할 점이다. 더욱이 그 때 이미 산성이 완성되었는데 지금 쓰지 못하게 되었으니, 허물어진 산성을 맡은 사람으로서 고쳐 새롭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또가 여러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칠곡이라는 고을은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어 적을 제압하여 승리할 수 있는 형세가 우리나라에서 으뜸이다. 주상은 견고한 산성으로 믿고, 조정에서는 힘준한 요새로 의지하고 있다. 그런데 장수라는 자가 일하는 수고를 꺼려하고 방비의 중요함을 생각하지 않아 그 건물을 폐허로 만들고 그 산성을 황폐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비록 시간이 부족하고 노역이 크다고 하더라도 어찌 백성들에게 고통을 끼칠 수 있겠는가.”

마침 본관이 완산(完山)인 이만(李曼)이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여 관방(關防)의 수비와 군비(軍備)의 확보에 부지런히 더욱 관심을 기울였다. 관찰사는 사또와 의논하여 마음을 모아 조정에 보고하였다. 도첩(度牒)을 원하는 승려를 모집하여 군사 훈련의 수고를 면제해 주니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공사가 끝났지만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였다.

건물이 모두 백여 칸에 이르렀으니, 중영(中營) · 장대(將臺) · 문루(門樓) · 보루(堡

壘)·주방·창고이다. 소나무는 성질이 물러서 쉽게 썩기 때문에 아울러 단단한 상수리나무를 사용하였다. 연기와 불로 구름과 안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승장(僧將)을 여러 군데로 나누어 산성을 지키도록 하였다. 남쪽으로 굽은 성벽을 설치하여 봉우리로 이어지게 하고 작은 누각을 설치하였으니, 방어의 형세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북쪽으로 예전에 쌓은 산성을 고쳐 그 안은 넓히고 그 길이는 줄였으니, 방어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이다. 붉은 단청은 빛나고 하얀 성가퀴는 구름에 닿아 높이 서 있는 듯 길게 끄는 듯 하여 아마도 하늘이 세운 듯하니, 그 얼마나 웅장한가.

사또께서는 부족한 내가 저간의 사정을 자세히 안다고 하여 기문을 지어 주기를 부탁하였으나 거칠고 서툰 글로 어찌 벽을 더럽힐 수 있겠는가.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는 이 나라에 살면서 분수에 넘치게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 윤탁(尹鐸)의 보장[保障, 울타리]을 얻어 진양(晉陽)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기로 기약하였으니 사또의 성대한 부탁을 어찌 감히 저버릴 수 있겠는가.

아! 땅과 사물의 흥망성쇠는 모두 운수 소관이다. 그 사이에 산이 있어 산성을 만들기도 하고, 산성이 있어 고을을 만들기도 한다. 고을을 만들었는데 황폐해지기도 하고, 황폐해졌다가 다시 흥성하기도 하니 각기 그 때가 있는 것이다. 산성을 다시 쌓은 공적은 필시 두 공에게서 이루어졌으니, 참으로 기다린 보람이 있었던 것이다. 이 칠곡의 토지, 성곽, 관사(館舍), 관청 건물은 사또와 관찰사를 만나서 다시 만들어지게 되었다. 훗날 감당(甘棠)의 사모함³⁸⁾이 여기에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겠는가. 뒷날 훌륭한 관리를 칭찬할 때, 이 분들을 두고 누구에게 돌리겠는가. 이러한 사실을 기록해 둘 만하므로 참람스러우나 그 대강을 적어 둔다.”

중성(中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602보이며, 성가퀴는 402첩이다. 한 곳에 성문루가 있다. 영조 신유년(1741)에 관찰사 정익하(鄭益河)가 나라에 보고를 올리고 쌓은 것이다.

38) 감당(甘棠)의 사모함: 소공(召公)의 선정에 감동한 백성들이 그가 쉬었다는 팔배나무[甘棠] 아래에서 소공을 사모하였다고 한다.

외성(外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3754보이며, 성가퀴는 1890첩이다. 성문은 한 곳이며, 문 위에는 누각이 있다. 누각의 편액은 ‘嶺南第一關防’이다. 또 북쪽·동쪽·남쪽 세 곳에 비밀통로가 있다. 숙종 경진년(1700)에 관찰사 이세재(李世載)가 나라에 보고를 올리고 쌓은 것이다.

이세재(李世載)의 기문은 다음과 같다.

“『주역(周易)』 감괘(坎卦)의 풀이에서는 단지 하늘이 만든 험준함과 땅이 만든 험준함을 말했을 뿐, 인간이 만든 험준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 후 맹자(孟子)가 비로소 언급하기를, ‘땅의 유리함은 사람들의 화합만 못하다.’ 라고 하였다. 화합한다는 것은 험준함과 상반되는 것인데, 우리가 화합을 이루면, 적이 험준하게 여기는 것이다. 우뚝 솟아 침범할 수 없는 형세가 될 것이니, 천하에 험준함이 이보다 더한 경우는 없을 것이다.

영남(嶺南)은 우리나라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산(架山)은 영남의 한 북편에 있다. 성의 크기는 남한산성(南漢山城)과 비슷하지만, 견고한 요새는 그보다 뛰어나다. 산의 높이는 금오산(金烏山)과 비슷하지만, 산의 형세는 끊어져 동쪽과 남쪽이 바로 만나는 곳으로 경상도를 굽어보고 있다. 열 사람이 막아 지키면, 만 명의 군사로도 공략하기에 부족하였다. 아래로 천생산성(天生山城)과 독용산성(禿用山城)을 굽어보면 패상(霸上)과 극문(棘門)이 아이들 장난³⁹⁾과 같으니, 참으로 이른바 천혜의 요새지라고 하겠다.

숭정(崇禎) 기묘년(1639)에 관찰사 이명웅(李命雄)이 공사를 시작하여 이듬해 경진년(1640)에 공사를 마쳤다. 남쪽 지방을 오래 지킬 계획을 세우느라 고생하며 계획한 자취가 어제의 일처럼 선명하였다. 안타깝게도 공을 이은 자들이 공의 뜻을 잘 따르지 못하고 약간의 병사로 독자적인 진(鎭)을 설치하여 좌영에 소속시키고, 봄과 가을로 번갈아 조련하며 겹하여 관장하게 할 뿐이었다. 장군은 병사가

39) 패상(霸上)과 극문(棘門)이 아이들 장난: 한나라 문제(文帝)가 세류(細柳)에 주둔한 주아부(周亞夫)의 군대를 칭찬하면서 패상(霸上)과 극문(棘門)에 주둔한 군대를 아이들 장난과 같다고 하였다.

있음을 알지 못하고, 병사는 장군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식량도도 부족하고 산성도 견고하지 못하니 어찌 위급할 때 힘을 얻기를 바라겠는가.

나는 감히 직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관찰사로서 나라를 위해서 훗날을 대비하는 계책 역시 사양할 수 없기에 장계를 올려, “형편을 잘 살펴 일을 처리하도록 하라.”는 하교를 받았다. 남문과 북문 밖에 두 개의 창고를 따로 설치하여 수만 곡(斛)의 곡식을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순영(巡營)의 아병을 여기에 소속시키고, 군위(軍威)·의흥(義興)·하양(河陽)·신녕(新寧) 네 고을의 속오군(束伍軍)으로 예전부터 이 산성에 소속된 자들을 그대로 두니, 거의 10800여 명이었다. 농한기에 산성에서 크게 모아 쓸 만하다는 점을 보이고, 징소리에 멈추고 북소리에 일어나는 절도를 알도록 한 후에 산성을 더 쌓았다. 남창(南倉) 밖 좌우산의 형세가 절로 성터가 되니 돌을 나르고 흙을 북돋우는 일을 줄였다. 3일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산성은 이미 반이나 이루어졌다. 또 영부(營府)에 소속된 자들에게 그 일을 계속하게 하여 완공하였다. 산성 밖에 산성이 있고 성문 밖에 성문이 있어, 위와 아래가 서로 호응하니 그 형세가 외롭지 않고 연이어져 서로 돌보고, 서로 지키며 서로 도와주었다. 평소에 믿을 바가 있고 변고에도 두려울 바가 없으니, 이러한 일이 어찌 작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산성은 지난 경진년(1640)에 처음 쌓았고 이번 경진년에 다시 완성하였다. 60년 세월을 돌아보면, 지혜와 계략을 갖춘 관찰사와 성을 지킨 장수가 많았다. 그런데 이명운 관찰사는 겨를이 없었던 것을 다행히 다시 실행하였으니, 저승에 있는 영령도 자신을 알아주는 자에게 벌써 감동했을 것이다. 더욱이 숨어있던 군자가 60주년이 되면 산성을 중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이 고을의 민가에 숨겨져 있다가 이제 드러났으니, 이것 역시 미리 정해져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아! 전술을 세워 적을 굴복시킬 수 없으면, 먼저 성을 지켜 스스로 보존하는 방도를 강구하는 것은 변방의 장수의 낮은 계책이다. 그러나 비록 천하가 태평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우니, 싸울 힘이 부족하면 충분하게 지켜야 한다. 불행히도 싸울 힘이 부족할 때 아무런 여지가 없다면 위험한 방도가 될 것이다. 지금의 낮은 계책이 뒷날 좋은 계책이 되지 않음을 어찌 알겠는가. 낮은 계책을 쓴다는 혐의를 피하는데 급급한 것은 멀리 내다보고 생각하는 것만 못하다. 한나라의 영평후(營平侯)⁴⁰은 일찍이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운주현(運籌軒): 별장(別將)이 주인(主人)이다. 벽 위에는 비국절목(備局節目) 26조가 걸려 있다.

○ 절제사는 군량, 무기, 내성 수축 등의 일을 주관한다. 외성(外城)은 중군(中軍)이 주관하는데 봄가을로 군사를 조련할 때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데 주장(主將)에게 아뢰고 거행한다.

○ 군병 가운데 도망갔거나 늙었거나 죽은 자를 아병(牙兵)으로 대신 정할 때는 중군(中軍)이 전담한다. 진에 속한 네 읍은 절제사가 전과 같이 검경하되 산성 군병으로 이미 영문(營門)에 속한 것은 아병과 산성군을 따지지 말고 절제사가 중영(中營)에 보고한다. 중영 또한 주장에게 아뢰고 거행한다.

○ 군량은 삼년마다 한 번 개색(改色)⁴¹⁾한다. 그 본뜻은 금년에 3분의 1을 지급하고 이듬해에 3분의 1을 지급하고 또 그 이듬해에 3분의 1을 지급하는 것이다. 삼년에 한 번 개색하는 것인데 본성 창고의 곡식은 삼년에 한 번도 나누어 지급하지 않다가 삼년의 기한에 이르러서야 수천 석의 곡식을 일시에 나누어주는 것은 자못 변고를 대비하고 근심을 방지하는 생각이 아니다. 지금부터 각 곡식을 삼분하여 3분의 1은 금년에 지급하고 3분의 1은 이듬해에 지급하고 3분의 1은 그 이듬해에 지급한다. 세 번에 나누어 지급하고는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정해진 법식으로 삼는다.

○ 곡식을 환상할 때에 비록 감영 군관을 정하여 보내나 감영 군관은 한 때 일을 처리하는데 불과하고 이미 항상 머무를 일이 없으니 노비와 백성을 검찰할 때 형세상 실로 일을 해결하기 어렵다. 부지런하고 신중한 자를 감관으로 정하여 남쪽의 창고를 아울러 검찰하고 삭포(朔布)와 요미(料米)는 한결같이 군관의 예에 따른다. 매달 사목(射木) 2필, 양미찬가(糧米饌價)로 쌀 10말을 선가미(船價米)로 지급한 뒤 첩서로 보고하고 회감(會減)⁴²⁾할 경우에는 전담하여 검찰하게 한다.

40) 영평후(營平侯): 한나라 무제 때의 장군 조충국(趙忠國). 위엄과 지모로 적을 제압하였다고 한다.

41) 개색(改色): 올해 새 곡식이 나오면, 창고에 저장했던 묵은 곡식을 팔고 새 곡식을 사들여서 바꾸던 일. ‘색같이’라고도 함.

42) 회감(會減): 주고 받을 것을 맞비겨서 남는 것을 셈하는 것

○ 창고가 이미 세워진 뒤에 색리(色吏)와 고지기[庫子]가 마땅히 수직하여야 한다. 남한산성의 예에 따라 본부 이졸(吏卒)을 정하여 잠시라도 떠나지 않게 하면 마땅히 급료가 있을 것이다. 모미(耗米) 각 6말씩 지급하고 환상(還上)할 때에는 각 고을의 감색(監色)과 같이 거행하되 서울에서 온 민을 만한 군관을 따로 뽑아 검찰하고 나누어준다. 봉상(捧上)할 때에는 영속(營屬)을 거느리고 여러 날 묵게 되면 반드시 허다한 폐단이 있을 것이니 비록 도방자(都房子)라도 창고에 속한 공노비와 사환(使喚)을 데려가지 말아야 한다.

○ 봉상(捧上)할 때 간색(看色)⁴³⁾은 3홉들이 그릇으로 하고 낙인을 위에 찍는다. 등급이 같은 쌀은 그 실수(實數)를 모두 감영에 지급한다. 군관을 접대할 때이다.

○ 담근 장은 본부에서 관리하고 검찰하되 개색(改色)⁴⁴⁾의 법이 없을 수 없다. 삼년이 지난 뒤에 소금과 콩은 당초 담근 장의 수에 따라 봉납하되 한결같이 내성의 예에 따라 각 읍으로 하여금 개색하게 한다.

○ 활과 화살은 남한산성의 예에 따라 두 절에 나누어 두고 총섭으로 하여금 매달 점검하고 또한 본부로 하여금 관장하게 한다.

○ 높은 산꼭대기에서 살아가는 일이 어려워 승려들이 본래 많지 않다. 주지 이상을 지낸 사람들에게 다시 사찰을 건립하여 승려들을 모아들이게 하여 한결같이 원근에서 응하게 하여 부역을 없애거나 감해주되 새로 세운 절은 각각 사문(四門)의 안에 설치한다.

○ 성을 지키는데 물과 불이 가장 긴급하므로 땅의 형세를 살펴 우물을 파거나 못을 쌓는 등의 일은 절제사가 맡는다. 일찍이 쌓은 땅이 다 무너져 모두 미나리밭이 되었는데 여기에 다시 수축하며 성안 및 외성 10리 산허리에 표시하는 바위를 세워 나무꾼과 목동의 출입을 엄금하되 범하는 사람은 소나무를 범하는 죄로 다스린다.

○ 군사 보루는 없을 수 없으나 높은 산꼭대기 위에 배치하기 어려워 아직도

43) 간색(看色): 물건의 품질을 감별하기 위하여 보는 것.

44) 개색(改色): 어떤 물건을 그것과 같은 종류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

만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흠결이다. 성가퀴의 수에 따라 성가퀴 옆에서 군병을 조련할 때마다 성을 지키는 군사로 하여금 삼면으로는 담을 쌓고 위에는 임시 집으로 덮고 한 면은 통행할 수 있게 열어 한편으로는 출입을 편리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우환에 대비하며 한 번 설치한 뒤에 봄가을로 군사를 조련할 때 보수하여 무너지지 않게 한다.

○ 두 창고의 곡식을 나누어 준 뒤에 빈 섬[空石]은 그 수를 계산하여 창고 뜰에 따로 두고 수시로 성 가운데 땅에 운반하여 두되 혹 군사 보루의 임시집 덮개로 쓴다.

○ 군병들이 모이거나 환상(還上)할 때 각 읍의 군민들이 한 개의 돌덩이를 들고 올라가 각 성벽에 나누어 둔다.

○ 1년 중 봄에는 중군이 여러 읍을 순시하며 활쏘기를 시험하는데 한결같이 속오군의 예와 같이 거행하고, 가을에는 주장(主將)이 성 아래 평야에 군사를 모아 조련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조련한 뒤에는 성에 들어가거나 또 성안에서의 조련을 시행한다.

○ 군기와 군량은 순력할 때에 주장이 직접 감찰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군이 수시로 순시한다.

○ 성첩(城堞)의 군기를 수리하거나 따로 준비하는 등의 일은 중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주장에게 보고한다.

○ 성지(城池)가 영문에 소속된 뒤로 중군(中軍)과 별군관(別軍官)이 왕래하여 절로 이어지고, 군사 조련 외에 왕래하면 역참에 나가 음식을 마련하여 접대하는 등의 일을 제외하고는 십분 간소하게 하고 지인(知印) 외에는 음식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고 본부 하속들을 한꺼번에 불러오게 한다.

○ 본영의 군기를 가산산성으로 옮긴 뒤에는 훼손에 따라 보수하지 않을 수 없고 성기(城機)와 보루(堡樓)도 또한 마땅히 수리해야 하니 허다한 물력을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칠곡을 나누어 지키는 예비 병력 17명과 사부(射夫) 34명은 산성군과 원방군(元防軍)에 소속시킨다. 일체의 수포(收布)는 비는데 따라 대신 정한다. 절제사가 관장하여 수리하고 보수할 때 주장에게 보고하여 가져다 쓰는 바탕으로 삼게 한다.

○ 산성이 영문에 소속된 뒤로는 곧 별영이 되었으니 칠곡의 백성 또한 영문

아래의 백성이다. 폐단이 되는 것은 따로 살펴 민심을 위한 뒤에야 뒷날의 원대한 방도로 삼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나누어 주는 일은 한결같이 대구의 예에 따라 공목(公木)⁴⁵⁾을 지정[卜定]⁴⁶⁾하거나 작미(作米)로 돌리지 말고, 왜료(倭料)로 바로 마련하여 본부의 폐단을 덜도록 한다.

○ 송림사(松林寺)라는 절은 성 아래에 있어 관리들의 왕래가 이어져 끊이지 않아 길가의 역사(驛舍)와 다름이 없다. 뿐만 아니라 성기(城機)를 수리할 때에 항상 도와주는 역할이 있으니 이번에 창고를 세울 때에도 많은 공로가 있어 따로 보호하지 않을 수 없다. 영문에서의 징수, 종이를 바치는 일에 원근에서 와 준다. 승군을 일체 정하지 않고 남아 있는 승려들이 안전한 땅으로 삼도록 한다.

○ 남창과 북창을 인가가 희소한 곳에 따로 설치하면 백성들을 모집해야 하는데 새로 창건한 뒤에는 반드시 권장하는 방도가 있어야 많이 즐거이 달려갈 것이다. 공천(公賤)과 사천(私賤)은 속오군(東伍軍)에서 줄여주고 연역(煙役)⁴⁷⁾을 면제하고 양인(良人)은 군보(軍堡)를 통괄하는 등의 일을 정하지 말고 한결같이 성가운데의 토졸(土卒)⁴⁸⁾이 하는 일과 같이 하면 창고 건물을 수호하는데 착실하게 될 것이다.

○ 고성(固城)의 공영(公營) 둔답(屯畓)은 4결 4부 4속, 김해(金海) 둔답은 2결 55부 1속, 울산(蔚山) 둔답은 1결 5부 2속, 칠원(漆原) 둔답은 15부, 하동(河東) 둔답은 50부 8속이다. 가산에 옮겨 소속시킨 자호부(字號夫) 수는 중기(重記) 가운데에 아울러 기록한다. 절제사가 말아 일을 해결하는 감관과 색리를 별도로 정하여 수호하고 자주 문서로 보고한다. 높은 산꼭대기에는 고기와 소금이 가장 귀하므로 곡물로 소금을 바꾸기 위하여 강으로 올라가 소금을 장 담그는데 쓰며 나머지는 창고에 남겨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게 한다. 소금을 바꾸는 일은 비록 나라에서 금하지만 이것은 병통(兵統) 감관(監官)이 싼 값으로 억지로 사는 것과는 다르다. 한결같이 개인 상인의 예에 따라 매매한다. 소금을 바꿀 때는 영문에

45) 공목(公木): 공무(公貿)에 치르는 무명

46) 지정[卜定]: 공물(貢物)을 비롯하여 나라나 관서에서 필요한 물품과 인력 등을 지방의 고을에 분담시켜 납부하게 하는 것

47) 연역(煙役): 민가(民家) 매호(每戶)에 부과하는 잡역(雜役)

48) 토졸(土卒): 해당 지역민으로 이루어진 병사

보고하고 공문을 받은 후에 바꾸며, 배가 강으로 올라 갈 때에는 반드시 소모되는 비용이 많아 영선(營船) 2척도 나누어 사용하게 한다. 보수하는 등의 일은 본부에서 전담하여 처리하고 또한 영선에 쌀을 내려주는데 나누어 실을 때 전에 허락한 대로 싣고 그 배삯은 해마다 상창(上倉)에서 바꾼다.

○ 소속된 공사(公私) 노비 22구(口)는 영안(營案)에 기록한 후에 남창(南倉)에 이송하는데 창고를 지키게 하거나 고지기로 정하기도 하며 영군관(營軍官) 및 중군 왕래 때에 심부름을 시키고 본부에서 절대로 책임을 추궁하지 말고 보존하는 곳으로 삼는다.

○ 성을 설치한 뒤 이미 남북쪽 암문(暗門)을 두었으니 마땅히 지키며 열고 닫는 사람을 두어야 하고, 이미 지키는 사람을 있으면 요포(料布)가 없을 수 없다. 매달 남문지기에게 쌀 4말, 암문지기 5명에게 쌀 3말씩 영원히 정해진 법식으로 삼는다. 새로 세운 산성에서는 살아가기가 어려워 한 사람으로 항상 창고지기를 정할 수 없으니 문지기들은 돌아가며 쉬도록 한다.

○ 도총섭(都摠攝)이 네 산성을 겸하여 관장하되 세 산성은 승장(僧將)이 총섭(摠攝)을 접대하는데 별장(別將)이 중군(中軍)을 접대하는 예에 따라 시행한다.

또한 감영절목 11조가 있다.

○ 공채(公債)의 10분의 2는 이자에서 취하는데 이것이 모든 도에 통행되는 법규이다. 지금 영부(營府)에서 주는 공채는 그 법이 한결같지 않아 10분의 3이나 10분의 5를 취하여 자못 제한이 없다. 창고의 이속(吏屬)들이 이것으로 간사한 일을 일으켜 백성들이 많이 파산하니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 일을 일체 막고 다시 공채를 나누어 주지 못하게 하여 그 폐단을 제거한다. 각 창고의 물력은 달리 나올 데가 없어 오로지 이자로써 관아[公下]의 수요를 삼는 것은 지금 갑자기 바꿀 수 없으므로 영부(營府) 각 창고에서 의 이자는 모두 10분의 2를 정식으로 하여 시행한다.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들이 혹 정식을 따르지 않고 전과 같이 지나치게 이자를 불리다가 적발되면 공적 재물을 훔친 죄로 다스린다.

○ 영부에서 공채를 거두는 법이 만약 엄하게 정식을 가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가 이웃과 친족에 미친다. 나누어 줄 때는 사람마다 그 빈부를 헤아리되 비록 부귀한 사람이라도 20냥을 넘지 않게 한다. 착실한 보증인을 가려 감관과 색리와 고자

를 불러 명백하게 주어야 거짓으로 수표를 만들어 중간에서 함부로 받는 폐단이 없을 것이고 거두어들일 때도 또한 거두기 어려운 폐단이 없을 것이다. 또 공채를 준 것이 부실할 경우 보증인이 모두 징수하고, 공채를 잘못 주어 폐단이 있으면 나누어줄 때 감관 색리 고자가 징수한다.

○ 공적 재물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 부득이 친족에게 징수하는 일이 있으면 또한 마땅히 정해진 기한을 두고 먼저 그 빚진 자의 재산을 적몰한다. 농민으로서 법대로 납부할 수 없거나 혹 도망하여 징수할 데가 없는 경우에는 부자와 형제에게 징수하고 삼촌과 숙질도 감당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의 내외 족당을 구분해서 징수하되 동성은 5촌으로 제한하고 이성은 4촌으로 제한하고 처족은 형제 외에는 일체 거론하지 않는다.

○ 수성고(修城庫)와 진휼고(賑恤庫) 두 창고의 곡물이 거의 2만여 섬이 넘는다. 매년 창고를 기울여 다 나누어 줄 때 쪽정리와 알곡이 서로 섞여 봉상함에 근심하고 원망함이 많아 이후에는 절반은 남겨 두어 한결같이 법대로 시행해서 간소한 습속을 막아 백성들의 폐단을 제거한다.

○ 환곡을 나누어 줄 때 받기를 바라지 않고 빼돌린 곡식을 색리와 고자와 창줄 등이 대신 받았다. 위에 바칠 때에 혹 도리어 당초 빼돌림을 당한 사람에게 징수하고 혹 관계없는 이웃과 친족들에게 피해가 미쳤는데 각 창고가 모두 그러하였다. 해마다 이런 일이 없지 않아 혹 그 흉년을 바라고 바침을 그만두고는 오래 포흠(逋欠)⁴⁹⁾하니 실로 매우 통탄스럽다. 이후에는 만약 범하는 자가 있으면 해당 감관과 색리에게는 형벌과 징수를 추가하고 당초에 받기를 바라지 않은 자와 관계없는 이웃과 친족에게는 혼탁하게 해를 입는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

○ 환곡을 바칠 때 색락(色落)⁵⁰⁾은 원래 정해진 수가 없는데 한 섬에 거의 17, 18말을 바친다. 이것으로 미루어보면 색락의 지나침은 갑자년 가을에 환곡을 바칠 때부터 시작되었다. 색곡(色穀)⁵¹⁾ 1되, 낙정(落庭)⁵²⁾ 3되를 영원한 법식으

49) 포흠(逋欠): 포(逋)는 조세의 포탈이고, 흠(欠)은 관청의 재화를 사사로이 소비하여 부족을 초래하는 것을 말함.

50) 색락(色落): 환곡(還穀)을 받을 때에 간색(看色)이나 모자라는 쌀을 채우기 위하여 얼마쯤 가외로 더 받아들이던 곡식. 색모(色耗).

51) 색곡(色穀): 간색미(看色米). 품질의 좋고 나쁨을 알아보기 위해서, 견본(見本) 삼

로 한다. 이후에 각 고자와 색리에게 낙기(落器)와 낙인(烙印)을 주고 이것에 따라 시행한다. 만약 금령(禁令)에 따르지 않고 전과 같이 지나치게 받으면 해당 고자, 감관, 색리는 각각 별도로 엄한 형벌을 가하여 징계한다.

○ 각 창고에서 공채를 주고 환곡을 나누어 준 후 남은 것은 곧 창고에 돌려주어 남겨둘 때 생기는 폐단을 막는다.

○ 영문과 본부 각 창고의 돈과 배와 곡식, 각종 항목을 지출할 때 흠쳐 먹으면 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는 그 많고 적음에 따라 경중을 나누어 형벌을 가한다. 이속(吏屬)은 영원히 이안(吏案)에서 삭제하고 귀양을 보내거나 강등시키고 부리는 종이라면 영원히 부리지 않는 게 제일이다. 공물을 지키는 것은 감관과 색리와 고자에 달려 있어 원래 서로 다름이 없으니 감관이 하는 바를 색리와 고자가 알지 못할 리가 없다. 세금을 포탈하여 죄를 지은 자 외에는 원래 죄를 논하고 아울러 징계할 일이 없다. 색리와 고자가 함께 숨겨 한 창고 안에 폐단이 만 가지이니 창고에 남은 돈이 백에 하나도 있지 않은데도 고자의 무리들이 편안하게 여겨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어찌 감관과 색리와 고자를 임명하여 함께 창고를 지키려는 본뜻이라 하겠는가. 이후에는 한 사람이라도 죄를 지으면 해당 창고에서 임무를 맡은 모든 자들을 징계한 뒤에 실정을 알고도 고하지 않은 죄로 다스린다.

○ 각 창고의 감관이 교체된 뒤에는 전임이 바친 바를 신임이 분급(分給)하고 전임이 분급한 것을 신임이 바친다. 전임이 농간했다면 신임이 모를 리 없는데 안면과 인정에 얽매어 덮어두고 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모두 죄를 따진다.

○ 각 창고의 돈과 곡식을 출납하는 것은 오로지 색리와 고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색리와 고자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무겁다. 그 노역자를 차출할 때 우두머리들이 일시에 뇌물의 많고 적음, 인정과 안면의 두터움과 얇음에 따라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가 성실한가를 돌아보지 않고 구차하게 차출했기 때문에 관아의 창고가 유실되는 근심과 가난한 백성들은 도망가는 폐단이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다. 각 해당 부서 등에서는 혹 포함(逋欠)이 있으면 그 우두머리들에게 모두 징수하고 징계하여 후인들도 알도록 한다.

아 일부를 보던 쌀.

52) 낙정(落庭): 낙정미(落庭米). 말이나 되질을 할 때 땅에 떨어져 흩어지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받던 쌀.

【관직(官職)】

도호부사(都護府使): 무관(武官) 3품이다.

대구진관(大邱鎭管)

병마동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

가산수성장(架山守城將)

【산천(山川)】

가산(架山): 부의 북쪽 30리에 있다. 곧 별장이 거주하는 곳이다.

팔공산(八公山): 부의 동북쪽 30리 대구와의 경계에 있다. 곧 가산의 주맥이다.

도덕산(道德山): 부의 동북쪽 10리에 있다. 공산에서 뻗어 나와 정현(鼎峴)을 이룬다.

정현(鼎峴): 부의 동쪽 5리 대구와의 경계에 있다. 도덕산에서 뻗어 나온다.

소야현(所也峴): 부의 북쪽 30리에 있다. 가산에서 떨어져 나와 소학산(巢鶴山)을 이룬다.

소학산(巢鶴山): 부의 북쪽 30리 인동(仁同)과의 경계에 있다. 가산에서 남쪽으로 뻗어 나와 건령산(建靈山)을 이룬다.

건령산(建靈山): 부의 북쪽 30리에 있다. 소학산에서 남쪽으로 구불구불 뻗어 나와 녹봉(鹿峰)을 이룬다.

녹봉(鹿峰): 부의 서북쪽 20리에 있다. 건령산에서 떨어져 나온 산줄기이다.

왕산봉(王山峯): 부의 서쪽 25리에 있다. 소학산에서 뻗어 나왔다. 속전에, 고려 태조(太祖)가 견훤(甄萱)에게 패하여 이 산에 머물렀는데 여러 장수들이 승전을 알려왔기에 ‘왕산봉’이라 명명했다고 한다. 산 아래에 태평촌(太平村)이 있다.

금호강(琴湖江): 부의 남쪽 15리 대구와의 경계에 있다. 영천(永川) 하양 땅에서 흘러 사수(泗水)를 이루고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사수(泗水): 부의 서남쪽 18리에 있다. 곧 금호강의 하류로 이 물이 모여 모가연(慕可淵)을 이룬다. 모가연 가에 바위가 있고, 바위 가에는 조어대(釣魚臺)가 관어대(觀魚臺)가 있으니 한강(寒岡) 정구(鄭述)가 거닐던 곳이라고 한다.

소야강(所也江): 부의 서쪽 40리에 있다. 태백산(太白山) 황지(黃池)에서 흘러 나오니 곧 낙동강의 하류이다. 공암진(孔巖津)이라고도 하고 고도진(孤棹津)이라

고 한다. 고려 배열부(裴烈婦)가 사절한 곳이다.

팔거천(八莒川): 부중(府中)의 소대천(所帶川)이다. 소야현에서 흘러나와 가산의 동남쪽 물줄기와 팔거(八莒) 남쪽에서 합쳐져 금호강으로 흘러들어간다.

매원천(梅院川): 부의 서쪽 30리에 있다. 소학산에서 흘러나와 서남쪽 낙동강으로 들어간다.

상지천(上枝川): 부의 서쪽 15리에 있다. 수정동(水晶洞)에서 흘러나와 법곡계(法谷溪)와 합쳐져 금호강으로 흘러들어간다.

【성씨(姓氏)】

도(都) · 현(玄): 본관은 팔거

이(李): 본관은 광주(廣州)

정(鄭): 본관은 동래

윤(尹): 본관은 칠원

송(宋): 본관은 야로

조(趙): 본관은 한양

이(李): 본관은 벽진

이(李): 본관은 덕산

배(裴): 본관은 달성

조(曹): 본관은 창녕

유(柳): 본관은 문화

이(李): 본관은 전의

황(黃): 본관은 창원

김(金): 본관은 안동

이(李): 본관은 광주(光州)

이(李): 본관은 합천

노(盧): 본관은 안강

금(琴): 본관은 봉화

김(金): 본관은 光州

강(姜): 본관은 진주

이(李): 본관은 성산
은(殷): 본관은 행주
한(韓): 본관은 청주
우(禹): 본관은 단양
장(張): 본관은 창녕
양(楊): 본관은 청주
김(金): 본관은 월성
김(金): 본관은 삼척
최(崔): 본관은 영천
소(蘇): 본관은 진주
윤(尹): 본관은 과평
신(申): 본관은 평산
배(裵): 본관은 성주

【호구(戶口)】

원호(元戶)는 3820호이다. 남자는 7802명이며, 여자는 7822명이다.

【풍속(風俗)】

검소함을 좋아하며, 순박함과 부지런함을 숭상한다.

【능침(陵寢)】

없음

【단묘(壇廟)】

시작단(社稷壇): 부의 북쪽 1리에 있다.

문묘(文廟): 관아 북쪽에 있다.

성황단(城隍壇): 부의 북쪽 1리에 있다.

여단(厲壇): 부의 남쪽 1리에 있다.

사양서원(泗陽書院): 부의 서쪽 15리 상지방에 있다. 숙종 갑술년에 창건하였다.

한강 정구(鄭述) 선생을 제향하고, 석담 이윤우(李潤雨) 선생을 종향하였다. 서원은 발암(鉢巖) 아래에 있다.

녹봉정사(鹿峰精舍): 부의 서쪽 15리 녹봉 아래에 있다. 가정(嘉靖) 신유년(1561)에 성주목사(星州牧使) 황준량(黃俊良)선생과 교수(教授) 덕계 오건(吳健)선생이 고을 사람들과 더불어 창건하였다. 양몽재(養蒙齋) 명선재(明善齋) 양호루(養浩樓) 관물대(觀物臺) 시습재(時習齋) 천연지(天淵池)가 있었는데 모두 퇴계선생이 명명하여 편액에 글씨를 써서 보내왔다. 곁에 승사(僧舍)를 두어 제향할 곡식을 맡아 선비들에게 바치게 하였다. 퇴계의 시가 있으니 제영(題詠) 항목에 보인다.

【공해(公廨)】

객관(客館), 아사(衙舍)

【제언(堤堰)】

유등포제(柳等浦堤) 부의 북쪽 15리 서북방(西北坊)에 있다. 둘레는 1200척이며, 물의 깊이는 5척이다.

판교제(板橋堤) 부의 북쪽 15리 하북방(下北坊)에 있다. 둘레는 330척이며, 물의 깊이는 5척 또는 6척이다.

상지제(霜池堤) 부의 동북쪽 5리 팔거방(八莒坊)에 있다. 둘레는 1210척이며, 물의 깊이는 9척이다.

접지제(接池堤) 부의 동북쪽 10리 팔거방에 있다. 둘레는 666척이며, 물의 깊이는 4척이다.

덕대제(德大堤) 부의 동북쪽 10리 팔거방에 있다. 둘레는 308척이며, 물의 깊이는 3척이다.

안양제(安養堤) 부의 북쪽 2리 팔거방에 있다. 둘레는 1050척이며, 물의 깊이는 4척이다.

풍야제(風野堤) 부의 동쪽 7리 퇴천방(退川坊)에 있다. 둘레는 370척이며, 물의 깊이는 5척이다.

정동제(鼎洞堤) 부의 동쪽 7리 퇴천방에 있다. 둘레는 560척이며, 물의 깊이는

4척이다.

운암제(雲巖堤) 부의 동쪽 6리 퇴천방에 있다. 둘레는 503척이며, 물의 깊이는 5척이다.

주마제(主馬堤) 부의 남쪽 10리 문주방(文朱坊)에 있다. 둘레는 377척이며, 물의 깊이는 5척이다.

고평제(高平堤) 부의 서쪽 1리 퇴천방에 있다. 둘레는 1330척이며, 물의 깊이는 5척이다.

모동제(茅洞堤) 부의 동쪽 10리 퇴천방에 있다. 둘레는 450척이며, 물의 깊이는 5척이다.

세동제(細洞堤) 부의 동쪽 7리 퇴천방에 있다. 둘레는 453척이며, 물의 깊이는 6척이다.

이거제(泥渠堤) 부의 동쪽 10리 퇴천방에 있다. 둘레는 351척이며, 물의 깊이는 5척이다.

광야제(廣野堤) 부의 남쪽 12리 문주방에 있다. 둘레는 1591척이며, 물의 깊이는 4척이다.

사수제(泗水堤) 부의 남쪽 15리 문주방에 있다. 둘레는 226척이며, 물의 깊이는 3척이다.

오곡제(吾谷堤) 부의 남쪽 15리 이연방에 있다. 둘레는 1502척이며, 물의 깊이는 7척이다.

오동제(梧洞堤) 부의 서쪽 15리 이연방에 있다. 둘레는 2061척이며, 물의 깊이는 4척이다.

유곡제(楡谷堤) 부의 서쪽 15리 상지방(上枝坊)에 있다. 둘레는 374척이며, 물의 깊이는 4척이다.

천곡제(川谷堤) 부의 서쪽 15리 상지방에 있다. 둘레는 1천 40척이며, 물의 깊이는 5척이다.

도당제(陶唐堤) 부의 서쪽 20리 상지방에 있다. 둘레는 400척이며, 물의 깊이는 3척이다.

운정제(雲亭堤) 부의 서쪽 19리 상지방에 있다. 둘레는 798척이며, 물의 깊이는 5척이다.

불동제(佛洞堤) 부의 서쪽 30리 도촌방(道村坊)에 있다. 둘레는 410척이며, 물의 깊이는 4척이다.

도감제(都監堤) 부의 서쪽 27리 도촌방에 있다. 둘레는 770척이며, 물의 깊이는 5척이다.

송현제(松峴堤) 부의 서쪽 28리 도촌방에 있다. 둘레는 1440척이며, 물의 깊이는 6척이다.

이현제(梨峴堤) 부의 서쪽 25리 도촌방에 있다. 둘레는 1404척이며, 물의 깊이는 4척이다.

서송현제(西松峴堤) 부의 서쪽 25리 도촌방에 있다. 둘레는 600척이며, 물의 깊이는 5척이다.

태평제(太平堤) 부의 서쪽 28리 도촌방에 있다. 둘레는 620척이며, 물의 깊이는 5척이다.

지동제(池洞堤) 부의 서쪽 25리 도촌방에 있다. 둘레는 536척이며, 물의 깊이는 5척이다.

지리제(知理堤) 부의 서쪽 30리 蘆谷坊에 있다. 둘레는 740척이며, 물의 깊이는 4척이다.

성당제(聖堂堤) 부의 서쪽 30리 노곡방에 있다. 둘레는 740척이며, 물의 깊이는 4척이다.

수향제(水向堤) 부의 서쪽 40리 파며방(巴脉坊)에 있다. 둘레는 1540척이며, 물의 깊이는 4척이다.

고정제(古亭堤) 부의 서쪽 38리 파며방에 있다. 둘레는 1020척이며, 물의 깊이는 7척이다.

매원제(梅院堤) 부의 서쪽 36리 파며방에 있다. 둘레는 1500척이며, 물의 깊이는 5척이다.

봉암제(鳳巖堤) 부의 서쪽 35리 파며방에 있다. 둘레는 544척이며, 물의 깊이는 6척이다.

사라제(沙羅堤) 부의 서쪽 30리 도촌방에 있다. 둘레는 3600척이며, 물의 깊이는 9척이다.

신축(新築)

숙적제(宿赤堤): 부의 서쪽 15리 상지방에 있다.

영청제(永淸堤): 부의 서쪽 20리 이언방에 있다.

금성제(琴聲堤): 부의 서쪽 3리 퇴촌방에 있다.

신금제(新今堤): 부의 서쪽 3리 퇴촌방에 있다.

죽현제(竹峴堤): 부의 서쪽 30리 파며방에 있다.

묵현제(墨峴堤): 부의 서쪽 35리 파며방에 있다.

지동제(枝洞堤): 부의 북쪽 25리 서북방에 있다.

－신축이라고 세금을 감해주지 않기에 둘레와 깊이를 기록하지 않았다.

【참고】

팔거창(八莒倉): 읍내에 있다.

강창(江倉): 부의 서쪽 40리 노곡방에 있다.

남창(南倉): 부의 북쪽 20리 가산의 외성(外城) 안에 있다.

가산영창(架山營倉): 부의 북쪽 30리 내성 가운데 있다.

가산진(架山鎭)에 소속된 고을의 군창(軍倉): 군위창(軍威倉) 의흥창(義興倉)

신녕창(新寧倉) 하양창(河陽倉): 부의 북쪽 30리 가산성 안에 있다.

외북창(外北倉): 부의 북쪽 40리 동북방에 있다.

관청창(官廳倉): 녹봉을 저장해두는 곳이다.

빙고(氷庫): 부의 북쪽 30리 가산성 안에 있다.

장적고(帳籍庫): 부의 북쪽 25리 외성 안에 있다. 영조 을축년(1745)에 관찰사 김상로(金尙魯)가 세운 것으로 도내의 장적(帳籍)은 모두 여기에 보관한다.

대동고(大同庫): 읍내에 있다.

내성(內城) 군기고(軍器庫): 부의 북쪽 30리 가산산성에 있다.

흑각궁(黑角弓)⁵³⁾ 77장(張), 교자궁(校子弓)⁵⁴⁾ 273장, 긴 화살[長箭] 733부

53) 흑각궁(黑角弓): 검은 무소뿔을 사용하여 만든 강궁.

54) 교자궁(校子弓): 목궁(木弓)의 하나. 저리갈나무[沮里加乙木]로 만들어 끈을 맨 것으로 여름에 잘 휘지 않음.

(部), 편전(片箭)⁵⁵⁾ 570부, 통아(桶兒)⁵⁶⁾ 300개, 요구창(要鉤槍)⁵⁷⁾ 100자루, 나팔 5쌍, 쇠로 만든 화포[火狼機]⁵⁸⁾ 10좌, 자포(子砲)⁵⁹⁾ 20개, 환도(環刀)⁶⁰⁾ 214자루, 진천뢰란(震天雷卵)⁶¹⁾ 8덩이, 철갑주(鐵甲冑) 3부, 투구[頭口] 3부, 상납철(常鑢鐵)⁶²⁾ 235근, 삼혈총(三穴銃) 4자루, 불화살 30자루, 정철환(正鐵丸)⁶³⁾ 200개, 별장창(別長槍) 100자루, 냄비 뚜껑[南飛蓋] 440부, 약통(藥桶) 704개, 연환(鉛丸) 238,391개, 부쇠[火鐵] 393개, 화철석(火鐵石) 394개, 조총(鳥銃) 657자루, 능철(菱鐵)⁶⁴⁾ 1,300개, 노구슬[爐口] 31좌, 장막 39부, 징 6좌, 화약 457근 2냥 9전 8푼, 천보조총(千步鳥銃)⁶⁵⁾ 4자루, 대포조총(大砲鳥銃) 24자루, 삼지조총(三枝鳥銃) 24자루, 수철환(水鐵丸)⁶⁶⁾ 460개, 주철로 만든 손가락 1개, 대포알 4,211개, 연환(鉛丸)을 집는 쇠집게[鑄執舉] 2개, 긴 창 100자루, 큰 징 1면(面), 작은 징 1면, 큰 북 2좌, 중간 북 2좌, 작은 북 2좌, 팽과리 3좌, 100근 저울 하나, 30근 저울 하나, 큰 깃발 38면, 순시기(巡視旗) 4면, 영기(令旗) 4면, 옛날 긴 창 63자루, 표창(鏢槍) 2자루, 참형도(斬刑刀) 1쌍, 언월도(偃月刀)⁶⁷⁾ 1쌍, 큰 깃발 1좌, 관이(貫耳)⁶⁸⁾ · 영전(令箭)⁶⁹⁾ 1쌍, 숙정패(肅靜

55) 편전(片箭): 길이가 짧은 화살, 애기살.

56) 통아(桶兒): 애기살을 넣어 발사할 때 사용하던 기구, 덧살.

57) 요구창(要鉤槍): 갈고리 모양의 창

58) 화랑기(火狼機): 佛狼機. 유럽에서 유래되어 명나라를 통해 16세기에 조선에 전래된 火砲. 탄약이 장전된 자포(子砲)를 발사틀인 모포(母砲)에 장착하여 발사함. 일반화포에 비해 발사간격이 짧아 성벽에 접근하는 적군을 향해 연달아 사격하기에 적합함.

59) 자포(子砲): 탄약을 장전하는 도구

60) 환도(環刀): 군복을 입고 차던 칼

61) 진천뢰란(震天雷卵): 대완구라는 대포에 넣어서 성을 공격하거나 방어할 때 쓰던 포탄

62) 상납철(常鑢鐵): 보통 품질의 납(鑢)

63) 정철환(正鐵丸): 시우쇠[正鐵]를 붙여 만든 탄알

64) 능철(菱鐵): 마름쇠. 끝이 날카롭고 마름 모양의 무쇠로 만든 못

65) 천보조총(千步鳥銃): 사거리가 1000보에 이르는 조총

66) 수철환(水鐵丸): 무쇠로 만든 총알

67) 언월도(偃月刀): 반달과 같이 생긴 칼끝에 기다란 자루가 달린 것이 특징

68) 관이(貫耳): 전쟁터에서 군율을 어겨 사형에 처할 군사의 양쪽 귀에 꿰는 화살

牌)⁷⁰⁾ · 회피패(回避牌) 1쌍, 삼지창(三枝槍) 1쌍, 등철(燈鐵) 99개, 후철정(後鐵釘) 10개, 정개(釘蓋) 99좌, 세악(細樂) 1쌍, 협도(挾刀)⁷¹⁾ 1좌, 사성문기(四城門旗) 4면, 낫 20자루, 도끼 30자루, 협철(挾鐵) 20쌍, 이철(耳鐵) 554개, 소중고(小中鼓) 7좌, 군령판(軍令板) 1좌, 조패(操牌)⁷²⁾ 1좌, 군령판 1좌, 사고동(沙古同) 1좌, 목나팔 1쌍, 화승(火繩) 360사리, 망을 보는데 세우는 흰 색깔의 큰 깃발 1면, 수자기(帥字旗) 1면, 영장기(營將旗) 1면, 당보기(塘報旗)⁷³⁾ 24면, 누수통(漏水桶) 1좌

외성(外城) 군기고(軍器庫): 부의 북쪽 20리 가산 외성 가운데에 있다. 감영에서 관리한다.

불랑기(佛狼機) 모포(母砲) 10좌(坐), 4호포(號砲) 11좌, 5호포 54좌, 자호포(子號砲) 349개, 문침철(門鍼鐵) 10개, 정철(正鐵) 190근 3냥, 중고(中鼓) 2좌, 조총 1,165자루, 긴 화살 1,187부, 짧은 화살 260부, 통아(桶兒) 500개, 연철(鉛鐵) 2,535근, 정철환(正鐵丸) 3,906개, 연철환(鉛鐵丸) 303,665개, 정철환 5,657개, 환도(環刀) 571자루, 철촉룡(鐵燭籠)⁷⁴⁾ 635부, 철갑주(鐵甲冑) 20부, 투구 20부, 엄두(掩頭)⁷⁵⁾ 228부, 엄심(掩心)⁷⁶⁾ 493부, 대포 17자루, 호준포(虎蹲砲) 3자루, 경승자총(庚勝字銃) 3자루, 동노구(銅爐口) 178좌, 나팔 3쌍, 도리편(道里鞭) 27개, 대봉(大烽) 54좌, 화약 3,610근 12냥 8전, 흑각궁(黑角弓) 1,541장(張), 교자궁(校子弓) 1,143장, 유헌 1,522근 1냥, 팽과리 1좌, 중정(中鉦) 1면, 징 1면, 자바라[鑼] 1면, 황촉(黃燭) 15,000자루, 만노궁(萬弩弓) 6장, 철균영(鐵均纓) 2개, 만노궁전(萬弩弓箭) 185개, 능철(菱鐵) 900개, 창 300자

69) 영전(令箭): 군령을 전하기 위해 쏘아 올리는 화살

70) 숙정패(肅靜牌): 군령으로 사형을 집행할 때 조용히 하라는 표시로 ‘肅靜’이라는 두 글자를 써서 세우던 나무패

71) 협도(挾刀): 끝이 조금 뒤로 젖혀지고 칼등에 새의 털을 끼운 칼

72) 조패(操牌): 군사 훈련을 알리기 위해 내거는 패

73) 당보기(塘報旗): 적군의 동정을 알릴 때 쓰는 깃발

74) 철촉룡(鐵燭籠): 안에 초를 넣고 다닐 수 있는 쇠로 만든 등기(燈器)

75) 엄두(掩頭): 머리를 가리는 투구

76) 엄심(掩心): 가슴을 가리는 갑옷

루, 남라개(南羅盖) 1,184개, 화전통(火箭桶) 16장, 도끼 8자루, 큰 북 1좌, 장막 24부, 철시(鐵匙) 24개, 대환(大丸) 집게 3개, 수노교자궁(手弩校子弓) 200장, 궁노(弓弩) 흑각대궁(黑角大弓) 3장, 수노편전(手弩片箭) 2,100개, 노기(弩機) 2좌, 화피(樺皮) 9동(同) 30장, 수노기(手弩機) 2좌, 추금(錐金) 600개, 화승(火繩) 1,165사리, 중부(中斧) 5좌, 복노궁(伏弩弓) 20장, 대기치(大旗幟) 38면, 독기(蠹旗) 1면, 순시기(巡視旗) 2쌍, 초기(哨旗) 444면, 초관(哨官) 겉옷[表衣] 22벌[領], 삼승군막(三升軍幕) 2부, 화철(火鐵) 200개, 이약통(耳藥桶) 1165개, 화철석(火鐵石) 400개, 대호포(大號砲) 불랑기(佛狼機) 대연환(大鉛丸) 70개, 구운 소금 500섬, 작괴(作塊) 1,740괴(塊), 병인년 별비(別備) 남라개(南羅盖) 105개, 전죽(箭竹) 1,150개, 철말(鐵말) 95개, 연철(鉛鐵) 1,230근, 신미년 별비(別備) 궁현(弓弦) 470조(條), 화약 150근, 구시(臼匙) 15개, 두석(豆錫) 9근 6냥, 임신년 별비 취고수(吹鼓手) 겉옷 16건, 갑술년 별비 편쟁(片鍾) 1쌍, 병자년 별비 소고(小鼓) 2좌, 군뢰(軍牢) 붉은 겉옷 2쌍, 용자금(勇字金) 2쌍, 중정(中鉦) 1면.

【물산(物産)】

창출(蒼朮, 삼주뿌리), 백출(白朮, 삼주덩이뿌리), 시호(柴胡, 멧미나리), 황기(黃芪, 단너삼), 약쑥, 적복령(赤茯苓), 백복령(白茯苓)

【교량(橋梁)】

없음

【역원(驛院)】

고평역(高平驛): 부의 남쪽 1리 퇴천방에 있다. 남쪽으로 대구 범어역(凡於驛)까지 30리이며, 서쪽으로 인동(仁同) 양원역(楊原驛)까지 70리이다. 중마(中馬) 2마리, 복마(卜馬) 6마리, 역리(驛吏) 72명이다.

고평참발소(高平站撥所): 위로 양원(楊原)과의 거리는 70리이고, 아래로 대구와의 거리는 30리이다. 발장(撥將) 1인, 발군(撥軍) 45명이다.

송유원(崇儒院): 부의 북쪽 20리 서북방에 있다. 지금은 ‘동명원(東明院)’이라고

불리는데, 소야현(所也峴)의 큰 길이 지나가는 곳이다.

【목장(牧場)】

없음.

분양마(分養馬) 2마리: 매년 10월에 돈으로 대신 지급.

【관애(關陜)】

동포루(東砲樓) 서포루(西砲樓) 남포루(南砲樓) 북포루(北砲樓) 장대(將臺)
진남루(鎭南樓): 승장(僧將)이 지키는 곳으로 모두 가산 내성에 있다.

남문루(南門樓) 운수루(雲帥軒): 총섭(摠攝)이 지키는 곳으로 모두 가산 외성
에 있다.

【봉수(烽燧)】

없음

【누정(樓亭) · 제영(題詠)】

양호루(養浩樓): 녹봉서재(鹿峰書齋)에 있다.

봉하루(鳳下樓): 시양서원(泗陽書院)에 있다.

거성관(莒城館): 객사이다.

제오헌(制五軒): 동헌이다.

봉서루(鳳西樓): 곧 동헌의 북루이다.

가남루(架南樓): 곧 고각루(鼓角樓)이다.

동문루(東門樓): 가산 내성에 있다.

남문루(南門樓): 가산 외성에 있다.

위려각(衛藜閣): 가산별장이 거주하는 곳이다.

향사당(鄉射堂): 좌수 1명, 별감 3명이 있다.

양무당(養武堂): 천총(千摠) 1명, 기고관(旗鼓官) 1명, 지구관(知穀官) 2명이
있다.

결승당(決勝堂): 병방(兵房) 2명, 장무(掌務) 2명, 도훈도(都訓導) 2명이 있다.

인리청(人吏廳): 인리(人吏) 75명이 있다.

통인청(通引廳): 지인(知印) 21명이 있다.

나장방(羅將房): 사령(使令) 19명, 군뢰(軍牢) 2명이 있다.

관노방(官奴房): 관노 9명, 관비 9명이 있다.

운주현(運籌軒): 외성 남창에 있다. 대포수 50명, 대포수보 50명, 매일 밤에 10명씩 돌아가며 지킨다. 남북창에 모민(募民) 작수군(作燧軍) 199명, 창졸(倉卒) 26명이 있다.

찬주현(贊籌軒): 외성에 있다. 수첩군관(守堞軍官)이 주관한다. 병방 2명, 장무 2명, 기패관(旗牌官) 4명, 교대로 수직하는 작령(作領) 군관 938인, 백총장(百摠將) 10인, 좌우 작령 별장 2인, 화병(火兵, 취사병) 100명이 있다.

○ 가산(架山) 제영(題詠)

■ 부사 이두양(李斗陽)의 시

神慳鬼秘遺劫灰 귀신이 아껴 간직하던 곳 오래도록 남아
雄鎮新關洛水東 낙동강 동쪽에 웅장한 진영 새로이 열었네

■ 읍민 이심홍(李心弘)의 시

山在半空春有雪 산이 허공에 있어 봄에도 아직 눈이 있고
城臨大野夏多風 성이 큰 들판에 있어 여름에도 바람 많네

■ 이두양의 시

民居架廣寒生壁 백성들 다락집 벽에 추위가 스며들고
僧舍埋雲晝掩櫺 구름에 묻힌 절간 창문 낮에도 닫혀 있네

■ 이심홍의 시

地利人和眞并得 지리와 인화 참으로 아울러 얻으니

晉陽寬政有吾公 진양(晉陽)같은 선정⁷⁷⁾ 우리 공에게 있네

○ 가산산성에 대한 제영

■ 이심홍의 시

玉塑危千丈 옥으로 만든 높다높은 천 길 성벽에
瑤泉咽幾澗 옥 같은 샘물 소리 얼마나 울렸던가
箕封今菑國 기자가 봉한 나라 지금의 팔거현이고
禹貢舊齊邦 우왕이 말한 나라 예전의 제나라로세
伯也來宣化 감사가 와서 선정을 펼치니
雄哉築受降 웅대하도다 가산산성 견고하구나
中堅黃石在 중간에 견고한 황석들
仰見東空杠 우리러 보니 깃대 묶은 듯하네

○ 상지고택(上枝古宅) 경지당(敬止堂)에 대한 제영

倭奴猖獗弄干戈 왜놈들 무기를 가지고 함부로 날뛰니
余奉天朝滅此魔 천자의 명령을 받들어 이 마귀들 섬멸하려네
公輩不須嘆零落 그대들은 시들어 버린 국운을 한탄하지 말게
扶桑指日挽天河 왜놈 땅의 해를 가리키며 은하수 당겨오리니

—명나라 장군 왕계양(王繼陽)이 임진왜란 때 왜적을 추격하다가 이 집을 지나가면서 벽에 썼는데 그 자획이 지금도 완연히 남아 있다.

○ 녹봉정사(鹿峯精舍) 제영

77) 진양(晉陽) 같은 선정: 윤탁(尹鐸)이 진양(晉陽)에서 펼친 너그러운 정치.

儒館何須續舊名 서원은 반드시 옛 이름을 이어야만 하는가
 鹿峯堪賀落新成 새로 지은 녹봉정사의 낙성을 하례하네
 武城言偃興絃誦 언언⁷⁸⁾은 무성에서 문예를 일으키고
 蜀地文翁闡教聲 문옹⁷⁹⁾은 촉땅에서 교화를 펼쳤네
 古道未亡同受性 함께 타고난 천성으로 옛 도리 잃지 않았는데
 今人那欠獨超情 요즘 사람만 어찌하여 뛰어난 정성 부족한지
 星山本號英雄藪 성주 고을은 본래 영웅의 고장이라 불리니
 莫負群生我最靈⁸⁰⁾ 만물 가운데 내가 가장 신령함 잊지 마오

－퇴계의 시이다. 성주목사 금계(錦溪) 황준량(黃俊良)이 녹봉정사를 창건하자 퇴계선생이 이 시를 지어 축하하였다. 천주사에 시판이 걸려 있다.

南州關防此山城 남주의 관문 가산산성이로세
 九月登山赤葉明 9월에 산에 오르니 잎새 더욱 붉네
 山上白雲堪共臥 산 위의 흰구름 함께 누울 만하니
 不妨留作白蓮盟 머물러 백련의 맹세 맺으리라

－상공 송인명(宋寅明)이 성현찰방(省峴察訪)이 되어 이곳을 지나가다가 읊은 시이다.

【선생안(先生案)】

윤양(尹養): 경진년(1640) 7월 9일에 도입하여 신사년(1641) 7월 3일에 별세

78) 언언(言偃): 공자(孔子)의 제자 자유(子游). 무성(武城)의 수령으로 부임하여 예악(禮樂)을 가르쳤는데, 공자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현가(弦歌)의 소리를 듣고는 칭찬하였다.

79) 문옹(文翁): 한나라 경제(景帝) 때 촉(蜀)의 태수. 촉군의 태수가 되어 교화를 펼치고 학교를 일으켜 문풍(文風)을 크게 떨쳤는데, 무제(武帝) 때 온 천하에 학교를 설립한 것은 문옹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

80) 退溪先生文集 권3, <次韻黃仲舉寄示鹿峯精舍落成>

하였다.[喪逝]

임타(林^端): 신사년(1641) 9월 11일에 도임하여 임오년(1642) 11월 22일에 순찰사⁸¹⁾와의 상피로 인하여 교체되었다.

최후헌(崔後憲): 임오년(1642) 윤11월 1일에 도임하여 갑신년(1644) 2월 4일에 파직되어 돌아갔다.[罷歸]

최무(崔茂): 갑신년(1644) 12월 18일에 도임하여 병술년(1646) 2월 2일에 파직되어 돌아갔다.

이두양(李斗陽): 병술년(1646) 3월 22일에 도임하여 무자년(1648) 7월 24일에 임기가 만료되어 돌아갔다.

이지형(李枝馨): 무자년(1648) 8월 28일에 도임하여 신묘년(1651) 3월 15일에 전라우수사로 전임되었다.

정연(鄭^{王+延}): 신묘년(1651) 4월 13일에 도임하여 임진년(1652) 10월 6일에 파직되어 돌아갔다.

송사호(宋士豪): 임진년(1652) 12월 8일에 도임하여, 갑오년(1654) 정월 15일에 파직되어 돌아갔다.

이준한(李俊漢): 갑오년(1654) 정월 18일에 도임하여 을미년(1655) 10월 9일에 파직되어 돌아갔다.

민승(閔昇): 을미년(1655) 11월 3일에 도임하여 병신년(1656) 4월 10일에 파직되어 돌아갔다.

이경한(李經漢): 병신년(1656) 5월 25일에 도임하여 같은 해 11월 19일에 대구영장(大丘營將)으로 전임되었다.

이동상(李東相): 정유년(1657)정월 4일에 도임하여 무술년(1658) 12월 15일에 파직되어 돌아갔다.

오세언(吳世彦): 기해년(1659) 2월 15일에 도임하여 같은 해 10월 17일에 파직되어 돌아갔다.

김시설(金時高): 기해년(1659) 12월 1일에 도임하여 신축년(1661) 6월 15일에 파직되어 돌아갔다.

81) 순찰사: 종제(從弟) 임담(林^{土+覃}).

최율(崔嶽): 신축년(1661) 7월 19일에 도입하여 계묘년(1663) 6월 24일에 파직되어 돌아갔다.

이박(李璞): 계묘년(1663) 8월 4일에 도입하여 갑진년(1664) 11월 16일에 파직되어 돌아갔다.

유정(柳頌): 을사년(1665) 정월 7일에 도입하여 병오년(1666) 10월 22일에 상주영장으로 전임되었다.

양우급(梁禹及): 병오년(1666) 11월 13일에 도입하여 같은 해 같은 달 26일에 진주영장으로 전임되었다.

권주(權儔): 정미년(1667) 정월 28일에 도입하여 무신년(1668) 8월 29일에 진주영장으로 전임되었다.

정두제(鄭斗齊): 무신년(1668) 12월 2일에 도입하여 신해년(1671) 9월 11일에 충청수사로 전임되었다.

김시익(金時翊): 신해년(1671) 8월 11일에 도입하여 계축년(1673) 정월 7일에 전주영장으로 전임되었다.

설관징(薛觀徵): 계축년(1673) 6월 15일에 도입하여 갑인년(1674) 11월 9일에 모친상을 만나 교체되어 돌아갔다.

최주화(崔柱華): 을묘년(1675) 정월 2일에 도입하여 정사년(1677) 12월 13일에 교체되어 돌아갔다.

박선흥(朴宣興): 무오년(1678) 2월 13일에 도입하여 같은 해 10월 25일에 상주영장으로 전임되었다.

이운등(李雲登): 무오년(1678) 11월 22일에 도입하여 같은 해 12월 8일에 별세하였다.

김여흠(金汝欽): 기미년(1679) 2월 11일에 도입하여 같은 해 8월 7일에 상을 당해 교체되어 돌아갔다.

한익세(韓益世): 기미년(1679) 10월 4일에 도입하여 같은 달 25일에 장계에 의해 파직되었다.

신지응(愼祉膺): 경신년(1680) 정월 3일에 도입하여 신유년(1681) 11월 21일에 모친상을 만나 교체되어 돌아갔다.

남취성(南聚星): 임술년(1682) 정월 19일에 도입하여 갑자년(1684) 6월 4일

에 임기가 만료되어 돌아갔다.

이우항(李宇恒): 갑자년(1684) 7월 7일에 도임하여 병인년(1686) 12월 13일에 임기가 만료되어 훈국(訓局) 천총(千摠)으로 전임되었다.

성윤동(成胤童): 병인년(1686) 12월 15일에 도임하여 기사년(1689) 4월 20일에 임기가 만료되어 돌아갔다.

김시현(金時鉉): 기사년(1689) 4월 24일에 도임하여 신미년(1691) 윤7월 16일에 임기가 만료되어 돌아갔다.

이팽수(李彭壽): 신미년(1691) 윤7월 18일에 도임하여 임신년(1692) 정월 25일에 소강첨사(所江僉使)로 전임되었다.

안근(安根): 임신년(1692) 정월 26일에 도임하여 갑술년(1694) 6월 3일에 임기가 만료되어 금위(禁衛) 천총(千摠)으로 전임되었다.

권순(權詢): 갑술년(1694) 6월 3일에 도임하여 병자년(1696) 3월 17일에 어사의 장계에 의해 파직되어 돌아갔다.

황빈(黃鑓): 병자년(1696) 4월 8일에 도임하여 무인년(1698) 7월 5일에 어사의 장계에 의해 파직되어 돌아갔다.

장한상(張漢相): 무인년(1698) 8월 9일에 도임하여 기묘년(1699) 6월 15일에 폄파(貶罷)⁸²⁾되었다.

홍처무(洪處武): 기묘년(1699) 윤7월 10일에 도임하여 신사년(1701) 12월 12일에 체포되었다.

홍하신(洪夏臣): 임오년(1702) 정월 19일에 도임하여 계미년(1703) 12월 15일에 폄파(貶罷)되었다.

이광보(李光輔): 갑신년(1704) 2월 11일에 도임하여 을유년(1705) 7월 9일에 대간의 탄핵에 의해 파직되었다.

정상주(鄭翔周): 을유년(1705) 8월 1일에 도임하여 병술년(1706) 6월 6일에 어사의 장계에 의해 파직되어 돌아갔다.

심약허(沈若虛): 병술년(1706) 7월 4일에 도임하여 기축년(1709) 2월 15일에 임기가 만료되어 돌아갔다.

82) 근무 평정에 따라 파직됨.

김시경(金始慶): 기축년(1709) 2월 18일에 도임하여 경인년(1710) 3월 8일에 폄파(貶罷)되었다.

허채(許埰): 경인년(1710) 3월 9일에 도임하여 신묘년(1711) 10월 13일에 재해(災害)로 인해 파직되었다.

신명윤(申命尹): 신묘년(1711) 12월 16일에 도임하여 계사년(1713) 윤5월 9일에 상을 당해 교체되었다.

황재징(黃再徵): 계사년(1713) 6월 25일에 도임하여 갑오년(1714) 8월 24일에 체포 파직되었다.

이동진(李東振): 갑오년(1714) 11월 20일에 도임하여 을미년(1715) 3월 1일에 별세하였다.

윤필주(尹弼周): 을미년(1715) 3월 10일에 도임하여 병신년(1716) 6월 15일에 파직되어 돌아갔다.

김중려(金重呂): 병신년(1716) 9월 6일에 도임하여 무술년(1718) 12월 13일에 모친상을 당해 돌아갔다.

장효원(張孝源): 기해년(1719) 정월 30일에 도임하여 같은 해 11월 29일에 별세하였다.

남익화(南益華): 기해년(1719) 12월 25일에 도임하여 임인년(1722) 5월 1일에 임기가 만료되어 돌아갔다.

이중신(李重新): 임인년(1722) 5월 2일에 도임하여 갑진년(1724) 4월 9일에 부모의 나이 70세를 이유로 장계를 올리고 돌아갔다.

이경지(李慶祉): 갑진년(1724) 4월 10일에 도임하여 병오년(1726) 4월에 어사의 장계에 의해 파직되어 돌아갔다.

강한주(姜翰周): 병오년(1726) 5월 9일에 도임하여 같은 해 12월 15일에 폄파(貶罷)되었다.

유동무(柳東茂): 정미년(1727) 3월 16일에 도임하여 무신년(1728) 7월 27일에 창원부사로 전임되었다.

허정(許鼎): 무신년(1728) 9월 29일에 도임하여 경술년(1730) 8월 15일에 청백(淸白)과 선정(善政)으로 품계가 오르고 신해년 5월 9일에 임기가 만료되어 돌아갔다.

하덕휴(河德休): 신해년(1731) 5월 12일에 도임하여 임자년(1732) 9월 15일에 병으로 교체되어 돌아갔다.

김몽형(金夢衡): 임자년(1732) 10월 17일에 도임하여 계축년(1733) 12월 15일에 파직되어 돌아갔다.

이진환(李震煥): 갑인년(1734) 3월 28일에 도임하여 병진년(1736) 3월 17일에 대간의 탄핵에 의해 파직되었다.

전일상(田日祥): 병진년(1736) 5월 6일에 도임하여 무오년(1738) 7월 2일에 폄과(貶罷)되었다.

이희하(李喜夏): 무오년(1738) 8월 16일에 도임하여 기미년(1739) 6월에 부모의 나이 70세를 이유로 장계를 올리고 돌아갔다.

박태도(朴泰道): 기미년(1739) 7월 19일에 도임하여 경신년(1740) 3월 30일에 폄과(貶罷)되었다.

정세장(鄭世章): 경신년(1740) 4월 24일에 도임하여 임술년(1742) 8월에 임기가 만료되어 돌아갔다.

유용기(兪隆基): 임술년(1742) 10월 29일에 도임하여 같은 해 11월 22일에 별세하였다.

한사정(韓師正): 계해년(1743) 정월 7일에 도임하여 갑자년(1744) 2월 24일에 폄과(貶罷)되었다.

김중만(金重萬): 갑자년 (1744) 9월 24일에 도임하여 같은 해 12월 15일에 폄과(貶罷)되었다.

김양중(金養中): 을축년(1745) 2월 26일에 도임하여 정묘년(1747) 11월 8일에 임기가 만료되어 돌아갔다.

이희원(李禧遠): 정묘년(1747) 11월 8일에 도임하여 경오년(1750) 정월 28일에 임기가 만료되어 돌아갔다.

서행진(徐行進): 경오년(1750) 3월 21일에 도임하여 임신년(1752) 11월 15일에 임기가 만료되어 돌아갔다.

이중좌(李重佐): 임신년(1752) 11월 15일에 도임하여 갑술년(1754) 12월 15일에 폄과(貶罷)되었다.

한사협(韓師浹): 을해년(1755) 2월 10일에 도임하여 병자년(1756) 3월 1일

에 모친상을 당해 교체되어 돌아갔다.

김선(金渲): 병자년(1756) 3월 28일에 도임하여 같은 해 11월 8일에 장계에 의해 파직되었다.

장천용(張天用): 정축년(1757) 정월 11일에 도임하여 기묘년(1759) 10월 29일에 임기가 만료되어 돌아갔다.

김종혁(金宗赫): 기묘년(1759) 11월 1일에 도임하여 신사년(1761) 6월 15일에 폄파(貶罷)되었다.

이정수(李廷壽): 신사년(1761) 7월 24일에 도임하여 임오년(1762) 6월 16일에 폄파(貶罷)되었다.

윤경연(尹景淵): 임오년(1762) 7월 4일에 도임하여 같은 해 9월 17일에 폄파(貶罷)되었다.

김상훈(金相勳): 임오년(1762) 10월 1일에 도임하여 을유년(1765) 정월 16일에 임기가 만료되어 돌아갔다.

윤광(尹珰): 을유년(1765) 정월 16일에 도임하여 병술년(1766) 5월 7일에 장계에 의해 파직되었다.

윤광정(尹光鼎): 병술년(1766) 6월 9일에 도임하여 무자년(1768) 2월 13일에 폄파(貶罷)되었다.

이세형(李世馨): 무자년(1768) 3월 3일에 도임하여 기축년(1769) 9월 5일에 파직되어 돌아갔다.

조덕준(趙德濬): 기축년(1769) 9월 28일에 도임하여 임진년(1772) 정월 20일에 임기가 만료되어 돌아갔다.

심기(沈錡): 임진년(1772) 정월 20일에 도임하여 갑오년(1774) 2월 25일에 나이 70세를 이유로 장계를 올리고 돌아갔다.

정주신(鄭胄新): 갑오년(1774) 2월 25일에 도임하여 을미년(1775) 6월 20일에 폄파(貶罷)되었다.

조명즙(曹命楫): 을미년(1775) 7월 19일에 도임하여 무술년(1778) 2월 12일에 임기가 만료되어 돌아갔다.

조경진(趙慶進): 무술년(1778) 2월 12일에 도임하여 경자년(1780) 7월 17일에 임기가 만료되어 돌아갔다.

우필창(禹弼昌): 경자년(1780) 7월 17일에 도임하여 신축년(1781) 3월 28일에 좌병사와의 상피로 교체되어 돌아갔다.

김형주(金衡柱): 신축년(1781) 3월 28일에 도임하여 계묘년(1783) 6월 13일에 어사의 서계(書啓)로 체포되었다.

임영로(林永老): 계묘년(1783) 6월 22일에 도임하여 을사년(1785) 10월 24일에 임기가 만료되어 돌아갔다.

이경린(李景麟): 을사년(1785) 10월 20일에 도임하여 병오년(1786) 2월 30일에 체포 파직되었다.

송익휴(宋益休): 병오년(1786) 3월 8일에 도임하여 정미년(1787) 4월 29일에 파직되었다.

정학경(鄭學耕): 정미년(1787) 6월 1일에 도임하여 같은 해 12월 22일에 훈련원정(訓練院正)으로 전임되었다.

조준규(趙駿逵): 무신년(1788) 정월 15일에 도임하여 경술년(1790) 5월 13일에 별세하였다.

서유병(徐有秉): 경술년(1790) 6월 8일에 도임하여 신해년(1791) 6월 7일에 상주영장으로 전임되었다.

송응휴(宋應休): 신해년(1791) 6월 29일에 도임하여 임자년(1792) 12월 22일에 파직되었다.

유진혁(柳鎭赫): 임자년(1792) 12월 22일에 도임하여 갑인년(1794) 12월 29일에 위유사(慰諭使)의 장계에 의해 파직되었다.

이방운(李邦運): 을묘년(1795) 정월 2일에 도임하여 같은 해 4월 8일에 온성부사(穩城府使)로 전임되었다.

윤우대(尹宇大): 을묘년(1795) 4월 25일에 도임하여 같은 해 10월 2일에 체포 파직되었다.

윤양검(尹養儉): 을묘년(1795) 10월 18일에 도임하여 정사년(1797) 12월 15일에 폄과(貶罷)되었다.

김광운(金光運): 정사년(1797) 12월 29일에 도임하여 기미년(1799) 6월 15일에 폄과(貶罷)되었다.

이적(李迪): 기미년(1799) 7월 2일에 도임하여 경신년(1800) 6월 15일에 폄

파(貶罷)되었다.

민수익(閔修益): 경신년(1800) 8월 28일에 도임하여 신유년(1801) 12월 15일에 폼파(貶罷)되었다.

이민수(李民秀): 임술년(1802) 정월 28일에 도임하여 계해년(1803) 12월 20일에 교체되었다.

김한주(金翰周): 갑자년(1804) 2월 25일에 도임하여 병인년(1806) 7월 15일에 임기가 만료되어 돌아갔다.

이엽(李燁): 병인년(1806) 7월 15일에 도임하여 무진년(1808) 6월에 후주첨사(厚州僉使)로 전임되었다.

민수현(閔修顯): 무진년(1808) 7월에 도임하여 경오년(1810) 12월에 임기가 만료되어 돌아갔다.

권응우(權膺祐): 신미년(1811) 정월 12일에 도임하여 계유년(1813) 6월에 임기가 만료되어 돌아갔다.

윤면진(尹勉鎭): 계유년(1813) 8월 16일에 도임하여 을해년(1815) 12월 15일에 폼파(貶罷)되었다.

서유건(徐有建): 병자년(1816) 3월 3일에 도임하여 같은 해 12월 15일에 폼파(貶罷)되었다.

권환(權煥): 정축년(1817) 정월 8일에 도임하여 같은 해 12월 15일에 폼파(貶罷)되었다.

성동일(成東一): 무인년(1818) 정월 18일에 도임하여 경진년(1820) 9월 25일에 임기가 만료되어 돌아갔다.

유득원(柳得源): 경진년(1820) 9월 26일에 도임하여 임오년(1822) 10월 3일에 교체되었다.

박홍진(朴弘鎭): 임오년(1822) 10월 28일에 도임하여 갑신년(1824) 7월에 교체되어 돌아갔다.

박종순(朴宗淳): 갑신년(1824) 8월 28일에 도임하여 병술년(1826) 12월 15일에 임기 만료로 교체되었다.

박경진(朴敬鎭): 정해년(1827) 정월 18일에 도임하여 같은 해 6월 15일에 폼파(貶罷)되었다.

이옥현(李玉鉉): 정해년(1827) 7월 16일에 도임하여 같은 해 12월 15일에 폼파(貶罷)되었다.

홍운석(洪雲錫): 무자년(1828) 정월 22일에 도임하여 같은 해 12월 27일에 교체되어 돌아갔다.

서양보(徐良輔): 기축년(1829) 정월 26일에 도임하여 경인년(1830) 윤4월 13일에 교체되어 돌아갔다.

이민식(李民植): 경인년(1830) 윤4월 21일에 도임하여 임진년(1832) 윤9월 15일에 임기 만료로 교체되었다.

유창근(柳昌根): 임진년(1832) 10월에 도임하여 계사년(1833) 5월에 부모상을 당해 교체되어 돌아갔다.

유흥우(柳興禹): 계사년(1833) 6월에 도임하여 을미년(1835) 정월 5일에 교체되어 돌아갔다.

김병호(金秉浩): 을미년(1835) 2월에 도임하여 같은 해 5월에 부모상을 당해 교체되어 돌아갔다.

권우용(權友容): 을미년(1835) 6월에 도임하여 정유년(1837) 12월 15일에 임기 만료로 교체되었다.

주재언(朱載彦): 무술년(1838) 정월에 도임하여 기해년(1839) 6월 15일에 중등 고과(考課)로 교체되었다.

신길보(申吉輔): 기해년(1839) 7월에 도임하여 신축년(1841) 6월 15일에 폼파(貶罷)되었다.

이숙(李櫛): 신축년(1841) 7월에 도임하여 임인년(1842) 12월 15일에 폼파(貶罷)되었다.

최홍덕(崔弘德): 계묘년(1843) 정월에 도임하여 같은 해 12월 15일에 폼파(貶罷)되었다.

이종궁(李種兢): 갑진년(1844) 2월에 도임하여 을사년(1845) 8월에 부모상을 당해 교체되어 돌아갔다.

이배원(李培遠): 을사년(1845) 9월 12일에 도임하여 병오년(1846) 6월 15일에 폼파(貶罷)되었다.

김병일(金炳一): 병오년(1846) 8월 19일에 도임하여 같은 해 9월 1일에 부모

상을 당해 교체되어 돌아갔다.

이효권(李孝權): 병오년(1846) 10월 8일에 도임하여 정미년(1847) 6월 15일에 하등 고과(考課)로 교체되어 돌아갔다.

이낙소(李樂韶): 정미년(1847) 7월 16일에 도임하여 무신년(1848) 12월 15일에 폄파(貶罷)되었다.

이민수(李敏樹): 기유년(1849) 정월 28일에 도임하여 신해년(1851) 12월 27일에 대구영장으로 전임되었다.

장대급(張大汲): 임자년(1852) 정월 28일에 도임하여 을묘년(1855) 4월에 장계에 의해 파직되었다.

이용(李瑬): 을묘년(1855) 6월 11일에 도임하여 무오년(1858) 정월 5일에 전임되었다.

김성구(金聖求): 무오년 (1858) 2월 22일에 도임하여 경신년(1860) 정월에 글을 올리고 돌아갔다.

이지화(李志華): 무신년(1860) 3월 15일에 도임하여 계해년(1863) 7월 3일에 전임되었다.

이규흥(李奎興): 계해년(1863) 8월 15일에 도임하여 을축년(1865) 12월 15일에 폄파(貶罷)되었다.

박주운(朴周雲): 병인년(1866) 2월 4일에 도임하여 같은 해 6월에 상소에 의해 교체되었다.

허전(許琰): 병인년(1866) 7월 28일에 도임하여 무진년(1868) 9월 15일에 글을 올려 교체되었다.

이병호(李炳鎬): 무진년(1868) 10월 25일에 도임하여 경오년(1870) 12월 15일에 교체되었다.

채규봉(蔡奎鳳): 신미년(1871) 2월 10일에 도임하여 계유년(1873) 6월에 중등 고과(考課)를 받고 임기 만료로 교체되었다.

김준구(金駿求): 계유년(1873) 9월 21일에 도임하여 을해년(1875) 정월 28일에 승진하였다.

이기현(李夔憲): 을해년(1875) 3월 12일에 도임하여 같은 해 12월 15일에 폄파(貶罷)되었다.

구광서(具光書): 병자년(1876) 2월 9일에 도임하여 정축년(1877) 12월 27일에 전임되었다.

윤석인(尹錫仁): 무인년(1878) 2월 12일에 도임하여 경진년(1880) 정월 30일에 전임되었다.

이재옥(李載旭): 경진년(1880) 3월 9일에 도임하여 임오년(1882) 3월 16일에 전임되었다.

임순헌(林淳憲): 임오년(1882) 5월 10일에 도임하여 갑신년(1884) 정월 20일에 교체되었다.

원재정(元在貞): 갑신년(1884) 3월 4일에 도임하여 같은 해 6월 15일에 폼파(貶罷)되었다.

이봉우(李鳳宇): 갑신년(1884) 8월 11일에 도임하여 을유년(1885) 6월 29일에 전임되었다.

이수영(李秀暎): 을유년(1885) 9월 13일에 도임하여 같은 해 12월 15일에 폼파(貶罷)되었다.

김두식(金斗植): 병술년(1886) 5월 28일에 도임하여 정해년(1887) 윤4월 27일에 교체되었다.

강진영(姜鎭潁): 정해년(1887) 6월 28일에 도임하여 같은 해 3월 8일에 내직(內職)으로 전임되었다.

김한주(金漢柱): 무자년(1888) 정월 30일에 도임하여 같은 해 9월 22일에 교체되었다.

이원로(李源老): 무자년(1888) 11월 25일에 도임하여 기축년(1889) 6월 6일에 교체되었다.

우성규(禹成圭): 기축년(1889) 7월 25일에 도임하여 임진년(1892) 정월 24일에 교체되었다.

이규풍(李圭豐): 임진년(1892) 3월 27일에 도임하여 계사년(1893) 정월 14일에 남해현령으로 전임되었다.

남궁억(南宮億): 계사년(1893) 4월 4일에 도임하여 을미년(1895) 정월 11일에 교체되었다.

이이정(李以貞): 병신년(1896) 7월 10일에 도임하여 정유년(1897) 12월 25

일에 교체되었다.

이종표(李鍾杓): 무술년(1898) 정월 8일에 도임하였다.

【사찰(寺刹)】

보국사(寶國寺): 내성(內城) 가운데에 있다. 요사 한 채가 있다. 승창미(僧倉米) 68섬 12말 7되 4홉 9사가 있다. 본부 군기(軍器) 집물을 승방(僧房)에 옮겨 두고 지키게 하였다.

천주사(天柱寺): 외성(外城) 가운데에 있다. 여기에 활과 화살 등의 무기를 많이 보관하고 있다. 요사 다섯 채, 강생원(降生院), 심검당(尋劍堂), 함월당(含月堂), 계월당(桂月堂), 망월당(望月堂)이 있다. 또 승창미 308섬 3말 8되 6홉 7사가 있다.

또 관찰사 김상로(金尙魯)의 절목(節目)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가산산성은 곧 영남의 제일의 관문이다. 내성과 외성 가운데 절을 세워 승려들을 모아 속오군으로 만들고 활쏘기를 연습한 것은 위급한 때에 힘을 얻을 곳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당초에 절목 가운데 봄과 가을로 활쏘기를 시험하여 우수한 인재를 뽑아 각 산성의 승장으로 천거하여 등용하는 일은 정해진 방식이 있었다. 오래된 뒤에는 점점 변하여 이 법규가 시행되지 않으니 승려들이 해체되어 마음대로 활쏘기를 포기하여 마침내 시작은 있고 끝은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관방(關防)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하는 방법에 있어서 진실로 매우 한탄스럽다. 이미 성지를 설치하고 또 속오군을 다스리게 되면 무예를 가르치는 방법에 조금의 소홀함도 용납할 수 없다. 만약 무예를 가르치고자 하면 마땅히 상벌을 우선해야 한다. 올해 10월부터 시작하여 좌우초(左右哨) 승군은 영문 무사의 시사(試射)에 의거하여 매월 초하루에 1차로 활쏘기를 시험하여 우등 4인을 뽑아 승창(僧倉) 모미(耗米)를 1년 동안 거두어 내린다. 그 외 나머지는 각각 5말씩 요미(料米)를 나누어 주되 그 쌀을 1년 통틀어 계산하면 올려주고 내려주는 수를 감당할 수 없으니 승려의 환곡도 또한 군향사(軍餉事)에 의거한다. 체면이 비록 중요하지만 지금 요과(料糶)를 처음으로 만든 것은 지키는 것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정치에서 나왔다. 반을 남기는 법 또한 지키기 어렵고 매년 3등은 승창 원회미(元會米) 3분의 1 한계 내에서 2분의 1을 환곡으로 주면서 모미를 거두어 들

여 원곡이 줄어들게 되는 폐단이 없게 한다. 1년 동안 거두어 내리는 것과 4과(窠) 요미 외 나머지 모미는 해마다 원회미에 더하여 기록하며 거행하되 모든 절차는 왼쪽에 차례로 기록하고 이것으로 판에 써서 벽 위에 걸어 영구히 준행할 것이다. 한결같이 두 초의 승군은 매월 20일 총섭이 주관하여 무예 시험으로 뽑아 우등 4인을 나누어주는 수에 따라 문서를 갖추어 중영에 보고한다. 우등 4인의 요미는 중영에 보고하고 내어주고 뒤에 1년을 통틀어 전체 수는 거두어 내린 일체와 세말에 헤아려 합산하고 남은 것을 셈한다. 매월 20일 활쏘기를 시험할 때는 유엽전(柳葉箭)으로 5번씩 거행하되 상이 있으면 또한 벌이 있어야 하므로 다섯 번 쏘는데 한 번도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총섭으로 하여금 곤장 다섯 대를 때려서 권면하는 뜻을 보이게 한다.”

또 추가 절목이 있으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산산성은 곧 도내의 제일 관문이다. 변란에 대비하는 도리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당초에 승군을 설치하였다. 또 성내 승려로 총섭을 뽑아 부대로 편성된 사람들을 모두 거느리게 했으니 우연이 아니었다. 백년 태평에 만사가 해이해져 군국의 중요한 업무도 또한 노는 일이 되었다. 근래에는 총섭을 혹 다른 고을 승려로, 혹은 서울에서 온 승려로 인정으로 뽑아 쓰는 현상이 나타나고 등용하거나 부탁에 의하여 뽑으니 한 달이나 두 달만에 바뀌어 일정함이 없어 문득 돌아가며 근무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런 까닭으로 이곳은 이른바 총섭을 나그네 자리로 보아 직무를 소홀히 하여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니 점점 더욱 경계함이 소홀해지고 절제사는 잘못된 방법을 다하였다. 성지를 설치한 바가 어찌 진실로 이렇게 하려고 했겠는가? 이것을 생각하니 진실로 한심하였다. 재능으로 성내 승려를 뽑아 오래 임무를 맡겨 일을 맡아 하도록 하고 이후로는 한결같이 옛법에 따라 자주 바꿈이 없게 하고 다른 고을의 승려는 다시 섞어 뽑지 않도록 하는 것을 영구히 법으로 삼아 시행할 것이다.”

절에는 완월루(翫月樓)가 있다. 여기에 송상국(宋相國)의 시가 걸려 있는데 제영 향목에 보인다.

송림사(松林寺): 부의 10리 하북방에 있다. 요사채가 하나 있는데 설선당(說禪

堂)이다. 절은 내성과 외성의 길목에 있으니 위급할 때 반드시 유익한 바가 있다. 중국으로 가는 사신들이 머무르는 역참이 되어 벼슬아치들이 계속 왕래하면서 쇠락함이 날로 심해졌다. 이전에 15개의 승방이 지금은 8개이다. 상국 정익하(鄭益河)가 장계를 올려 30결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았다. 12층 불탑이 있다. 위에는 금경(金莖)⁸³⁾이 있는데 지금 설선당이 이것이다.

염불암(念佛菴): 부의 북쪽 건령산(建靈山)에 있다.

도덕암(道德菴): 부의 동북쪽 도덕산에 있다.

대둔사(大屯寺): 가산성 북문 밖에 있다.

금곡사(金谷寺): 가산성 서문 밖에 있다.

【고적(古蹟)】

팔거산성(八莒山城): 부의 남쪽 5리 퇴천방(退川坊)에 있다. 돌로 쌓았다. 둘레가 2,423척이다. 성안에 2개의 샘과 1개의 연못이 있었는데, 허물어진 지 오래되었다. 민간에서는 ‘독모성(獨母城)’이라고 부른다.

진장(陣場): 부의 안쪽에 있다. 만력(萬曆) 계사년(1593)에 명나라 장수 유정(劉綎)이 만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이곳에 진을 치고 머물며 왜적을 막다가 기해년(1599)에 돌아갔다. 진을 친 터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 유정이 “진터로는 천하에 으뜸이다.”라고 하였다.

위곡부곡(葦谷部曲): 부의 서쪽 40리 노곡방(蘆谷坊)에 있다.

철우·철마(鐵牛鐵馬): 가암(架巖)의 굴속에 있다. 속전에, 신라의 승려 도선(道詵)이 산천을 두루 돌아다니며 탑을 쌓거나 쇠로 만든 코끼리를 묻어서 땅의 기운을 눌렀다고 한다. 이것 역시 그러한 종류이다.

수기석(豎旗石): 부의 서쪽 35리 도촌방(道村坊) 왕산봉(王山峯) 아래에 있다. 고려 태조(太祖)가 견훤(甄萱)과 싸울 때 돌을 뚫어 깃발을 세운 곳인데, 지금까지 뚜렷이 남아 있다.

83) 한 무제(漢武帝)가 백양대(柏梁臺)를 쌓고 세운 20장(丈) 높이의 구리기둥[銅柱]. 이슬을 받는 선인장(仙人掌)을 그 동주 위에 설치하였음. 높고 화려함을 비유한 것이다.

오인석(五印石): 부의 서쪽 15리 상지방(上枝坊) 대촌리(大村里)에 있다. 예전에 강효손(姜孝孫) · 강예손(姜禮孫) · 강충손(姜忠孫) · 강신손(姜信孫) · 강종손(姜終孫) 형제가 모두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동시에 고을 수령이 되어 부친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이때 다섯 개의 직인(職印)을 한 돌 위에 두었으므로 ‘오인석’이라 이름 하였다.

태봉(胎峯): 부의 북쪽 10리 서북방(西北坊)에 있다. 신라 봉성군(鳳城君)의 태실(胎室)이라고 한다.

상지고택(上枝古宅): 부의 서쪽 15리 상지방(上枝坊) 대촌리(大村里)에 있다. 당의 이름은 경지당(敬止堂)이다. 집이 오래되었는데 어느 때 세운 것인지 알 수 없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 왕계양(王繼陽)과 역소계(易小溪)가 왜적을 쫓아 이 집을 지나다가 벽 위에 시를 적어 두었다. 그 글자의 획이 지금까지 뚜렷이 남아 있다.

【진공(進貢)】

백출, 도라지, 백작약, 황기, 자초용(紫草茸, 지치의 싹), 백복령, 태수(胎水), 구기자, 시호(柴胡), 생모과, 과루인(瓜蒌仁, 하늘타리의 씨), 초석(草席, 왕골 등으로 만든 자리), 인삼

【진보(鎭堡)】

없음

【인물】

본조

정구(鄭逵):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벼슬이 대사헌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록, 호는 한강이다. 광해군 임자년에 성주에서 칠곡부의 노곡으로 이거하였으며, 갑인년에 사수로 다시 옮겨졌다. 경신년에 병으로 돌아가시자 사람들이 서원을 세우고 제향하였다. 성주지 인물조에 자세히 보인다.

이원경(李遠慶): 자는 선택(善擇), 호는 송암(松巖)이다. 본관은 광주(廣州)로 둔촌(遁村)선생 집(集)의 후손이다. 가정 을유년(1525)에 태어났다. 진락당(眞樂

堂) 김취성(金就成)을 스승으로 섬겼다. 뜻을 돈독히 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였다. 지조와 행실이 매우 굳건하였으며 온화하고 공손하였고, 남의 허물 말하기를 부끄럽게 여겼다. 문목공[鄭述]이 항상 공경하면서 시대의 어른으로 섬겼으며 돌아가시자 제문을 지어 올렸다. 한강집에 자세히 보인다.

이윤우(李潤雨): 자는 무백(茂伯), 호는 석담(石潭)이다. 본관은 광주(廣州)로 송암(松巖) 원경(遠慶)의 종손(從孫)이다. 가정 기사년(1569)에 태어났다.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한원(翰苑, 藝文館)에 선발되었다.

적신(賊臣) 정인홍(鄭仁弘)의 흉악함이 치솟을 때 공은 인홍의 문도 8명을 매질하고 과거 응시를 박탈하고 역사서에 그 악행을 매우 자세히 기록하였다. 큰 옥사를 일으키려 했으나 적당들에게 발각되어 행하지 못하였다. 인조반정으로 기용되어 응교(應敎), 사인(舍人)을 역임하고 담양부사가 되었다. 이임할 때 고을사람들이 청덕비를 세웠으며, 유생들은 별도로 흥학비를 세웠다. 갑술년(1634)에 돌아가셨다. 벼슬은 공조참의에 이르렀으며, 이조참의에 추증되었다. 일찍이 문목공(文穆公) 정구(鄭述)를 스승으로 섬겼다. 정구는 공을 깊이 공경하여 문하의 제생에게 본보기로 삼도록 하였다. 정구가 오선생예설(五先生禮說)과 예의답문(禮疑答問) 등의 책을 편찬하고자 할 때 공이 경성(鏡城)에 있기에 편지를 보내 “이 일은 공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공이 돌아오자 비로소 수집하여 책을 만들었다. 평생 의관을 더럽히며 살지 않았으며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세면하고 종일 단정히 앉아 병환이 심할 때도 그만 두지 않았다. 효성과 우애가 돈독하니 종족과 향당에서 마음으로 기뻐하고 진실로 감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돌아가시자 거처하던 수십 리 주위에서 음식을 폐하고 시장에서는 도살을 폐한 지 수개월이 되었다. 성주 회연서원(檜淵書院)과 칠곡 사양서원(泗陽書院)에 종향되었으며, 관북서원(關北書院)에 제향되었다.

이도장(李道長): 자는 태시(泰始), 호는 낙촌(洛村)이고, 윤우(潤雨)의 아들이다. 만력 계묘년(1603)에 태어났다. 인조 때 문과에 급제하였다. 병자년 겨울에 오랑캐가 매우 급박하게 침범하자 주상이 강화로 피난하려 하였다. 공이 체찰부(體察府)에 고하기를, “지금 군사를 내어 적이 오는 길을 막지 않고 주상을 가벼이 거동하게 하니 마침내 변고가 있으면 어찌 할 것인가” 라고 하였다. 체상(體相, 都體察使)이 그렇다 여기고 즉시 네 초병(哨兵)을 내어주었다. 오랑캐가 다가오다가

군사를 보고는 의심스러워 즉시 앞으로 나오지 못하자 주상은 그 틈을 타서 급히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 여러 대신들은 주상이 탈출하여 강화로 행차할 것을 권하였다. 아랫사람들은 주상의 거취를 알지 못하여 성안이 혼란스러웠다. 공은 성을 지킬 계책과 맹세를 밝혀 성안을 안심시킬 것을 청하였다. 오랑캐들이 척화(斥和)를 주장한 사람들을 찾아내라고 하자, 체찰부에서 공을 불러 여덟 사람의 이름을 쓰도록 했다. 공은 논쟁하며 쓰지 않으려 하면서 “오랑캐가 찾는 것은 한두 사람에 불과한데, 어찌하여 여덟 명이나 되는 많은 이름을 쓰라고 하는가.” 하였다. 마침내 조빈(趙賓) 등 다섯 사람을 명단에서 빼내었다. 한림, 천관(天官, 이조판서)을 역임하였다. 기묘년에 오랑캐가 징병하도록 협박하자 마침내 세상에서 벗어나기를 결심하였다. 이조정랑 응교 사간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갑신년(1644)에 돌아가셨다.

이서우(李瑞雨): 무과(武科)에 급제하였다. 승정(崇禎) 병자년(1636)에 쌍령(雙嶺)에서 순절하였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군기시부정(軍器寺副正)에 추증되었다.

심렬(沈冽): 승정 병자년에 쌍령에서 순절하였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훈련원정(訓練院正)에 추증되었다.

이원정(李元禎): 자는 사징(士徵), 호는 귀암(歸巖)이고, 도장(道長)의 아들이다. 천계(天啓) 임술년(1622)에 태어났다. 효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을 역임하였다. 전주판관이 되었을 때 교체로 오래 자리가 비었고 새해에 송사의 글이 관아에 가득 하고 문서가 산처럼 쌓였다는 것을 직접 보고 듣고서 손으로 쓰고 입으로 부르면서 손님을 응대함에 막힘이 없었다. 관찰사 조계원이 엿보고 놀라며 말하기를, “유목지(劉穆之)⁸⁴라도 여기서 더할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기해년(1659) 겨울에 장성부사로 사은서장관이 되었는데 현종이 하교하기를, “이 때 수령의 교체에는 폐단이 있지만 처음부터 사신을 잘 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강릉부사로 부임할 때 관아에 귀신이 있다고 관아가 방치되어 여기에 아무도 거처하지 않았다. 공이 바로 들어가 거처하면서 관아 뜰에 있는 고

84) 유목지(劉穆之): 동진(東晉) 시대 인물. 좌복야(左僕射)의 관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문서를 능숙하게 처리하면서 손님을 극진히 응대하였다고 한다.

목을 보고는 불로 태우게 하니 두 마리 푸른 여우가 불타 죽었다. 마침내 그 괴이한 일이 그치게 되었다. 형조판서가 되었을 때 숙종이 현관(賢館, 성균관)을 이끌기 위해서는 경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고 하며 대사성을 겸직하게 하였다. 무오년(1678)에 영남에 대동법을 시행할 때 그 일을 전담하며 완급을 조절하니 백성들이 그 법을 지키며 그의 덕을 칭송하였다. 벼슬은 승정대부 이조판서 겸 홍문관 제학에 이르렀고, 특별히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글을 읽을 때 여덟 8줄을 동시에 읽어 평소 중망을 받으니 사람들이 강좌(江左)의 이오(夷吾, 管仲)라고 불렀다. 경신년의 옥사에 연루되었다가 무진년에 특명으로 복관되었다. 저술로는 경산지(京山誌), 증수향약(增修鄉約), 귀암만록(歸巖漫錄)이 있다.

이원록(李元祿): 자는 사흥(士興), 원정(元禎)의 아우이다. 승정 기사년(1629)에 태어났다. 현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내직과 외직을 역임하였다. 위엄과 은혜로움이 아울러 드러났다. 천성이 간결 엄격하고 몸가짐이 청렴 검소하여 명성과 지위로 자처하지 않았다. 자손들에게 비단옷을 구하지 말고 검소함을 스승으로 삼도록 유언을 남겼다. 벼슬이 대사헌에 이르렀다.

이담명(李聃命): 자는 이로(耳老)이고, 원정(元禎)의 아들이다. 인조 병술년(1646)에 태어났다. 현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참하(參下)의 홍문록(弘文錄)에 선임되고 이조(吏曹)의 낭관(郎官)이 되었으며, 벼슬이 이조참판에 이르렀다. 오래 동안 옥당(玉堂)에 있으면서 강론이 적절하니 숙종이 항상 강관(講官) 중에 제일이라고 칭찬하였다. 영남 관찰사가 되었을 때 마침 큰 흉년을 만나 부역을 면제시키고 죽을 마련하여 굶주린 구휼하였다. 은혜로움이 굶주린 백성들에 고르게 펼쳐지지 않자 이들을 한 곳에 모았다. 이로 인해 질병이 생기자 백성들에게 각자 집에 있게 하고 날을 정해 마른 양식을 나누어 주니 백성들이 모두 안도하여 길에서 굶어죽는 자가 없었다. 본도는 이에 힘입어 온전하게 살 수 있었다. 이후 흉년에 마른 양식으로 구휼하는 법이 공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본읍 산창(山倉)의 별회미(別會米)와 군량 감모미(減耗米)는 1말로써 영원한 정식(定式)으로 삼았다. 팔거(八莒)에 유혜비(遺惠碑)가 있다.

이한명(李漢命): 자는 남기(南紀)이고, 담명(聃命)의 아우이다. 효종 신묘년(1651)에 태어났다. 숙종 때 문과에 급제하였다. 윤우(潤雨)로부터 연달아 4대가

한원(翰苑)에 선발된 것은 국조 이래로 있지 않았다. 숙종은 공이 비록 연소하지만 박학다문하다고 하여 유신(儒臣)들과 같이 경연에 들어와 치도를 말하고 주역을 진강하게 하였다. 문학의 선비를 선발할 때 공을 으뜸으로 삼았다. 벼슬이 교리에 이르렀다.

김응기(金應箕): 성종 정유년(1477)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우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대(文戴)이다.

이철균(李鐵均): 연산군 병진년(1450)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대사성에 이르렀다.

이등림(李鄧林): 명종 갑자년(1535)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선조 계유년(1573)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벼슬이 좌랑에 이르렀다.

김주(金轅): 인조 갑자년(1624)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좌랑에 이르렀다.

이언영(李彦英): 선조 신묘년(1591)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계묘년(1603)에 문과에 장원 급제하였다. 벼슬이 좌부승지에 이르렀다.

송원기(宋遠器): 선조 계유년(1573)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광해군 경술년(1610)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벼슬이 헌납에 이르렀다.

김광우(金光宇): 인조 갑자년(1624)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군수에 이르렀다.

이기명(李基命): 숙종 계유년(1693)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기묘년(1699)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벼슬이 병조좌랑에 이르렀다.

강상주(姜相周): 숙종 을묘년(1675)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군수에 이르렀다.

이주천(李柱天): 숙종 정묘년(1687)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신미년(1691)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벼슬이 지평에 이르렀다.

이주세(李柱世): 숙종 기묘년(1699)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좌랑에 이르렀다.

이식명(李植命): 경종 신축년(1721)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현령에 이르렀다.

이주태(李柱泰): **영조 을사년**(1725)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좌랑에 이르렀다.

이해준(李海準): 숙종 임술년(1682)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현감에 이르렀다.

김동준(金東俊): 경종 신축년(1721)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병조정랑에 이르렀다.

민재문(閔在汶): 문도공(文度公) 제(霽)의 후손이다. 숙종 정유년(1717)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영조 경오년(1750)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직강(直講)에 이르렀다.

이권(李權): 영조 을묘년(1735)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전적(典籍)에 이르렀다.

이기중(李沂中): 영조 신유년(1741)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도사(都事)에 이르렀다.

이만영(李晩榮): 영조 기묘년(1759)에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벼슬이 병조좌랑에 이르렀다.

이태우(李泰宇): 영조 임오년(1762)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학유(學諭)에 이르렀다.

이만운(李萬運): 정조 정유년(1777)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첨추(僉樞) 오위(五衛)에 이르렀다.

권취일(權就一): 정조 임인년(1782)에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현령에 이르렀다.

조경신(曹慶信): 정조 갑인년(1794)에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현감에 이르렀다.

이현(李鎬): 순조 정묘년(1807)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현감에 이르렀다.

이이경(李以敬): 순조 갑자년(1804)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전적에 이르렀다.

이동적(李東迪): 순조 계유년(1813)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주부(主簿)에 이르렀다.

이조운(李肇運): 순조 기묘년(1819)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직장(直長)에 이르렀다.

충신

이일영(李逸英): 자는 회백(晦伯), 호는 이잠(夷岑)이고 본관은 합천이다. 용간(龍澗) 동훈(東勳)의 삼종(三從)이고 송포(松圃) 일로(逸老)의 형이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아우와 함께 강화도에 들어가 동시에 순절하였다. 고종 정묘년에 사헌부 지평에 추증되었다.

이일로(李逸老): 자는 회수(晦叟), 족계(竹溪) 동빈(東蘋)의 삼종(三從)이고 이잠(夷岑) 일영(逸英)의 아우이다. 광해군 계축년에 상소를 올려 흉악한 자들을 성토하다가 10년간 유배살이 하였다. 인조반정 이후 종묘봉사(宗廟奉事)에 제수되었다. 병자호란 때 종묘사직의 신주를 모시고 김선원(金仙源) 이죽창(李竹窓) 송야은(宋野隱) 이동천(李東川)과 함께 강화도를 들어갔다. 성이 함락되자 혈서로 시한수를 쓰고는 그 형과 함께 순절하였다. 사헌부 지평에 추증되었다. 불천위 사당이 합천 상곡(上谷)의 청금정(淸衿亭) 옛터에 있다. 합천읍지에 자세히 보인다.

효자

이주건(李柱健):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슬픔을 견디지 못하여 몸이 상하였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가 내려졌다.

이국상(李國相):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웠고 부모를 봉양함에 정성을 다하였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세금과 부역이 면제되었다.

열녀

고려

배씨: 삼사좌윤(三司左尹) 배중선(裴仲善)의 딸이며, 선비 이동교(李東郊)의 아내이다. 홍무(洪武) 경신년(1380)에 왜적이 겁탈하려 하자 즉시 왜적을 꾸짖고 강물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가 세워졌다. 『성주읍지』에 자세히 보인다.

본조

곽씨: 도사(都事) 이심옥(李心玉)의 아내이다. 임진왜란 때 왜적에게 사로잡혔는데, 왜적이 칼을 빼어 위협하며 그녀를 겁탈하려고 하였다. 곽씨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땅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칼로 어깨를 잘라도 움직이지 않았고, 머리를 쪼개도 움직이지 않았으며, 허리와 등을 갈라고 움직이지 않다가 죽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가 세워졌다.

이씨: 어머니 곽씨와 함께 왜적을 만나자 동시에 순절하였다. 동시에 정려가 세워졌다. 쌍렬비(雙烈碑)가 있다.

이씨: 만호(萬戶) 송발(宋潑)의 아내이다. 임진왜란 때 왜적을 만나자 왜적에게 굴복하지 않다가 목숨을 잃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가 세워졌다.

이씨: 선비 이희춘(李熙春)의 아내이다. 남편이 외출했다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 날은 이씨가 사내아이를 낳은 지 7일이 되는 날이었다. 처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자, 슬피 통곡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얼마 뒤 죽으려던 생각을 풀며 말하기를, “만약 이 몸이 없다면 이 아이도 죽을 것이니, 어찌 차마 작은 정 때문에 남편의 후사를 끊어버릴 수 있겠는가.” 하였다. 얼마 뒤 그 사내아이도 죽었다. 이씨가 통곡하며 “이 아이가 죽었으니 내 목숨도 여기서 끝내야겠다.” 라고 하였다. 마침내 집안사람들이 없는 틈을 엿보아 빈소 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가 세워졌다.

박씨: 지평(持平)에 추증된 이일영(李逸英)의 아내이다. 병자호란 때 남편을 따라 강화도에 들어가 함께 순절하였다. 고종 정묘년에 부역과 조세가 면제되었고, 병자년에 정려가 세워졌다.

조씨(趙氏): 지평(持平)에 추증된 이일로(李逸老)의 아내이다. 병자호란 때 남편을 따라 강화도에 들어가 그 동서 박씨와 함께 순절하였다. 고종 정묘년에 부역과 조세가 면제되었고, 병자년에 정려가 세워졌다. 그 남편의 사당이 합천 상곡에 있다.

【전답】

3310결(結) 50부(負)

밭: 1756결 19부 1속(束), 시기전(時起田)⁸⁵⁾ 849결 7부 4속

논: 1553결 80부 9속, 시기답(時期畓) 1351결 94부 4속

85) 시기전(時起田): 현재 경작하고 있는 밭.

【조적(糶糴)】

팔거창(八葛倉): 쌀 1019섬[石] 9되[刀] 9홉 7사[夕] 1리(里), 콩 123섬 3말 7되 3홉 6사, 벼[租] 2351섬 2되 7홉 7사, 겉보리 1604말 3되 2홉 3사

강창(江倉): 쌀 2236섬 8말 7사, 콩 44섬 14말 4되 8홉, 벼 5091섬 14말 8되 8홉 4사

별회창(別會倉): 쌀 1262섬 7말 1되 7홉 4사, 콩 95섬 7말 5되 3홉 8사, 벼 1059섬 4되 7홉 7사

군량창(軍糧倉): 쌀 1782섬 6말 7되 8홉 2사, 콩 376섬 4말 2되 3홉 4사, 벼 434섬 9말 2되 8사

가산진에 소속된 고을의 군위창: 쌀 178섬 8말 7되 3홉 2사, 콩 256섬 2말 2되 8홉, 장(醬) 10섬 5말

의흥창(義興倉): 쌀 50섬 8말 3되, 콩 251섬 14말 5되 7홉 1사, 벼 1섬 9말 4되, 장 10섬 2사

신녕창(新寧倉): 쌀 132섬 13말 9되 5홉 2사, 콩 349섬 8말 2되 9홉, 장 8섬 5말

하양창(河陽倉): 쌀 276섬 12말 2되 3홉, 콩 146섬 11말 8홉, 장 7섬 5말

고마창(雇馬倉): 진상품을 운반하는 소 21척(隻)을 각 면리(面里)의 외양간에 나누어 배치하였음.

외북창(外北倉): 군위의 쌀·콩·장은 합하여 내북창(內北倉)에 둠, 의흥의 쌀·콩·장은 내북창에 둠, 신녕의 쌀·콩·벼·장은 합하여 내북창에 둠.

남창(南倉): 쌀 4300섬 3말 7되 8홉 2사, 콩 21섬 12말 4되 8홉 5사, 벼 4472섬 2말 2홉 9사, 장 담그는 콩 58섬 9말, 은자(銀子) 1480냥 5전(錢) 2푼, 돈 9822냥 1전 7푼, 둔우(屯牛) 8척(隻)

【전세(田稅)】

왜료미(倭料米)⁸⁶⁾ 59섬 14말 3되 5홉 4사, 위태(位太)⁸⁷⁾ 작미(作米)⁸⁸⁾ 45

86) 왜료미(倭料米): 왜관에 머무는 왜인에게 지급하는 쌀

87) 위태(位太): 조세로 바치는 콩

88) 작미(作米): 전세로 바치는 곡식을 쌀로 환산함.

섬 5말, 삼수량미(三手糧米) 171섬 12말 4되 1홉 4사, 선혜청에서 누어 주는 쌀 160섬, 감영에서 나누어 주는 쌀 379섬, 날계란 값으로 주는 쌀 1섬 3되.

【대동(大同)】

가하미(加下米)⁸⁹⁾ 30섬 12말 8되 5홉 5사

【균세(均稅)】

결전(結錢)⁹⁰⁾ 1126냥 3전, 경오년에 조사하여 7결 92부 2속을 얻음.
무명 11필 12척 1촌 5푼, 돈 22냥 8전 7푼.

【봉름(俸廩)】

아록위(衙祿位)⁹¹⁾: 50결에 쌀 13섬 13말 8홉 2사.
공수위(公須位)⁹²⁾: 15결에 쌀 5섬 13말 4되.
관수미(官需米)⁹³⁾: 315섬.

【군액(軍額)】

훈련도감(訓練都監) 포수(砲手) 150명.
어영정군(御營元軍) 24명 가운데 복마군 2명.
자보(資保) 49명 가운데 마보(馬保) 3명
관납보(官納保) 207명
병조(兵曹)에 바치는 보병(步兵) 39명
보직보(祿直保) 69명
공조(工曹) 장인보(匠人保) 92명
대구진영(大邱鎭營)에 수포(收布)를 바치는 군관 중 營納守堞軍官 20인

89) 가하미(加下米): 추가로 더해 주는 쌀

90) 결전(結錢): 논밭의 면적에 따라 매기는 세금

91) 아록위(衙祿位): 아전 녹봉에 충당하는 몫의 토지

92) 공수위(公須位): 관아 경비에 충당하는 몫의 토지

93) 관수미(官需米): 수령 양식 몫의 쌀

양여군(良餘軍) 143명

아병군(牙兵軍) 8명

성정군(城丁軍) 1명

수륙군보(水陸軍保) 492명

발군(撥軍) 45명

발장(撥將) 1인

가산방군(架山防軍) 195명

가산 中城 守堞作領 軍官 528명

화병(火兵) 50명

속오군(束伍軍) 421명은 본부에 있고 505명은 하양에 있고 569명은 신녕에 있고 657명은 의흥에 있고 747명은 군위에 있다.

가산진(架山鎭) 표하보(標下保) 10명은 본부에 있고 10명은 하양에 있고 10명은 신녕에 있다.

승장(僧將) 260명.

【책판(冊板)】

파곡집(坡谷集)⁹⁴⁾이 천주사(天柱寺)에 있는데 들어간 종이가 93장이다. 장충장공유사(張忠壯公遺事)는 송림사(松林寺)에 있는데 들어간 종이가 160장이다.

94) 파곡집(坡谷集): 이성중(李誠中)의 문집

